

이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의견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것이며 통계청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310.121
통140
C.2

199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7-3)

여성인구의 특성과 변화

연구기관 :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 (연구위원)

양승주 (연구위원)



b31050

통 계 청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199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199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심층분석결과를 수록한 것으로서 조사기획, 조사준비, 조사실시, 자료처리, 자료집제 그리고 23권의 최종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5년간의 방대한 사업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로 이용되고 있음은 물론, 여러 인구, 사회 및 경제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자료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주택총조사가 전국의 모든 인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 중 일부 항목은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표본조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규모가 커 자료의 대표성과 유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광범위한 활용과 아울러 자료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다양한 연구결과의 도출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센서스를 실시하는 모든 국가에서 주요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 통계청에서는 1995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처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총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적 연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7개 주제에 걸친 연구결과를 각각 개별 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주제별 보고서 중 1권에서는 그동안 우리 나라가 경험해 온 급속한 인구변동의 결과로 나타난 성별 인구구조, 가구 및 가족, 노인, 교육, 노동력의 특성과 그 변화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아울러 그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함축하는 사회정책적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권에서는 과거 30여년간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급격히 변모해 온 농촌사회 제반 변동의 실상과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농촌인구의 특성과 농촌생활의 본질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촌 인구문제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권에서는 지역별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여성과 가족관계, 여성의 경제활동구조 등 여성인구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여성과 관련한 제반 여건을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권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의 주택수급과 주거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도시 주택 및 주거환경을 평가하였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 향후 주택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권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통근학 발생·도착량, 이용교통수단, 소요시간 등 통근학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통부문의 장단기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권에서는 기존의 각종 가구추계기법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각 가구추계기법의 현실성, 타당성 및 기본가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라 실정에 적용가능한 가구추계기법을 선택하여 가구규모 및 유형별 장래 가구수의 추계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권에서는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직업구조와 직업에 따른 사회계층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체계적으로 밝혀내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직업구조의 변화를 최근 우리 사회의 정보화 추세와 연관시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관련 분야별로 많은 연구자들께서 수고해 주셨으며,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심혈을 기울여 훌륭한 연구결과를 이끌어 내 주신 연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인구, 사회 및 경제부문에 걸친 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울러 각종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로서 널리 이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1995 인구주택총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 12월

통 계 청 장

김 병 일

목 차

제1장 서론	8
제2장 여성인구의 규모와 특성	11
제1절 남녀인구의 추이와 변동	11
1. 남녀인구의 규모와 추이	11
2. 향후 여성인구의 전망	15
3. 여성인구의 특성	19
제2절 지역별 여성인구 규모와 특성	22
1. 지역별 여성인구구조	22
2. 지역별 여성인구의 특성	29
3. 지역별 여성인구이동 현황과 특징	31
제3장 부부의 가구특성과 경제활동	38
제1절 부부의 일반적 현황	38
1. 여성의 생애사건과 가족의 변화	38
2. 가구주 부부의 일반적 현황	46
제2절 맞벌이 가구의 개인 및 가구 특성	54
1. 동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특성	57
2. 읍면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특성	68
제4장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특성	76
제1절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특성	76
1. 성별 경제활동 현황과 특징	76
2. 인적특성별 유업율 현황	79
제2절 여성취업자의 고용구조	83
1.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지위	83
2. 여성취업자의 업종별 고용구조	88
3. 여성취업자의 직종별 고용구조	95
제3절 여성 시간제취업자의 특성	100

1. 시간제근로자의 규모	100
2.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고용구조	101
3.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인적특성	103
제4절 여성취업자와 통근시간	106
제5절 여성의 지역별 고용구조	109
1. 지역별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109
2. 지역별 여성취업자의 고용구조	115

제5장 여성 노동력 규모와 구조의 전망 120

제1절 성별 노동공급추이와 함수추정	121
1. 생산가능한 민간인구의 전망	121
2. 여성의 노동공급함수 추정	123
제2절 여성 노동력 전망과 구조변화	130
1. 성별 연령별 노동력 전망	130
2. 노동력의 연령별 구조 변화	133
3. 여성 노동력 비율의 전망	134

제6장 여성인구관련 정책의 과제와 방향 136

제1절 여성인구의 변화와 과제	136
제2절 지역별 여성인구의 특성과 과제	140

참고문헌 143

부 표 147

표차례

<표 II-1> 성별 총인구추이	12
<표 II-2> 성별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변동	13
<표 II-3> 성별 인구구조의 추이	15
<표 II-4> 남녀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전망	17
<표 II-5> 학력별 남녀 교육인구구조	19
<표 II-6> 학교급별 남녀교육인구 증가(율)	20
<표 II-7> 혼인상태별 남녀인구 분포	21
<표 II-8> 종교유형별 남녀인구	21
<표 II-9> 연령계층별 여성인구의 종교유형	22
<표 II-10> 남녀인구의 지역별 분포	23
<표 II-11> 지역별 남녀 인구증가율 현황	24
<표 II-12> 지역별 여성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25
<표 II-13> 시도별 만5세 미만 인구의 전망	27
<표 II-14> 지역별 여성 교육인구의 구성(1995)	30
<표 II-15> 지역별 여성 교육인구의 증감율(1995)	31
<표 II-16> 지역별 여성인구의 전출입 현황(1990-1995년)	32
<표 II-17> 여성인구의 지역간 이동구조(1990-1995년)	33
<표 II-18> 지역별 혼인상태별 여성인구의 전출입 현황	35
<표 II-19> 지역별 학력별 남녀인구의 순이동 현황	37
<표 III-1> 지역 및 성별 평균초혼연령	38
<표 III-2> 부부상호간 연령별 혼인	39
<표 III-3> 혼인형태별 혼인구성비 1975-1995	40
<표 III-4> 부부상호간 혼인종류(1995)	41
<표 III-5> 결혼코호트별 부인의 출산시 연령 및 출산간격	41
<표 III-6> 모의 연령별 출생구성비 1975-1995	42
<표 III-7> 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생아 분포	43
<표 III-8> 각국의 모의 연령별 출생구성비 비교	43
<표 III-9> 20세 이상 여성인구의 연령별 가족구성형태의 변화	45

<표 III-10>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가구분포	46
<표 III-11> 지역별 가구주부부의 부부 상호간 연령분포	47
<표 III-12> 지역별 가구주부부의 부부 상호간 학력분포	47
<표 III-13> 지역별 가구주 부부의 자녀유형 분포	49
<표 III-14> 지역별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 분포	50
<표 III-15> 동거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연령	51
<표 III-16> 지역별 동거하는 시모와 며느리의 경제활동상태분포	52
<표 III-17> 동거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연령	53
<표 III-18> 지역별 동거하는 시모와 며느리의 경제활동상태분포	53
<표 III-19> 가구주 혼인상태 및 맞벌이 경제활동유형별 가구분포	54
<표 III-20> 지역별 가구주의 혼인상태 및 가구주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가구분포	55
<표 III-21> 도별 동부지역 가구주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가구분포	56
<표 III-22> 동부지역 유배우여성의 지역별 직업분포	56
<표 III-23> 동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연령분포	57
<표 III-24> 동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학력분포	58
<표 III-25> 동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종사상의 지위분포	59
<표 III-26> 동부 맞벌이부부의 종사상의 지위분포	60
<표 III-27> 동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직업분포	61
<표 III-28> 동부 맞벌이 부부의 직업분포	61
<표 III-29> 맞벌이부부 상호간 직군별 분포	62
<표 III-30> 동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통근 현황	63
<표 III-31> 동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가구의 세대구성 분포	64
<표 III-32> 동부 부부의 경제활동 유형별 가구원수 분포	65
<표 III-33> 동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가구의 자녀유형 분포	66
<표 III-34> 맞벌이부부의 6세미만 자녀유무별 직업 분포	67
<표 III-35> 동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집의 점유형태	67
<표 III-36> 동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거처의 종류 분포	68
<표 III-37> 읍면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연령분포	69
<표 III-38> 읍면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학력분포	70

<표 III-39> 읍면부 가구 유형별 부부의 종사상 지위분포	70
<표 III-40> 읍면부 맞벌이부부의 종사상의 지위분포	71
<표 III-41> 읍면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직업분포	71
<표 III-42> 읍면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가구구성 분포	72
<표 III-43> 읍면부 부부의 경제활동 유형별 가구원수 분포	73
<표 III-44> 읍면부의 가구유형별 동거 부모 및 자녀 관련 특성	74
<표 III-45> 읍면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거처의 종류 분포	75
<표 III-46> 읍면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집의 점유형태	75
<표 IV-1> 성별 유형별 경제활동상태	77
<표 IV-2> 성별 유형별 경제활동상태	78
<표 IV-3> 성별 지역별 유업율 현황	78
<표 IV-4> 여성인력의 유형별 경제활동상태	79
<표 IV-5> 성별 연령계층별 유업율	80
<표 IV-6> 인적특성별 남녀 유업율	82
<표 IV-7> 연령계층별 인적특성별 여성의 유업율	82
<표 IV-8> 성별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84
<표 IV-9> 학력별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84
<표 IV-10> 여성취업자의 연령계층별 종사상지위별 구조	85
<표 IV-11>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86
<표 IV-12> 종사상지위별 여성취업자의 업종별 분포	87
<표 IV-13> 종사상지위별 여성취업자의 직종별 분포	88
<표 IV-14> 성별 취업자의 업종별 분포	89
<표 IV-15> 교육정도별 여성취업자의 업종별 분포	90
<표 IV-16> 세부업종별 여성취업자의 분포	92
<표 IV-17> 연령계층별 여성취업자의 업종분포	94
<표 IV-18>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의 업종분포	95
<표 IV-19> 성별 취업자의 직종별 분포	96
<표 IV-20> 업종별 직종별 여성취업구조	97
<표 IV-21> 연령계층별 여성취업자의 직종분포	98
<표 IV-22>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의 업종분포	99

<표 IV-23> 학력별 여성취업자의 직종별 분포	100
<표 IV-24> 성별 시간제취업자의 현황	101
<표 IV-25> 시간제취업자의 업종별 고용구조	102
<표 IV-26> 시간제임금근로자의 업종별 고용구조	103
<표 IV-27> 시간제임금근로자의 직종별 고용구조	104
<표 IV-28> 성별 시간제근로자의 연령계층별 분포	105
<표 IV-29> 성별 시간제근로자의 학력별 분포	105
<표 IV-30> 성별 시간제근로자의 혼인상태별 분포	106
<표 IV-31> 성별 출근시간별 유업자 분포	107
<표 IV-32> 연령계층별 출근시간별 유업자 분포	108
<표 IV-33> 종사상지위별 출근시간별 유업자 분포	109
<표 IV-34> 지역별 남녀인구의 경제활동상태	110
<표 IV-35> 지역별 남녀 무직자의 무직사유별 분포	111
<표 IV-36> 지역별 연령계층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12
<표 IV-37> 지역별 학력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113
<표 IV-38> 지역별 가구주여부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114
<표 IV-39> 지역별 종사상지위별 여성 취업자 분포	116
<표 IV-40> 지역별 업종별 여성 취업자 분포	117
<표 IV-41> 지역별 직종별 여성 취업자 분포	118
<표 V-1> 연도별 연령별 민간인구 전망	122
<표 V-2> 연도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23
<표 V-3> 여성 노동력공급 함수 추정결과	128
<표 V-4> 남성 노동력공급 함수 추정결과	129
<표 V-5> 연도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131
<표 V-6> 연도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132
<표 V-7>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계층별 비율	134
<표 V-8> 연도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의 여성비율	135

그림 차례

<그림 II-1> 향후 남녀인구 및 성비의 전망	16
<그림 II-2> 향후 여성노령인구의 전망	18
<그림 II-3> 만5세 이하 아동 수의 변동 추이	18
<그림 II-4> 시도별 부양비 현황(1995)	26
<그림 II-5> 각국의 여성 노령화 전망(2000년)	28
<그림 IV-1> 출퇴근 시간대별 남녀유업자 누적분포	107
<그림 V-1> 연도별 연령계층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24
<그림 V-2> 연도별 연령계층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25

제1장 서론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 나라 여성인구의 특성과 인구구조는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 이후 급속히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와 노동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져서, 이와 같은 변화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또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인구특성과 여성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출산율의 저하(1995년 합계출산율; 1.7), 여성의 평균초혼연령(1985년 24.8세에서 1995년 26.1세) 및 평균수명(1985년 73.3세에서 1995년 77.4세)의 상승으로 인해서 여성의 생애주기(life cycle)가 크게 변화되었다. ②여성의 만혼화 현상과 이혼의 증가로 인해 미혼시기가 증대하고 여성가구주 가구가 늘고 있다. ③여성 진학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여성인구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젊은 세대 여성의 의식이 크게 변화되어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인구가 증대하고 있다. ④현재(1994년)의 높은 출생성비(115.5)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性比(1995년 현재 100.7)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⑤15-64세의 생산가능연령 인구는 '95년 현재 70.5% 수준에서 2000년의 70.6%까지 높아졌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 낮아질 것이다. ⑥2000년에 접어들면 우리 사회는 65세 노령인구의 비율이 7.1%에 달하게 되어 인구의 노령화가 급진전될 것이다. 특히 남성에 비해서 여성인구의 노령화가 더욱 빨리 진행되고 있다. ⑦마지막으로 각 지역별로 여성인구구조뿐만 아니라 인력의 질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지역경제의 구조와 발전의 편차로 인해서 이와 같은 차이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여성인구특성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현재 가족, 사회 및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한편,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형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이와 같은 여성특성과 구조변화로 예상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보면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결혼저령기의 성비불균형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발견되듯이 만혼과 이혼증가로 인해서 미혼여성 단독가구, 모자가구가 증대할 것이고, 출생아동수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여성의 탈자녀양육기와 빈둥

지 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기혼여성의 자아실현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가구가 증가하면서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가족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인력문제를 보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1960-70년대의 출산을 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통해 노동시장의 인력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진학률의 증대로 인해서 여성인력의 질이 향상되고 의식변화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인구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의 서비스화로 인해서 판매서비스직에 대한 여성인력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서, 여성의 학력수준의 상승과 의식변화로 인해서 전문관리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력의 수급불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여성과 관련된 복지문제로는 인구의 노령화 진전과 노인인구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로 인해서 전반적인 복지예산지출에 대한 압력 증대와 함께 여성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노동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여성의 증대로 인해서 보육시설과 같은 여성 취업지원시설 및 제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대될 것이다. 이 외에도 여성인구특성 및 구조변화는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제를 대두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성인구와 관련한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의 발생은, 향후 우리 사회에서 여성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여성정책의 정확한 방향설정이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될 것임을 반증해준다. 뿐만 아니라 지방화의 진전으로 인해 제반 여성정책들이 지역단위로 수립, 시행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특성에 따른 여성정책의 수립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해당 시·도에 여성정책과나 여성복지과를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가 가지고 있는 여성인구 및 인력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연구의 미비로 인해서,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여성과 관련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1990년과 1995년 사이의 여성인구의 특성, 여성과 가족관계, 여성의 경제활동 구조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 전망함과 동시에 1990년 이후의 그와 같은 변화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여성인구의 특성 및 변화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통계청의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에 한정되어 여성인구의 특성과 변화가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제5장 여성노동력 전망 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분석이 기술적인(descriptive)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여성인구와 관련된 출산, 혼인, 가족관계 등 인구학적인 변수가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음으로, 여성인구의 특성이 제한적으로 분석되어져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부가구나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비교적 기간이 긴 1개월에 걸친 평상상태를 기준으로 유업자와 무업자를 식별하는 평상상태접근법(usual status approach)(혹은 유업자접근법)을 사용하여 조사된 결과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주간을 기준으로 노동력상태를 파악하는 현상태접근법(current status approach)(혹은 노동력접근법)을 사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는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에 따라 부부가구나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소 주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3장과 4장에서는 유업자접근법을 사용한 결과를 이용하는데 비해서 연별 통계가 필요한 5장에서는 노동력접근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경제활동상태를 비교분석함에 있어서 1990년과 1995년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있어서 유업자와 무업자를 식별하기 위한 참고기간(reference periods)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한다.

제2장 여성인구의 규모와 특성

제1절 남녀인구의 추이와 변동

1. 남녀인구의 규모와 추이

우리 나라의 총인구는 1995년 현재 4,509만명이다. 기간별 인구증감율을 보면, 1980-84년에 연평균 1.46%의 증가를 보이다가 1980년대 후반에는 0.99%로 증가율이 둔화되었다가 1990년대 초부터는 다시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인구를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남성이 2,270만명이고 여성이 2,239만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많다. 성별 인구증감율을 보면 남성 인구증감율은 1980년대 후반에 감소하였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 반면에, 여성 인구증감율은 198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여성 인구증감율은 1980년대에는 남성보다 높았으나, 1990년에 접어들면서 반전되어 남성의 인구증감율이 오히려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여성인구비율은 1980년 49.54%에서 1989년 49.69%로 증가하였다가, 1991년부터 점차 하락하여 1996년에는 49.63%가 되었다.

연령계층별 인구구조를 보면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71.1%(1995년)이고, 0-14세와 65세 이상 인구가 각각 23.0%, 5.9%를 차지하여 총부양비가 40.6%였다. 이와 같은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구성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높았다.(1995년 미국의 생산가능인구비율은 65.4%, 영국 65.0%, 일본 69.6%, 프랑스 65.5%, 개발도상국 전체 60.7% 이었다).¹⁾

1) U. N. (1995), 「1994년 세계인구 전망」.

〈표 II-1〉 성별 총인구추이

단위 : 1,000명, %

연 도	연 앙 추 계 인 구			
	계(A)	남 자	여 자(B)	여성비율(B/A*100)
1980	38,124	19,236	18,888	49.54
1981	38,723	19,536	19,187	49.55
1982	39,326	19,837	19,489	49.56
1983	39,910	20,129	19,781	49.56
1984	40,406	20,375	20,031	49.57
1985	40,806	20,576	20,230	49.58
1986	41,214	20,772	20,442	49.60
1987	41,622	20,960	20,662	49.64
1988	42,031	21,155	20,876	49.67
1989	42,449	21,357	21,092	49.69
1990	42,869	21,568	21,301	49.69
1991	43,296	21,784	21,512	49.69
1992	43,748	22,014	21,734	49.68
1993	44,194	22,242	21,952	49.67
1994	44,642	22,473	22,169	49.66
1995	45,093	22,705	22,388	49.65
1996	45,545	22,939	22,606	49.63
연평균증가율				
1980-84	1.46	1.45	1.48	
1985-89	0.99	0.94	1.05	
1990-94	1.02	1.03	1.00	

출처 :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성별 연령계층별 인구구조를 보면 남성의 0-14세 이하, 15-64세 이하 인구구성비는 각각 24.0%, 71.7%인데 비해서, 여성은 각각 22.0%, 70.5%이었다. 즉, 남성은 상대적으로 유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높는데 비해서, 여성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65세 이상 인구구성비는 여자 7.5%, 남자 4.3%였다). 이러한 65세이상 여성 노령인구는 1980년 907천명에서 1995년 1,595 천명으로 증가하였고, 5세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의 변동추이를 보면, 남녀 모두 30세 미만 인구구성비는 198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30세 이상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선진국형 인구구조인 중형(bowl)으로 전환하였다.

〈표 II-2〉 성별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변동

단위 : %

연 도	남 자			여 자			성 비
	1985	1990	1995	1985	1990	1995	1995
0-4	9.5	7.9	8.1	8.8	7.2	7.2	113.4
5-9	10.0	9.2	7.3	9.4	8.6	6.6	110.7
10-14	11.4	9.4	8.6	10.7	9.0	8.1	107.6
15-19	11.0	10.4	8.9	10.3	10.1	8.5	106.4
20-24	10.8	10.5	10.0	10.2	9.7	9.3	105.9
25-29	10.0	9.9	9.3	10.1	10.1	9.3	108.3
30-34	7.9	9.8	9.6	7.6	9.6	9.4	100.9
35-39	6.5	7.6	9.4	6.2	7.2	9.1	103.0
40-44	5.5	6.0	7.1	5.3	5.7	6.7	103.6
45-49	5.2	5.1	5.6	5.2	5.0	5.4	104.9
50-54	4.0	4.6	4.6	4.4	4.7	4.7	99.4
55-59	2.8	3.5	4.1	3.5	4.0	4.5	93.3
60-64	2.2	2.3	3.0	2.8	3.1	3.7	82.0
65-69	1.5	1.7	1.9	2.1	2.4	2.8	67.5
70+	1.7	2.0	2.5	3.4	3.8	4.7	53.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7

주 : 1)외국인은 제외됨.

출처: 통계청(1987, 1992, 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우리 나라의 성비(sex ratio; 여성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남성인구구성비)를 보면, 전체의 성비는 100.7이었다. 이러한 성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중국(105.7; 1995년), 홍콩(106.7) 보다는 낮으나, 미국(95.4), 영국(96.1), 프랑스(95.2), 일본(97.0)보다는 높다.

성비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남아선호사상과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수명으로 인해서,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인구가 더 많은 특성을 보였다. 즉, 0-14세 이하와 15-64세 이하의 성비는 110.0, 102.3인 반면에, 65세 이상의 성비는 53.5로서 여성인구가 훨씬 많았다. 연령계층별을 좀 더 세분해서 성비추이를 보면, 0-4세 연령층의 성비는 1985년 108.0, 1990년 111.2, 1995년 113.4로 해당 연령층에 있어서 남자가 상대적으로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성별 불균형현상은 출생아동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져, 1994년 출생아동의 성비는 115.5에 달했다. 0-4세 연령층의 성비를 외국과 비교하면

(1995년 기준) 일본은 104.9, 미국은 105.1, 영국 104.9, 프랑스 105.1, 캐나다 105.7, 스웨덴 105.8로서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0-4세 연령층의 성비가 100.0 이상이나, 우리 나라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전체 성비 100.7은 정상성 비수준이나 외국보다는 높다. 특히 출생성비는 외국보다 훨씬 높았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성비가 100.0 이상 되는 것은 남녀간의 평균수명의 차이와 인구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나, 우리 나라는 이와 같은 요인 이외에 특별히 남아선호사상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계층별 남녀인구구조에 대한 추이를 보면, 지속적인 출산력의 저하로 인해서 1960년 이후에 증가하였던 남녀 유소년인구가 197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출산력이 대체출산 수준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유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²⁾ 이에 따라 남녀 인구 중에서 유소년인구의 구성비도, 1960년에 40% 수준에서 1980년 30%대, 1990년에는 20%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1960년 이후 여성인구 중에서 유소년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를 계속해서 보여왔다.

15-64세 연령층의 인구비율은, 남녀 모두 1960년 55%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남녀 각각 71.7%와 70.5% 수준을 보였다. 65세 이상 노년인구 구성비 또한 남녀 모두 지난 196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인구의 평균수명으로 인하여, 여성 인구 중에서 노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구조를 보였다.³⁾

2) 합계출산율(TFR)의 변동추이를 보면, 1970년 4.51에서 1975년 3.42, 1980년 2.65, 1985년 1.70, 1990년 1.60, 1995년 1.74이었다. 합계출산력이 대체출산력(2명 수준) 수준 이하로 떨어진 시기는 1984년이었다. (1983년 2.11, 1984년 1.78).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p. 22.

3) 성별 평균수명의 추이를 보면 남녀 각각 1960년에는 51.1세, 53.7세이었으나, 1970년 59.8세, 66.7세, 1985년 64.9세, 73.3세, 1990년 67.7세, 75.7세 그리고 1995년에는 69.6세, 77.4세이었다.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p. 50.

〈표 II-3〉 성별 인구구조의 추이

단위 : 천명, %

	인구수					구성비				
	1960	1970	1980	1990	1995	1960	1970	1980	1990	1995
남녀계										
전체	25012	32240	38123	42869	44554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10587	13709	12950	10983	10236	42.3	42.5	34.0	25.6	23.0
15-64	13698	17540	23716	29700	31678	54.8	54.4	62.2	69.3	71.1
65+	720	991	1456	2195	2640	2.9	3.1	3.8	5.1	5.9
남 자										
남자	12550	16308	19235	21568	22357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5475	7113	6707	5707	5362	43.6	43.6	34.9	26.5	24.0
15-64	6786	8787	11983	15038	16020	54.1	53.9	62.3	69.7	71.7
65+	288	408	544	821	975	2.3	2.5	2.8	3.8	4.4
여 자										
여자	12461	15932	18888	21301	22196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5111	6596	6243	5266	4873	41.0	41.4	33.1	24.7	22.0
15-64	6912	8752	11733	14661	15657	55.5	54.9	62.1	68.8	70.5
65+	437	583	911	1373	1666	3.5	3.7	4.8	6.4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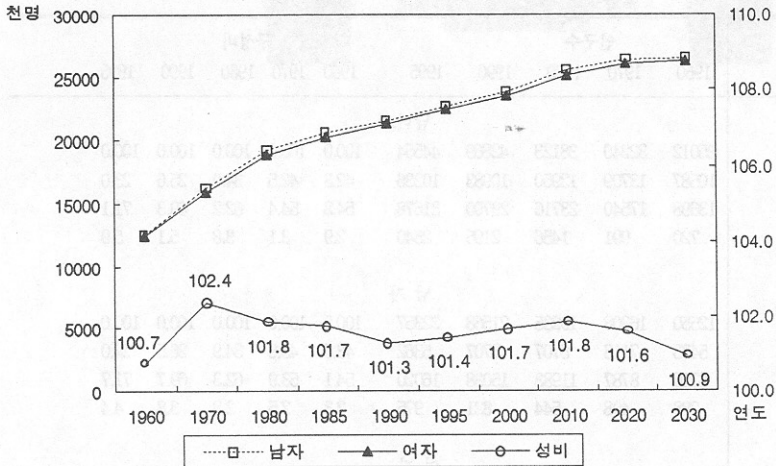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1987, 1992, 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 향후 여성인구의 전망

향후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 나라의 총인구는 1995년 45,093천명에서 2000년에 47,275명, 2010년에 50,618천명 그리고 2020년에 52,358천명, 2030년에는 52,743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구는 2028년 52,776명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II-1>).

성별 인구추이를 보면, 여성인구는 1995년 22,388천명에서 2000년 23,443천명, 2010년에 25,081천명 그리고 2030년에는 26,491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남성인구는 1995년에 22,705천명에서 2000년 23,832명, 2010년 25,537명, 2030년에 26,491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여성인구는 2029년 26,252천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는 반면에, 남성인구는 2027년의 26,536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Ⅱ-1> 향후 남녀인구 및 성비의 전망



주: 외국인 포함.

자료: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성비는 현재의 높은 출생성비(1995년, 113.4)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2010년대 중반까지는 소폭 상승한 후 노령화 사회가 진전됨으로써 다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성비는 2000년에 101.7, 2010년 101.8, 2020년 101.6 그리고 2030년에는 100.9로 낮아 질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연령계층별 남녀인구구조에 대한 향후 전망을 보면, 남녀인구 모두 2000년을 기점으로 15-64세 인구비중이 감소하는 구조로 전환될 것이다. 이와 같은 15-64세 인구비중의 감소추이는, 0-14세 인구비율의 지속적이고 완만한 감소로 인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노령화현상은 여성인구에서 더욱 빨리 진행되어 2010년에는 여성노령인구비율이 11.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노령인구 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1995년 65세이상 남녀인구를 100.0으로 하면, 남성은 1995년 100.0에서 2000년에 131.3, 2020년에는 143.6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여성도 1995년 100.0에서 2000년에 124.2, 2020년에 132.5로 증가할 것이다. 즉, 65세 이상 남녀노령인구의 규모는 1995년에 각각 167만명, 98.6만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207.5만명, 129.5만명, 2010년 292.7만명, 210.4만명 그리고 2020년에는 387.7만명, 302.1만명으로 증대될 것이다.

〈표 II-4〉 남녀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전망

단위 : %

연도	남 자				여 자			
	1995	2000	2005	2010	1995	2000	2005	2010
0-14	24.0	22.8	22.3	20.8	22.0	20.5	20.1	19.0
15-64	71.7	71.8	70.8	71.0	70.5	70.6	69.5	69.3
65+	4.3	5.4	6.9	8.2	7.5	8.9	10.4	11.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통계청(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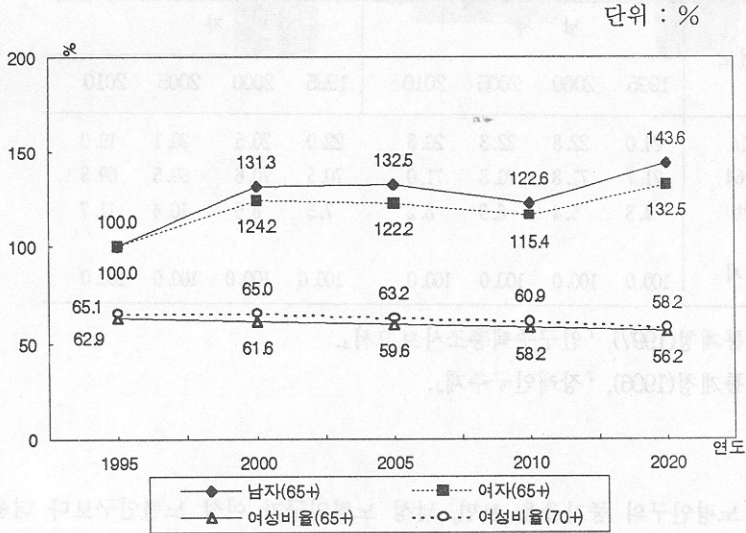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또한 성별 노령인구의 증가율을 보면, 남성 노령인구가 여성 노령인구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결과 65세이상 인구 중에서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62.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56.2%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65세 인구 중에서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노인의 절대적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또한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취업자를 운영함에 따라 여성노인의 노후생활 보장과 삶의 질 제고 등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향후 더욱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95년 이후의 취학전 아동 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그림 II-3>과 같다. 1995년 영아인 0-2세 아동 수는 216만명, 3-5세 아동 수는 203.2만명로서, 전체 만5세이하 아동 수는 419.2만명이다.⁴⁾ 지난 1970년 이후 만5세이하 아동 수의 변동을 보면, 1970년에 542.4만명에서, 1975년 546.4만명, 1980년 485.2만명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에 387만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에 1995년에는 406.6만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1995년부터 증가세는 지속되어 1998년에 430.3만명을 기록한 이후에, 1998년 이후에는 5세 이하 아동 수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 427.4만명, 2005년 407.3만명 그리고 2010년에는 385.6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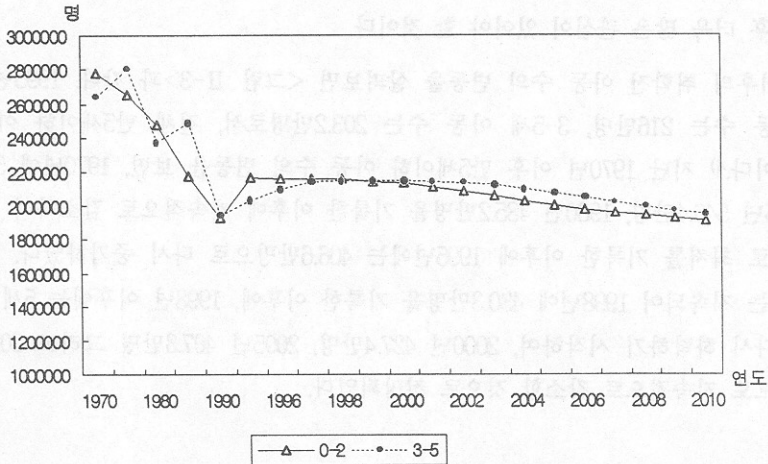
4) 일반적으로 만2세 이하인 유아와 3세 이상인 아동의 보육시설은 차이가 있다. 영아보육은 1개반 구성아동수와 1인 보육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영아와 유아 수가 각기 다르고, 정부의 표준보육단가에서도 차이가 있음.

<그림 II-2> 향후 여성노령인구의 전망



자료: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그림 II-3> 만5세 이하 아동 수의 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3. 여성인구의 특성

여성인구의 교육정도별 특성을 보면, 6세 이상 여성인구 20,275천명 중에서 초등학교이상 교육(초등학교 재학, 중학교 중퇴 포함)을 받은 여성은 89.4%에 달한다. 이와 같은 비율은 1990년 88.3%보다 1.1% 포인트(679천명)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 95.9%(19,358만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표 II-5〉 학력별 남녀 교육인구구조

단위 : %

	초등	중학	고등	전문대	대학	대학원	소계
남녀인구의 교육수준별 분포							
여자 재학	9.1	5.8	5.4	0.6	2.8	0.1	23.7
졸업	14.1	11.8	29.4	3.1	7.4	0.4	66.2
불취학	-	-	-	-	-	-	10.1
남자 재학	9.9	6.2	5.7	1.2	5.2	0.3	28.4
졸업	8.7	9.7	31.0	4.0	12.7	1.6	67.7
불취학	-	-	-	-	-	-	3.8
남녀 재학 및 졸업인구의 학교급별 분포							
여자 재학	38.3	24.5	22.6	2.4	11.6	0.5	100.0
졸업	21.3	17.8	44.4	4.7	11.2	0.6	100.0
남자 재학	34.8	21.7	20.0	4.1	18.3	1.0	100.0
졸업	12.8	14.3	45.8	5.9	18.8	2.4	100.0

주:1)중퇴자는 하위학력에 포함시켰다.

2)불취학에는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숫자임.

자료:통계청(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5년 현재 재학 중인 여성인구의 학교급별 분포를 보면, 초등학교 재학생이 전체 여학생의 38.3%, 중등학교 재학생이 47.1% 그리고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이 14.5%이었다. 이와 같은 여학생의 학교급별 분포를 남자와 비교해보면, 여자는 상대적으로 고등교육기관 즉, 전문대,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인구비율이 낮은 구조를 보였다. 이와 같은 졸업인구의 경우에도 재학생의 학교급별 교육인구구조와 동일한 특성을 보여,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인구의 변동추이를 보면, 남자 고교졸업자는 1990년 이후 5년 동안에 9.6%가 증가한 반면에 여자는 22.6%가 증가하였다. 전문대학은

남자가 1.2% 감소한데 비해서 여자는 57.7%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대학은 남자가 42.9%가 증가한데 비해서 여자는 69.2%가 증가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이수한 여성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6〉 학교급별 남녀교육인구 증가(율)

단위 : 천명, %

	고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이상 졸업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990-95년						
증가 인원수	547	1,120	-10	230	869	649
증가율	9.6	22.6	-1.2	57.7	42.9	69.2

주: 졸업생에는 상급학교의 중퇴자도 포함.

출처 : 통계청(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여성인구의 혼인상태별 특성을 보면, 15세 이상 여성인구의 60.3%는 유배우 인구이고 25.3%는 미혼, 13.2% 사별, 그리고 1.2%는 이혼인구이다. 혼인상태별 남성인구구조에 비해서, 여성인구는 사별인구와 이혼인구의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여성인구 중에서 사별인구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은, 사별한 여성의 재혼율이 남성에 비해서 낮은 점도 있으나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높음에도 그 원인이 있다.

지난 1995년의 혼인상태별 여성인구구조를 1990년과 비교하면 미혼여성의 비율은 낮아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낮은 출산수준의 지속으로 대부분이 미혼인 저연령층 인구의 절대 규모가 크게 감소하게 되면서 전체 인구에 대한 미혼인구의 비율이 오히려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결혼적령기인 20-30대 여성만을 대상으로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만혼 및 독신자의 증가로 20대와 30대 여성에서 중에서 미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각각 50.8%, 4.1%에서 1995년에는 56.0%, 4.8%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40세 이상 여성 중에서 (결혼경험이 전혀 없는) 미혼여성비율도 1990년 (미혼여성의) 0.7%에서 1995년 1.2%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만혼이나 독신여성의 증가가 미혼인 저연령층의 인구의 감소보다 적어서, 전체적으로 미혼여성인구비율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혼여성의 비율도 1990년 0.9%에서 1995년 1.2%로 0.3% 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7〉 혼인상태별 남녀인구 분포

단위 : %

	전 체		남 자		여 자	
	1990	1995	1990	1995	1990	1995
유배우	59.1	61.2	59.3	62.0	58.8	60.3
사별	7.2	7.5	1.	13.2	12.5	13.2
이혼	0.8	1.1	0.	1.2	0.9	1.2
미혼	32.9	30.2	38.	25.3	27.8	25.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1992, 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종교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인구의 54.2%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남성은 47.3%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남녀 모두 불교인구가 가장 많아서 각각 (전체 남녀인구의) 21.8%, 24.6%에 달했다. 그 다음은 개신교, 천주교, 유교 순이었다. 유교의 경우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남성종교인구 수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을 보였다.

〈표 II-8〉 종교유형별 남녀인구

단위 : %

	남성인구	(비율)	여성인구	(비율)
불교	4,870,853	21.8	5,450,159	24.6
개신교	4,087,356	18.3	4,672,980	21.1
천주교	1,339,295	6.0	1,611,435	7.3
유교	113,951	0.5	96,976	0.1
원불교	39,555	0.2	47,268	0.2
천도교	13,215	0.1	14,969	0.1
대종교	3,642	0.0	3,061	0.0
대순진리교	28,916	0.1	33,140	0.1
기타	76,645	0.3	93,508	0.4
없음	11,782,401	52.7	10,170,914	45.8
미상	1,523	0.0	1,048	0.0
전체	22,357,352	100.0	22,195,458	100.0

자료: 통계청(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표 II-9〉 연령계층별 여성인구의 종교유형

단위 : %

	여성 인구	종교 있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기타	종교 없음
20-29	100.0	46.8	19.1	20.6	6.2	0.2	0.7	53.2
30-39	100.0	59.1	26.8	22.7	8.4	0.3	0.9	40.9
40-49	100.0	66.1	34.1	21.5	8.9	0.5	1.0	33.9
50-59	100.0	64.7	37.9	17.9	6.8	1.0	1.1	35.3
60+	100.0	63.8	35.4	18.6	7.2	1.3	1.3	36.2

자료: 통계청(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여성인구의 연령계층별 종교유형을 보면, 연령이 높은 여성일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성비율이 대체로 높았다. 그리고 종교유형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불교 신자의 비율과 유교 신자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낮은 여성일수록 개신교 신자의 비율이 높아져 가는 특성을 보였다.

제2절 지역별 여성인구 규모와 특성

1. 지역별 여성인구구조

우리 나라 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에 전체 인구의 23.0% 그리고 경기도에 17.3%, 인천에 5.2%가 거주하고 있었다. 즉, 총인구의 45.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구의 지역별 분포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인구의 지역별 분포변화를 보면, 6개 市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지난 1990년에 비해서 감소한 반면에 나머지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의 인구비율은 증가하였다. 9개 도를 보면 경기도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여성인구비율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 반면에, 나머지 7개 도의 인구비율은 감소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1990년에 전국여성인구의 14.2%가 거주했으나, 1995년에는 17.1%로 크게 증가하였다.

시도별로 남녀성비(「남성인구/여성인구」*100)를 보면, 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서 97.2이었다. 즉, 제주도는 여성인구의 상대적인 규모(여성인구-남성인구)가 전국에서 가
 장 높았다. 이 이외에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
 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였다. 나머지 시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이 중에 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서 102.2였고 그 다음은 강원도, 경기도, 인천시 순이었다.

〈표 II-10〉 남녀인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 %

	1990			1995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서울	24.4	24.4	24.4	23.0	22.9	22.9
부산	8.6	8.9	8.7	8.5	8.6	8.6
대구	5.1	5.2	5.1	5.5	5.5	5.5
인천	4.2	4.2	4.2	5.2	5.1	5.2
광주	2.6	2.6	2.6	2.8	2.8	2.8
대전	2.4	2.4	2.4	2.9	2.8	2.9
경기	14.2	14.1	14.2	17.3	17.0	17.1
강원	3.7	3.6	3.6	3.3	3.3	3.3
충북	3.2	3.2	3.2	3.1	3.1	3.1
충남	5.8	5.7	5.8	4.0	4.0	4.0
전북	4.7	4.8	4.8	4.2	4.3	4.3
전남	4.7	4.6	4.6	4.6	4.7	4.6
경북	6.6	6.6	6.6	6.0	6.0	6.0
경남	8.5	8.5	8.5	8.6	8.6	8.6
제주	1.2	1.2	1.2	1.1	1.2	1.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통계청(1992, 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향후 지역별 인구증가율을 보면 1990-95년 사이에는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을 제
 한 전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한 반면에, 1995-2000년 사이에는 이와 같은 지역 이외에 서
 울시와 부산시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여성인구의 증감율을 보면, 1990년-95
 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경기도로서 동 기간에 연평균 4.61%의 증가율
 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4.1%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였다. 이 이외에
 도 대전과 광주의 여성인구증가율이 2%대로서 다소 높았다. 그러나 전남(-2.4%), 충남

(-1.6%), 강원(-1.6%), 전북(-1.48%), 경북(-0.58%) 등의 지역에서는 여성인구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여성인구증가율과 남성인구증가율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시, 대전시 그리고 충남, 전북, 전남, 제주에서는 남성인구 증가율이 여성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결과 이들 지역에서는 성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II-11> 지역별 남녀 인구증가율 현황

단위: %

연도	기간별 연평균 인구증가율						성비	
	전 제		남 자		여 자		(남성인구/ 여성인구)*100	
	1990-95	1995-00	1990-95	1995-00	1990-95	1995-00	1995 ¹⁾	2000
서울	0.56	-0.03	0.67	0.07	0.45	-0.13	100.9	103.5
부산	0.27	-0.13	0.31	-0.09	0.24	-0.17	99.3	99.5
대구	0.49	0.01	0.63	0.07	0.35	-0.06	101.5	102.4
인천	4.18	3.58	4.26	3.68	4.10	3.47	102.0	103.8
광주	1.91	1.74	1.81	1.66	2.00	1.82	99.4 ²⁾	99.5
대전	2.68	2.26	2.79	2.32	2.56	2.19	102.2	104.5
경기	4.59	4.09	4.56	4.07	4.61	4.11	102.0	101.6
강원	-1.86	-1.57	-2.12	-1.74	-1.60	-1.40	102.1	99.2
충북	0.28	0.41	-0.35	0.13	0.33	0.69	100.5	95.1
충남	-1.46	-1.24	-1.33	-1.22	-1.60	-1.26	101.1	105.0
전북	-1.62	-1.34	-1.76	-1.49	-1.48	-1.27	98.3	97.1
전남	-2.44	-2.14	-2.46	-2.15	-2.41	-2.14	98.1	102.2
경북	-0.69	-0.39	-0.80	-0.48	-0.58	-0.30	99.6	98.5
경남	1.08	1.02	1.05	0.94	1.12	1.09	101.2	100.1
제주	0.43	0.42	0.55	0.51	0.31	0.34	97.2	100.2

주: 1)은 통계청(1997),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임.

2)는 인구주택조사 자료인데 2000년 광주의 성비와 같은 자료출처인 시도별

추계인구 자료에 의하면 100.3임.

자료: 통계청(1994), 「시도별 추계인구」.

시도별로 연령계층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6개 시의 65세 미만의 인구의 구성비가 9개 도보다 높았다. 6개 시의 인구구조를 비교하면 고령인구비율은 6개 시가 유사했으나,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보였다.

〈표 II-12〉 지역별 여성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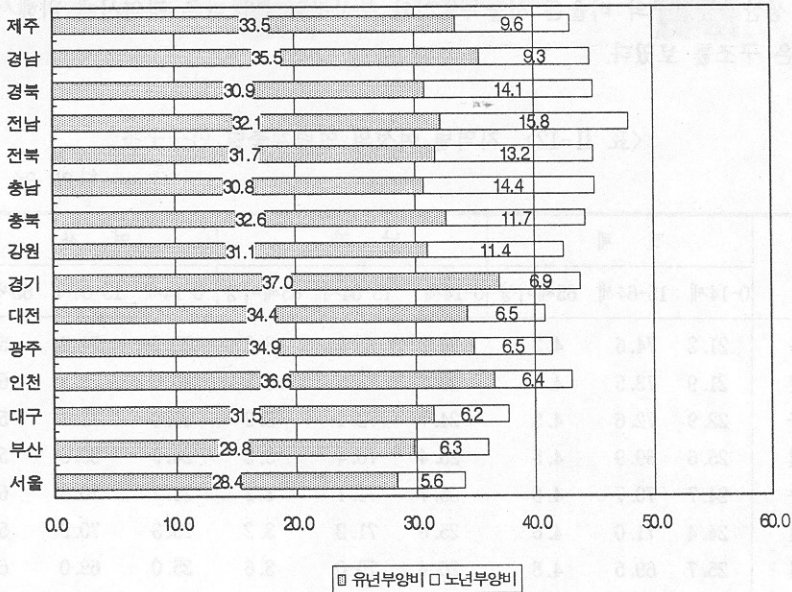
	전 체			남 자			여 자		
	0-14세	15-64세	65세이상	0-14세	15-64세	65세이상	0-14세	15-64세	65세이상
서울	21.2	74.6	4.2	22.2	74.8	3.0	20.2	74.3	5.5
부산	21.9	73.5	4.6	23.2	73.6	3.2	20.6	73.4	6.0
대구	22.9	72.6	4.5	24.7	72.1	3.2	21.0	73.1	5.9
인천	25.6	69.9	4.5	26.4	70.4	3.2	24.9	69.3	5.8
광주	24.7	70.7	4.6	25.7	71.1	3.2	23.7	70.3	6.1
대전	24.4	71.0	4.6	25.6	71.2	3.2	23.3	70.9	5.8
경기	25.7	69.5	4.8	26.4	70.0	3.6	25.0	69.0	6.0
강원	21.8	70.2	8.0	22.2	71.5	6.3	21.3	68.8	9.9
충북	22.6	69.3	8.1	23.5	70.1	6.4	21.6	68.4	10.0
충남	21.2	68.9	9.9	21.8	70.4	7.8	20.5	67.4	12.1
전북	21.9	69.0	9.1	22.7	70.4	6.9	21.1	67.7	11.2
전남	21.7	67.6	10.7	22.5	69.5	8.0	20.9	65.7	13.4
경북	21.3	69.0	9.7	22.8	69.7	7.5	19.9	68.4	11.7
경남	24.5	69.1	6.4	25.8	69.7	4.5	23.2	68.5	8.3
제주	23.4	69.9	6.7	24.6	71.7	3.7	22.2	68.1	9.7

자료: 통계청(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9개 도의 인구구조를 보면 경기도는 6개 시의 연령별 인구구조와 유사하여,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4.8%에 지나지 않고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가 69.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로 15-64세의 생산가능 연령계층이 유년 및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률(총부양비)을 보면, 대체로 9개 도가 6개 시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전남, 경북, 전북, 충남, 충북, 경남의 총부양비는 45% 내외로서, 일본의 43.6%(1995년 기준)보다 높고 거의 독일(45.6%) 수준에 육박하였다.

<그림 II-4> 시도별 부양비 현황(1995)

(단위 : %)



자료: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시도별 연령별 인구구조를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남성 생산가능인구비율의 시도별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에, 6개 시와 9개 도의 여성 생산가능인구비율의 차이는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6개 시의 여성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70-75%인데 비해서 9개 군은 65-69% 수준이었다. 그리고 9개 도 중에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의 여성인구노령화 정도가 상당히 커서, 65세이상의 여성인구비율이 10%를 넘었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도의 여성인구의 평균연령은 전국 여성인구의 평균연령인 32.1세보다도 훨씬 높아서, 충북이 33.7세, 충남 35.9세, 전북 34.8세, 전남 36.7세, 경북 35.8세를 나타내었다.⁵⁾

1995년 현재 육아의 주요대상연령층인 만5세 미만 아동은 3,427,409명이다.⁶⁾ 이와 같은

5) 시도별 남녀 평균연령을 보면 서울시가 각각 29.6세, 31.3세, 부산 29.7세, 31.7세, 대구 28.8세, 31.4세, 인천 28.4세, 29.9세, 광주 28.0세, 30.0세, 대전 28.4세, 30.2세, 경기 28.6세, 30.1세, 강원 31.7세, 34.2세, 충북 31.1세, 33.7세, 충남 32.8세, 35.9세, 전북 31.6세, 34.8세, 전남 32.7세, 36.7세, 경북 32.1세, 35.6세, 경남 29.4세, 32.2세 그리고 제주가 29.1세, 32.9세이었다.

6) 1995년의 만5세 미만 아동 수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1권 전국편의 자료이고, 나머지 통계자료는 통계청(1994), 「시도별 추계인구」 자료임. 「시도별 추계인구」 자료에는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4세미만 아동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전체 아동의 23.7%(78.6만명)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만5세 미만 아동이 그 다음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20.3%; 67.2만명)이었다. 6개 시에 거주하는 만5세 미만 아동의 분포를 보면, 부산이 8.0%, 인천 5.4%, 대구 4.5%, 광주 2.6%, 대전 2.4%였다. 9개 도를 보면 경남이 9.0%, 경북 5.8%, 전남 4.4%, 충남과 전북이 각각 3.5%, 강원과 충북이 각각 2.8%, 제주도가 1.1%였다.

또한 1995-2000년까지 만5세 미만 인구의 증감율을 보면, 동 기간동안에 만5세 미만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지역은 경기도였다(연평균 3.0%로 증가). 6개시의 증감율을 보면, 인천(연평균 1.75%), 광주(1.14%), 대전(0.74%)은 증가하는 반면에, 대구(-1.5%), 서울(-1.22%), 부산(-0.97%)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9개 도에서는 충북(0.91%), 경남(0.61%), 제주(0.5%), 경북(0.18%) 등은 증가하는데 비해서, 강원(-1.75%), 전남(-1.63%), 전북(-1.21%), 충남(-0.61%)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이 보육대상아동의 규모와 변동추이가 시도별로 상당히 다른 반면에 보육시설은 한번 재원이 투입되면 財源회수가 곤란하므로, 시도별 보육정책 수립에 있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수립 및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13〉 시도별 만5세 미만 인구의 전망

단위: 명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서울	785,266	786,337	779,359	773,085	766,592	757,518	739,392
부산	268,341	266,826	264,728	262,866	260,910	258,106	254,147
대구	162,898	150,670	149,031	147,559	146,082	144,151	139,735
인천	172,322	179,678	184,132	188,813	193,512	197,639	196,004
광주	88,849	85,434	86,556	87,751	88,921	89,820	90,432
대전	82,793	80,361	81,318	82,358	83,381	84,157	83,378
경기	591,647	672,586	695,646	719,842	744,586	767,409	779,630
강원	104,843	93,851	92,191	90,558	88,871	86,903	85,928
충북	97,597	94,103	94,636	95,204	95,733	95,940	98,456
충남	121,995	116,205	115,019	113,832	112,539	110,739	112,705
전북	131,462	116,940	115,218	113,547	111,831	109,739	110,031
전남	155,671	146,556	143,535	140,552	137,525	134,028	134,976
경북	185,069	192,277	191,629	191,038	190,410	189,146	194,058
경남	294,859	298,686	300,451	302,438	304,349	305,245	307,854
제주	36,060	35,232	35,318	35,419	35,503	35,456	36,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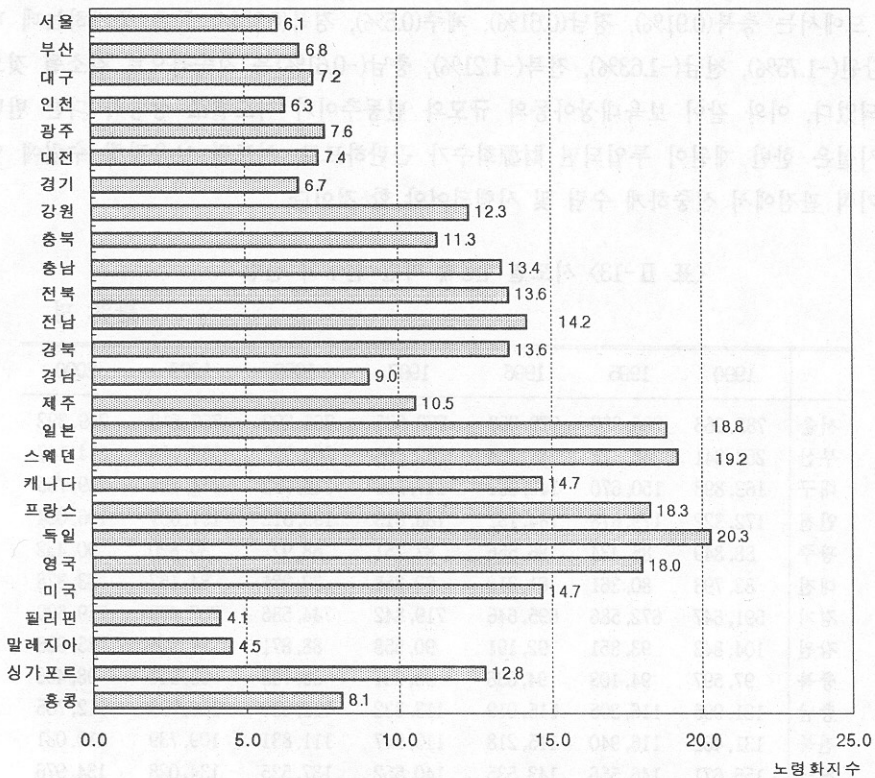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1994), 「시도별 추계인구」.

※ 만5세 미만 통계만이 수록되어 있음.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노령화 정도를 시도별로 보면,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지역에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인구의 노령화 정도가 더욱 심했다. 이와 같은 인구의 노령화 추이는 향후 더욱 진행되어, 6개 시는 1995년에 남성 3%내외, 여성 6%내외에서 2000년에는 남성 4%내외, 여성 7%내외로 증가될 것이다. 9개 도의 경우는 노령화 정도가 더욱 심하여, 1995년에 남성 7%내외, 여성 10%내외에서 2000년에는 8%내외, 12%내외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II-5> 각국의 여성 노령화 전망(2000년)

(단위: %)



자료: 통계청(1994), 「시도별 추계인구」.

E. Bos, M. T. Levin and R. A. Bulatao(1993), 「World Population Projection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시도별로 2000년에 여성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살펴보면, 전남이 가장 높아서 14.2%, 전북과 경북이 각각 13.6%, 충남이 13.4%를 보일 전망이다. 이와 같은 노령화 정도는 독일, 스웨덴, 일본, 프랑스, 영국보다는 낮으나, 캐나다와 미국의 노령화 정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이다. (<그림 II-4> 참조). 그러나 6개시의 여성인구 노령화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서울이 6.1%, 부산 6.8%, 인천 6.3% 정도이고, 9개 도 중에서 경기도(6.7%)와 경남(9.0%)도 상대적으로 노령화 정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면 경제적인 측면의 직접적인 영향은 노동력 감소, 저축률 감소, 사회복장급부의 증가, 경제의 활력과 실질경제성장율의 저하를 가져오고, 사회적인 영향으로는 핵가족화의 진행과 독립거주노인의 증가가 예상된다.⁷⁾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이와 같은 영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노령화 정도가 급속히 진행되는 전남, 전북, 경북, 전남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노인인구와 관련된 각종 정책과 대책 수립에 더욱 관심을 쏟고, 여성정책도 이와 같은 측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지역별 여성인구의 특성

서울특별시의 (6세 이상) 여성인구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전체 여성의 13.2%가 대졸, 7.5%가 전문대졸로서, 고학력 여성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고학력 여성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서, 대전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10.2%가 대졸이었고 8.0%가 전문대졸이었다.

시도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여성인구 중에서 고학력 여성비율은 9개 도 보다는 6개 시가 훨씬 높았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6개 시 중에서 고학력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이었고, 그 다음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순이었다. 9개 동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고학력 여성인구 비율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제주도, 전북, 경남도 고학력 여성비율이 높은 지역이었다.

지난 1990년과 비교해서 고학력 여성인구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서, 1990-95년 동안에 대졸과 전문대졸 여성인구가 각각 10.5%, 16.1%(전체 6세이상 여성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은 3.8%)이었다. 그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로서 각각 13.8%, 10.5%(4.9%)이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고학력 여성인구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각각 13.1%, 9.0%(2.1%)를 기록하였다.

7) 丸尾直美(1994), 「人口高齢化と福祉政策の課題」, 人口學研究, 日本人口學會, Vol. 17, p. 55.

<표 II-14> 지역별 여성 교육인구의 구성비(1995)

(단위: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전체
서울	13.5	15.3	16.7	33.9	7.5	13.2	100.0
부산	15.7	19.0	20.1	31.1	6.6	7.5	100.0
대구	16.6	19.0	19.1	29.0	7.6	8.6	100.0
인천	17.6	17.7	17.4	36.5	4.7	6.1	100.0
광주	17.3	17.3	17.3	29.6	8.7	9.7	100.0
대전	16.9	18.4	17.2	29.4	8.0	10.2	100.0
경기	18.1	17.5	16.2	35.1	4.9	8.2	100.0
강원	23.4	26.2	17.5	23.2	5.0	4.7	100.0
충북	23.4	25.3	16.6	24.9	5.1	4.6	100.0
충남	25.8	29.9	16.5	20.9	3.6	3.2	100.0
전북	25.4	24.9	16.7	21.9	5.4	5.7	100.0
전남	30.0	28.6	15.9	19.4	3.0	3.0	100.0
경북	26.0	25.7	16.6	23.3	4.5	3.8	100.0
경남	22.9	20.4	17.2	29.5	4.7	5.3	100.0
제주	23.9	20.4	15.9	27.4	6.5	5.9	100.0

자료: 통계청(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9개 도 중에서 고학력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였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주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순이었다. 1990-95년 동안 고학력 여성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전문대졸과 대졸이 각각 1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1990년대 초반에 경기도의 대졸과 전문대졸 여성인구는 연평균 각각 20.2%, 14.6% 증가하였다.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에서는 6세 이상 전체여성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졸 및 전문대졸 여성인구가 연평균 10% 내외의 높은 증가를 하였다.

<표 II-15> 지역별 여성 교육인구의 증감을

(단위: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전체
서울	-5.6	-1.7	-4.3	0.7	4.3	8.0	-0.6
부산	-4.2	-0.6	-3.4	2.5	9.3	10.0	0.1
대구	-2.7	0.4	-1.8	4.6	7.5	11.1	1.7
인천	2.2	4.0	0.6	7.4	10.5	13.8	4.9
광주	-2.6	0.7	-2.3	4.8	9.0	13.1	2.1
대전	-0.9	1.0	-0.3	7.5	10.5	16.1	3.8
경기	0.7	1.4	-0.3	7.3	14.6	20.2	4.4
강원	-4.9	-3.1	-3.2	3.7	8.7	10.6	-1.3
충북	-4.2	-1.7	-2.0	5.7	9.4	13.3	0.1
충남	-5.4	-3.3	-5.2	3.1	10.2	12.1	-2.4
전북	-5.2	-3.1	-3.9	3.4	7.6	12.3	-1.6
전남	-5.7	-4.0	-6.4	2.2	10.4	10.9	-3.4
경북	-5.4	-2.4	-3.4	4.0	11.9	11.6	-1.3
경남	-3.5	-0.7	-2.2	5.5	11.1	13.5	0.8
제주	-4.1	-1.5	-4.1	2.3	10.1	12.9	-0.5

주: 전체는 '6세 이상 인구전체'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1992, 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3. 지역별 여성인구이동 현황과 특징

가. 지역별 여성인구이동 구조

지역별로 (만 5세 이상 인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한) 남녀인구의 전출입현황을 보면, 1990-95년 사이에 6개 시 중에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서 순이동에서 마이너스(-)를 보인 지역은 서울과 부산이었다. 이와 같은 6개 시의 인구이동을 1985-90년 사이의 인구이동과 비교하면, 다른 지역은 1980년대 후반과 동일하나 부산시 만이 199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인구의 전출이 전입보다 더 많은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9개 도의 인구이동을 보면 경기도와 경남, 제주도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나머지 6개 도는 전출인구가 더 많았다. 이와 같은 현상을 1985- 1990년 사이의 인구이동과 비교해보면, 경상남도과 제주도가 전출초과지역에서 전입초과지역으로 변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간의 인구이동을 성별로 보면, 이동패턴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한 구조를 보였다.

<표 II-16> 지역별 여성인구의 전출입 현황(1990-1995년)

(단위: 명)

	1990-95년							1985-90년
	남성			여성			전체	전체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서울	9189	18830	-9,641	10303	19087	-8784	-18425	-1347
부산	2090	4228	-2,138	2266	4531	-2265	-4403	323
대구	2367	2014	353	2584	2337	247	600	1612
인천	4337	2385	1,952	4473	2452	2021	3973	4627
광주	1826	1253	573	1923	1352	571	1144	1332
대전	2481	967	1,514	2500	1024	1476	2990	1886
경기도	18349	7401	10,948	18883	7561	11322	22270	12870
강원도	1363	2501	-1,138	1351	2196	-845	-1983	-3028
충북	1590	1399	191	1556	1531	25	216	-1514
충남	1803	2265	-462	1634	2536	-902	-1364	-3539
전북	1087	1819	-732	1073	2054	-981	-1713	-3206
전남	1292	2944	-1,652	1412	3242	-1830	-3482	-5492
경북	2309	3179	-870	2412	3426	-1014	-1884	-4217
경남	3914	2835	1,079	4045	3144	901	1980	-284
제주	31	295	23	343	285	58	81	-23

자료: 통계청(1991, 1996),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여성인구의 지역간 순이동구조를 보면 서울에서는 여성인구의 전입보다 전출이 8,784명 많았다. 서울을 중심으로한 이를 여성인구의 이동구조를 좀 자세히 보면,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보다 전출한 여성인구가 훨씬 많은데 기인했다.(각각의 여성 순이동 인구는 9,281명, 1,089명임). 그러나 전남, 전북, 경남, 부산, 경북 등에서는 서울로 전입한 여성인구가 이들 지역으로 전출한 여성인구보다 더 많았다.

<표 II-17> 여성인구의 지역간 이동구조(1990-1995년)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전입-전출)														
서울(전출)	■	339	94	-1089	56	-335	-9281	93	-20	146	394	538	235	38	8
부산 -	-339	■	-87	-88	-64	-73	-294	-3	-41	-30	2	-64	-50	-1106	-28
대구전입)	-94	87	■	-24	5	-33	-80	41	-19	-23	7	-13	368	21	4
인천	1089	88	24	■	21	3	271	89	28	103	73	130	72	40	-10
광주	-56	64	-5	-21	■	-7	-116	1	3	-8	46	675	-1	-3	-1
대전	335	73	33	-3	7	■	101	46	121	490	92	51	53	74	3
경기도	9281	294	80	-271	116	-101	■	348	43	312	346	452	270	153	-1
강원도	-93	3	-41	-89	-1	-46	-348	■	-94	-17	15	-13	-54	-56	-11
충북	20	41	19	-28	-3	-121	-43	94	■	10	10	10	5	13	-2
충남	-146	30	23	-103	8	-490	-312	17	-10	■	19	24	24	18	-4
전북	-394	-2	-7	-73	-46	-92	-346	-15	-10	-19	■	34	-2	-4	-5
전남	-538	64	13	-130	-675	-51	-452	13	-10	-24	-34	■	-6	-3	3
경북	-235	50	-368	-72	1	-53	-270	54	-5	-24	2	6	■	-99	-1
경남	-381	106	-21	-40	3	-74	-153	56	-13	-18	4	3	99	■	-13
제주	-8	28	-4	10	1	-3	1	11	2	4	5	-3	1	13	■

자료: 통계청(1991, 1996),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부산광역시, 전북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전입된 여성인구보다는 전출된 여성인구가 더 많았다. 즉, 부산의 여성인구는 점차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보였다. 대구광역시의 여성인구는 서울시, 경기도, 충북, 충남로 전출되는 규모가 전입규모보다 크나, 경북, 부산, 경남, 전남으로 전출되는 여성인구는 전입되는 여성인구보다 적었다. 인천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으로부터 전입되는 여성인구가 전출되는 여성인구보다 많았다. 특히 서울시, 경기도, 전남, 충남, 부산 등에서 인천으로 전입되는 여성인구가 전출되는 여성인구보다 훨씬 많았다. 광주시는 서울과 경기도로는 순전출, 전남, 전북, 부산 등에서는 순전입하는 구조를 보였다. 대전시는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여성인구가 순전입되는 구조를 가졌다.

이상과 같이 6개 시의 여성의 순이동을 보면, 서울은 수도권으로, 부산은 전지역으로, 대구는 서울, 경기와 인접한 도 지역으로 순전출하는 구조를 가졌다.⁸⁾ 이에 비해서 6개 시

8) 본 보고서에서는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초과하면 순전출 그리고 반대현상이면 순전입이라고 하였음.

중에서 인천과 대전은 전지역에서 여성인구가 순전입하는 구조를 보였고, 광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순전출하나 인근지역에서 순전입되는 구조를 보였다. 따라서 자연인구증가율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이동만을 고려하면, 부산시는 여성인구의 감소현상을 인천과 대전은 여성인구가 증가현상을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다. 서울시 여성인구는 다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순전입되기는 하나, 전입되는 규모보다 많은 여성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전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대구는 수도권으로 여성인구가 순전출되나, 인근지역에서 그것보다 많은 수의 여성인구가 순전입될 것으로 보인다.

9개 도의 여성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강원도, 전북, 전남은 여성인구의 전출초과현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도이다. 이들 도의 여성인구는 대부분 서울, 경기도, 인천과 같은 수도권으로 순전출되고 있었다. 물론 수도권 이외에 전북과 전남은 인근한 시인 대전(각각 92명, 51명), 광주(각각 46명, 675명)로 많은 수의 여성인구가 순전출되었다. 충남은 수도권과 대전, 충북에 그리고 경북은 수도권과 대구, 경남에 대해서는 순전출현상을 보인 반면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순전입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수도권으로 순전출된 규모가 순전입 규모보다 훨씬 커서, 이들 지역에서는 상당수의 여성인력이 순전출되었다.

경기도는 인천과 대전시에 대해서는 순전출현상을 보였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순전입현상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에서 경기도로의 여성인구유입은 상당히 커서, 전반적으로 전입초과현상을 보였다. 제주도는 서울과 전남에 미미한 수준으로 전출초과현상을 보이기는 하나, 전 지역으로부터 여성인구의 전입초과현상을 보였다. 경남은 부산으로 부터의 여성인구의 전입초과현상으로 보이고, 수도권으로 전출초과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부산으로 부터의 순전입규모가 상당히 커서, 전체적으로 전입초과현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9개 도에서는 경기도와 경남은 각각 인근한 서울시와 부산시로부터 상당수의 여성인구의 순유입이 있어서, 계속해서 여성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비해 강원도, 전남, 전북, 경북, 충남은 전출초과현상이 커서, 여성인구의 순전출현상이 계속 될 것으로 보였다.

나. 지역별 여성 이동인구의 인적특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6개 시 중에서 서울과 부산의 여성인구이동은 전출초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인천, 대전, 대구, 광주시는 전입초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들 시의 전출입 여성의 혼인상태별 분포를 보면 광주와 대전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혼전출여성이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전입여성인구에서는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가 미혼여성비율이 25%를 넘었다.

혼인상태별 순여성인구이동을 보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시는 미혼여성의 전입초

과현상을 보이는 반면에 부산은 전출초과현상을 보였다. 기혼여성의 경우는 서울, 부산, 대구는 전출초과현상을 보인 반면에, 인천, 광주, 대전은 전입초과현상을 보였다. 즉, 인천, 광주, 대전시는 미기혼여성 모두 전입초과를 보였으나, 부산은 모두 전출초과를 보였고 그리고 서울과 대구는 미혼은 전입초과, 기혼은 전출초과현상을 보였다. 9개 도의 여성인구 순이동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미기혼 모두 전입초과현상을 보인 반면에, 경남과 제주도는 미혼여성은 전출초과, 기혼여성은 전입초과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강원도를 포함한 나머지 7개 도는 미기혼여성 모두 전출초과하는 현상을 보였다.

순이동인구의 연령계층별 분포를 보면 서울은 20-24세 연령층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층의 여성, 그리고 부산은 모든 연령의 여성들이 전출초과현상을 보였다. 이에 비해서 인천시, 대전시는 모든 연령층의 여성 그리고 광주는 25-29세 연령층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여성들이 전입초과현상을 나타내었다. 대구시는 25-34세, 45-59세 연령층의 여성은 전출초과를 그리고 나머지 연령층의 여성은 전입초과현상을 보였다.(<부표 II-15> 참조).

<표 II-18> 지역별 혼인상태별 여성인구의 전출입 현황

단위 : 명, %

	미혼여성인구			전입여성인구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서울	3,044 (33.0)	2,822 (17.6)	222	6,183 (67.0)	13,221 (82.4)	- 7,038
부산	516 (26.9)	664 (17.4)	-148	1,399 (73.1)	3,147 (82.6)	-1,748
대구	628 (28.0)	367 (18.1)	261	1,612 (72.0)	1,660 (81.9)	- 48
인천	673 (17.9)	318 (16.2)	355	3,084 (82.1)	1,645 (83.8)	1,439
광주	473 (30.3)	300 (26.0)	173	1,088 (69.7)	856 (74.0)	232
대전	564 (26.8)	195 (22.0)	369	1,544 (73.2)	692 (78.0)	852
경기	3,432 (21.3)	1,089 (17.9)	2343	12,716 (78.7)	4,987 (82.1)	7,729
강원	210 (18.3)	593 (31.8)	-383	938 (81.7)	1,273 (68.2)	-335
충북	247 (19.3)	401 (29.9)	-154	1,034 (80.7)	1,709 (70.1)	-675
충남	236 (17.0)	875 (39.1)	-639	1,153 (83.0)	1,362 (60.9)	-209
전북	164 (18.5)	649 (35.8)	-485	723 (81.5)	1,163 (64.2)	-440
전남	158 (13.4)	1,145 (40.8)	-987	1,024 (86.6)	1,663 (59.2)	-639
경북	350 (17.0)	970 (32.7)	-620	1,710 (83.0)	1,998 (67.3)	-288
경남	523 (15.3)	707 (27.2)	-184	2,904 (84.7)	1,889 (72.8)	1,015
제주	65 (22.3)	67 (27.8)	- 2	227 (77.7)	174 (72.2)	53

주: 1) ()의 숫자는 전체 전출(입) 인구의 혼인상태별 분포를 의미함.

2) 혼인상태별 순이동 여성인구의 합이, 전체 순이동 여성인구와 다를 수 있음.(혼인상태에 대한 무응답에 기인함).

자료: 통계청(199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9개도에서 강원, 전북, 전남, (30-34세 연령층 여성을 제외한) 충남, (30-34세, 50-54세를 제외한) 경북의 모든 연령층 여성들은 전출초과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모든 연령층의 여성들이 전입초과현상을 보였다. 경남과 제주도는 15-24세의 여성들은 전출초과현상을 보인 반면에 나머지 연령층의 여성들은 전입초과하였다.(<부표 II-15> 참조).

6개 시에 있어서 이동여성인구의 학력별 특성을 보면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는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이 전출초과현상을 보였고, 인천시와 대전시는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이 전입초과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대구시와 광주시는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들은 전출초과현상을 보인 반면에, 초대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은 전입초과현상을 보였다.

9개 도에서 경기도는 모든 학력의 여성들이 전입초과를 그리고 강원도, 전북, 전남은 모든 학력의 여성들이 전출초과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충남과 경북은 대졸이상 여성은 전출초과를 보이고, 나머지 여성들은 전입초과현상을 나타내었다. 경남과 제주도는 전문대졸 여성들은 전출초과이었는데 비해서 나머지 여성들은 전입초과현상을 나타내었고, 충북에서는 고졸은 전입초과를 보인 반면에 나머지 여성들은 전입초과현상을 보였다.

전입초과현상				전출초과현상			
연령	여성	남성	합계	연령	여성	남성	합계
15-19	(1,133) 1,133	(1,133) 1,133	(2,266) 2,266	20-24	(1,133) 1,133	(1,133) 1,133	(2,266) 2,266
20-24	(1,133) 1,133	(1,133) 1,133	(2,266) 2,266	25-29	(1,133) 1,133	(1,133) 1,133	(2,266) 2,266
30-34	(1,133) 1,133	(1,133) 1,133	(2,266) 2,266	35-39	(1,133) 1,133	(1,133) 1,133	(2,266) 2,266
40-44	(1,133) 1,133	(1,133) 1,133	(2,266) 2,266	45-49	(1,133) 1,133	(1,133) 1,133	(2,266) 2,266
50-54	(1,133) 1,133	(1,133) 1,133	(2,266) 2,266	55-59	(1,133) 1,133	(1,133) 1,133	(2,266) 2,266
60-64	(1,133) 1,133	(1,133) 1,133	(2,266) 2,266	65-69	(1,133) 1,133	(1,133) 1,133	(2,266) 2,266
70-74	(1,133) 1,133	(1,133) 1,133	(2,266) 2,266	75-79	(1,133) 1,133	(1,133) 1,133	(2,266) 2,266
80-84	(1,133) 1,133	(1,133) 1,133	(2,266) 2,266	85-89	(1,133) 1,133	(1,133) 1,133	(2,266) 2,266
90-94	(1,133) 1,133	(1,133) 1,133	(2,266) 2,266	95-99	(1,133) 1,133	(1,133) 1,133	(2,266) 2,266
100+	(1,133) 1,133	(1,133) 1,133	(2,266) 2,266				

<표 II-19> 지역별 학력별 남녀인구의 순이동 현황

단위 : 명

	순이동 남성인구						순이동 여성인구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이상	대졸 이상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이상	대졸 이상
서울	-1450	-504	-959	-2755	-712	-2794	-1604	-877	-1204	-3116	-280	-1240
부산	-295	-138	-202	-727	-226	-512	-322	-208	-236	-1006	-146	-299
대구	108	141	69	270	-27	-174	78	91	105	235	37	-260
인천	254	185	281	889	170	216	324	306	308	864	130	124
광주	143	111	108	257	91	-121	144	152	153	212	53	-124
대전	249	146	208	403	227	326	317	178	214	510	163	134
경기	1320	741	1136	3585	942	3429	1709	1248	130	4240	850	2180
강원	-81	-142	-135	-538	-99	-126	-109	-177	-132	-318	-41	-52
충북	65	6	14	-27	107	37	56	6	37	-87	19	8
충남	45	-85	-139	-315	-19	79	-86	-181	-104	-413	-99	8
전북	-44	-92	-134	-306	-3	-146	-94	-130	-95	-381	-97	-173
전남	-196	-216	-246	-679	-276	-30	-257	-283	-281	-721	-231	-46
경북	-65	-168	-116	-378	-139	24	-116	-128	-107	-479	-213	55
경남	129	80	152	393	46	313	141	70	108	543	-66	140
제주	11	-11	9	22	-31	42	27	1	4	50	-13	9

주: 학력별 순이동인구는, 학력별 (전입인구-전출인구)를 나타냄. 따라서 교육수준별 순이동 여성인구의 합은, 학력에 대한 무응답자 때문에 전체 순이동 여성인구와 다를 수 있음.

자료: 통계청(199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제3장 부부의 가구특성과 경제활동

이장에서는 가구주부부를 중심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후, 이들 부부의 유업 상태를 기준으로 맞벌이부부(남편, 부인 모두 유업자), 남편외벌이부부(남편 유업자, 부인 무업자), 부인외벌이부부(남편 무업자, 부인 유업자), 그리고 비취업형 부부(남편, 부인 모두 무업자)로 나누어 각 유형별 부부의 특성과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분석에서는 가구주부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2세대이상의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가구주가 아닌 부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1절 부부의 일반적 현황

가구주 부부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한국여성의 결혼 및 출산행태의 변화를 개괄하기로 한다.

1. 여성의 생애사건과 가족의 변화

1) 결혼 및 출산행태의 변화

가족구성의 첫출발이 되는 결혼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 <표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초혼연령이 여자의 경우 1980년의 24.1세에서 1990년에는 25.5세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중 남자도 27.3세에서 28.6세로 높아졌다.

<표Ⅲ-1> 지역 및 성별 평균초혼연령

단위 : %

연도	전 국		시부		군부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1980	24.1	27.3	24.3	27.4	23.5	27.3
1985	24.8	27.8	25.0	27.8	24.0	27.9
1990	25.5	28.6	25.5	28.4	25.2	29.1
1995	26.1	29.3	26.2	29.3	25.2	29.6

출처:통계청(1996),「한국의 사회지표」.

이같은 혼인연령의 변화는 <표Ⅲ-2>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1975년에는 총 혼인의 34.0%가 「신랑: 25-29세, 신부:20-24세」연령층간의 혼인이었고 그 다음이 신랑신부 모두 20-24세 연령층(14.7%)인 경우였다. 이로 부터 10년후인 1985년에는 1975년과 마찬가지로 신랑은 25-29세이고 신부는 20-24세 연령층인 혼인이 35.1%로 다소 늘어났다. 1975-1985년간의 큰 변화는 신랑 신부 모두 25-29세 연령층인 부부가 19.2%로 10년전에

<표 Ⅲ-2> 부부상호간 연령별 혼인

단위:%

	남편의 연령	총혼인수	부 인 의 연 령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이상
1975		100.0(283 226)	19.2	55.9	18.3	3.0	1.3	0.7	0.8
	15-19	2.8	1.9	0.8	0.1	0.0	0.0	0.0	0.0
	20-24	24.2	8.1	14.7	1.3	0.1	0.0	0.0	0.0
	25-29	53.7	8.7	34.0	10.5	0.9	0.1	0.0	0.0
	30-34	12.9	1.2	5.6	4.9	1.0	0.2	0.0	0.0
	35-39	3.0	0.1	0.6	1.0	0.8	0.4	0.1	0.0
	40-44	1.3	0.0	0.1	0.2	0.4	0.3	0.1	0.0
	45세이상	2.2	0.0	0.1	0.1	0.3	0.4	0.5	0.8
1985		100.0(376 847)	8.2	55.3	29.0	3.8	1.4	0.8	11.0
	15-19	1.3	0.8	0.4	0.0	0.0	0.0	0.0	0.0
	20-24	21.6	3.9	15.1	2.4	0.1	0.0	0.0	0.0
	25-29	58.2	3.1	35.1	19.2	0.8	0.1	0.0	0.0
	30-34	12.2	0.4	4.1	6.2	1.4	0.2	0.0	0.0
	35-39	2.7	0.1	0.4	0.9	0.9	0.4	0.1	0.0
	40-44	1.3	0.0	0.1	0.2	0.4	0.4	0.2	0.1
	45세이상	2.2	0.0	0.0	0.1	0.2	0.3	0.5	1.0
1995		100.0(320 395)	1.7	40.7	46.1	7.2	2.9	1.3	1.3
	15-19	0.2	0.4	0.1	0.0	0.0	0.0	-	-
	20-24	10.4	0.7	7.6	1.6	0.6	0.0	-	0.0
	25-29	57.8	0.7	27.4	28.8	0.8	0.1	0.0	0.0
	30-34	22.3	0.1	5.1	13.3	3.2	0.4	0.1	0.0
	35-39	5.0	0.0	0.5	1.3	1.8	1.1	0.2	0.0
	40-44	9.0	0.0	0.1	0.1	0.5	0.7	0.4	0.1
	45세이상	2.8	0.0	0.0	0.1	0.3	0.5	0.7	1.2

출처: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1985,1993,1996.

비해 8.7%포인트 늘어난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85-1995년 사이에 더욱 빨라져 1995년에는 신랑 신부 모두 25-29세 연령층인 부부가 28.8%로 신부가 20-24세인 연령층인 혼인(27.4%)을 상회한다. 또한 「신랑: 30-34세, 신부: 25-29세」간의 혼인이 13.3%로 1985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혼인 연령 뿐 아니라 혼인 형태 또한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아직은 남녀모두 초혼인 경우가 90%내외로써 지배적인 혼인 형태를 이룬다. 그러나 재혼유형에서 그간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1975년만 해도 미혼 여성과 재혼하는 남성의 혼인이 전체의 3.6%이고 남녀모두 재혼인 경우가 3.0%, 미혼 남성과 재혼하는 여성의 혼인은 0.8%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점차 재혼이 증가해 남녀모두 재혼인 혼인이 1995년에는 4.9%로 증가했고, 미혼 남성과 재혼하는 여성의 혼인이 2.6%로 늘어났다. 이에 비해 1975년만 해도 전체 재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던 미혼여성과 재혼하는 남성의 혼인은 감소추세를 보여 1995년 현재 2.8%로 나타났다.

<표Ⅲ-3> 혼인형태별 혼인구성비 1975-1995

단위:%

	전 체	초혼 남-초혼 녀	재혼 남-초혼 여	초혼 남- 재혼 여	재혼 남-재혼 여
1975	100.0	92.6	3.6	0.8	3.0
1980	100.0	92.2	3.5	1.2	3.1
1985	100.0	90.6	3.7	1.7	4.0
1990	100.0	89.5	3.5	2.5	4.5
1995	100.0	89.7	2.8	2.6	4.9

출처:통계청(1996),「인구동태통계연보」.

또한 재혼의 경우를 사별과 이혼으로 나누어 보면<표Ⅲ-4 참조>, 1995년 현재 남녀모두 이혼후 재혼인 혼인이 3.4%으로 재혼유형중 가장 비율이 높다. 또한 이혼 남성과 미혼 여성과의 혼인이 2.5%로써 이혼 여성과 미혼 남성(2.3%)과의 혼인비율과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표Ⅲ-4> 부부상호간 혼인종류(1995)

단위: %

남편의 혼인 종류	부인의 혼인종류				
	계	초혼	재 혼		미상
			사별후	이혼후	
계	100.0	92.1	1.1	6.3	0.5
초혼	91.8	89.2	0.3	2.3	0.1
사별후 재혼	1.4	0.4	0.4	0.6	0.0
이혼후 재혼	6.4	2.5	0.4	3.4	0.0
미 상	0.5	0.0	0.0	0.0	0.4

출처: 통계청(1996), 「인구동태통계연보」.

결혼이 늦어지면서 자연 출산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다음의 <표Ⅲ-5>에서 보듯이 결혼코호트가 최근으로 올수록 첫출산시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1935년-1944년 코호트의 경우 첫출산연령이 20.2세였으나 1985-1989년 코호트는 25.5세로 늦어졌다. 아울러 자녀수가 줄면서,⁹⁾ 출산간격은 크게 감소해 총출산간격이 1935-1944년 코호트의 19.6년에서 1985-1989년 코호트의 경우는 무려 2.1년으로 단축되고, 이에 따라 막내출산연령은 35.7세에서 26.8세로 크게 낮아졌다.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첫 자녀출산연령이 늦어지고 자녀수는 감소하는 대신 자녀터울은 크게 줄어 출산이 특정 연령층으로 집중되고 있다.

<표Ⅲ-5> 결혼코호트별 부인의 출산시 연령 및 출산간격

단위 : %

결혼코호트	결혼 연령	출산간 격	첫출산시 연령	출산간 격	둘째출산시 연령	총출산 간격	막내출산 연령
1935-1944	16.1	(4.1)	20.2	(3.2)	23.2	(19.6)	35.7
1945-1954	17.9	(3.2)	21.1	(3.0)	23.7	(15.8)	33.7
1955-1964	20.4	(1.9)	22.3	(2.8)	25.0	(11.0)	31.4
1965-1974	21.8	(1.5)	23.3	(2.5)	25.7	(7.3)	29.4
1975-1979	23.0	(1.4)	24.3	(2.4)	26.4	(4.5)	27.5
1980-1984	23.5	(1.3)	24.8	(2.3)	27.1	(3.7)	27.3
1985-1989	24.4	(1.2)	25.5	(2.2)	27.3	(2.1)	26.8
1990-1991	24.9	(0.8)	25.6	-	-	(0.8)	25.5

주: 1935-1964년간은 1966년 가족생활주기자료에서, 그리고 1965-1991년간은 1991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자료에서 추정한 것임.

출처: 공세권의(1993),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 p.27.

9)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의 변화는 <부표Ⅲ-5>을 참조.

이러한 현상은 출생아동의 모의 연령층의 변화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III-6>에 의하면 1975년에는 그해 출생건수 전체의 37.4%가 모의 연령이 25-29세로 동연령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24세(30.5%), 30-34세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의 변화는 25-29세 연령층으로 출산연령층이 집중되어 1995년에는 출생아동 전체의 54.6%가 모의 연령이 25-29세로 나타났다. 또한 20-24세 연령층의 비는 1995년에는 19.2%로 감소하는 대신 30-34세 연령층이 20.8%로 증가했다. 따라서 1995년에는 출생아동 전체의 75.4%가 모의 연령이 25-34세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표III-6 > 출산시 모의 연령별 인구구성비 1975-1995

단위:%

	전 체	- 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이상
1975	100.0	3.4	30.5	37.4	18.4	7.2	2.2	0.9
1980	100.0	3.2	32.9	42.0	14.8	3.9	1.9	1.2
1985	100.0	3.3	37.4	48.1	9.1	1.6	0.4	0.2
1990	100.0	1.4	26.6	54.2	15.4	2.1	0.3	0.1
1995	100.0	0.9	19.2	54.6	20.8	4.1	0.4	0.0

출처:통계청(1996),「인구동태통계연보」

출산순위별로 모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표III-7>과 같다. 이에 의하면 1975년의 경우 첫째자녀는 모의 연령이 20-24세 층인 경우가 55.9%로 가장 많고 둘째자녀는 51.7%가 25-29세였다. 1985년에 들어서면 첫째 자녀는 모의 연령이 20-24세가 49.0%로 가장 많지만 25-29세 연령층으로 40.7%가 몰려 첫 자녀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자녀는 25-29세 연령층이 58.5%로 동연령층에 보다 집중된다. 그러나 1995년에 와서는 첫째 자녀, 둘째자녀 모두 25-29세 연령층에 집중되어 첫째자녀는 56.3%가, 둘째자녀는 57.6%가 모의 연령이 25-29세로 나타났다. 둘째자녀의 경우 30-34세 연령층도 27.7%로 크게 늘었지만, 출산연령이 25-29세에 집중되는 특성이 강하다. 이러한 출산연령의 집중은 각국의 모의 연령별 출생구성비를 비교한 <표III-8>에서도 확인된다. 선진각국의 경우 모의 연령이 25세미만도 우리나라에 비해 많지만 30세이상의 늦은 출산도 더 많다.

<표Ⅲ-7> 출생시 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생아 분포

단위:%,건수

모의 연령	1975				1985				1995			
	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이상	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이상	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이상
	100.0 (884 993)	100.0 (288 181)	100.0 (233 999)	100.0 (324 984)	100.0 (657 142)	100.0 (338 380)	100.0 (247 145)	100.0 (71 650)	100.0 (704 590)	100.0 (339 217)	100.0 (305 273)	100.0 (59 794)
15-19		8.1	2.0	0.2		5.2	1.5	0.4		1.7	0.2	0.0
20-24		55.9	32.8	6.6		49.0	28.8	11.8		29.9	10.5	3.0
25-29		29.5	51.7	34.1		40.7	58.5	47.2		56.3	57.6	28.8
30-34		4.5	10.7	36.3		4.1	10.0	29.2		9.8	27.7	48.0
35-39		1.1	2.0	14.5		0.7	1.0	8.3		2.0	3.8	17.5
40-44		0.3	0.4	5.1		0.1	0.2	2.3		0.3	0.3	2.0
45+		0.5	0.3	1.5		0.2	0.1	0.8		0.1	0.0	0.6

출처:통계청(1996),「인구동태통계연보」.

<표Ⅲ-8 >각국의 모의 연령별 출생구성비 비교

단위:%

	연도	전 체	- 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이상
한국	1994	100.0	1.0	20.4	53.9	20.5	3.7	0.4	0.1
일본	1993	100.0	1.5	16.7	43.0	30.1	7.8	1.0	0.0
대만	1992	100.0	4.8	25.7	43.9	20.9	4.3	0.4	0.0
싱가폴	1993	100.0	1.7	12.1	37.3	34.2	12.9	1.7	0.0
영국	1992	100.0	7.0	23.6	35.5	24.2	8.2	1.4	0.1
프랑스	1991	100.0	2.4	20.0	39.1	26.0	10.3	2.1	0.1
미국	1991	100.0	12.9	26.5	29.7	21.5	8.1	1.3	0.0
스웨덴	1991	100.0	2.6	21.1	38.4	25.8	10.3	1.8	0.1

출처:통계청(1996),「인구동태통계연보」.

2) 여성의 연령별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

여성의 연령을 크게 20-24세, 25-34세, 35-54세, 그리고 55세 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 연령집단별로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¹⁰⁾ 20-24세는 미혼여성이 많고,

10)분석의 편의를 위해 가구주를 중심으로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가구주의 어머니, 가구주 배우자의 어머니 만을 분석에 포함했다. 한가구당 최대 8명의 여성이 분석대상

25-34세는 대개 결혼과 출산 등으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35-54세는 전형적인 중년의 여성층이고 55세이상 집단은 자녀의 결혼등으로 세대가 늘고 노년의 변화를 겪는 연령층이다. 분석에 있어 유의를 요하나 여성의 연령별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를 통해 여성의 생애단계별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20-24세 연령층 여성집단의 경우 1세대가 8.4%, 2세대가 73.1%, 3세대가 11.4%, 그리고 단독가구가 6.6%의 비율을 보인다. 이들 연령층에서는 미혼여성이 많기 때문에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사는 2세대가구가 많고 취업이나 취학으로 단독가구를 이루고 있는 여성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다.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25-34세 연령층으로 가면 1세대 9.0%, 2세대 75.1%, 3세대 11.8%, 그리고 단독가구 3.7%의 분포를 보여 20-24세 연령층과의 차이는 크지 않고 다만 단독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2세대가구의 경우 20-24세 연령층에서는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사는 유형이 많다면 25-34세 연령층의 2세대가구는 본인이 결혼해서 어린자녀를 둔 가구가 지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5-54세 연령층은 25-34세 연령층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2세대가구중 「부모+미혼자녀」세대가 25-34세 연령층에서는 3.8%였으나 35-54세 연령층에서 8.7%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35-54세 연령층에서 남편과의 사별 등으로 혼자가 된 여성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55세 이상 연령층 여성들의 경우 그 이전과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난다. 무엇보다 1세대가구가 19.8%로 크게 늘고 2세대가구가 31.3%로 감소하는 한편 3세대가구가 32.4%로 증가했다. 아울러 단독가구도 크게 늘어 55세이상 연령층 여성의 15.4%가 단독가구에 살고 있다. 1세대가구의 증가는 자녀들의 분가로 부부만이 남은 부부가족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녀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 3세대가구가 증가하는데, 특히 이들 3세대가구중에서도 남편과 사별해서 편모로서 자녀부부와 함께 사는 「부부+자녀+편모」세대가 18.6%나 된다. 55세이상 여성의 경우 남편과 사별해서 단독가구를 이루거나 편모로서 자녀부부와 함께 사는 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되었다.

<표Ⅲ-9> 20세 이상 여성인구의 연령별 가족구성형태의 변화

단위:%,가구수

	전 국				동부(洞部)				읍면부(邑面部)			
	20-24	25-34	35-54	55+	20-24	25-34	35-54	55+	20-24	25-34	35-54	55+
1세대가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부	8.4	9.0	6.8	19.8	11.1	9.7	4.8	14.3	2.8	5.5	14.6	28.1
기타	6.0	7.6	6.5	19.4	7.7	8.1	4.5	13.9	2.4	5.2	14.4	27.7
2세대가구	2.4	1.4	0.3	0.4	3.4	1.6	0.3	0.4	0.4	0.3	0.2	0.4
부부+미혼자녀	73.1	75.1	76.8	31.3	69.9	75.4	80.4	34.3	79.6	73.2	65.9	26.4
편부+미혼자녀	58.4	65.1	63.7	12.7	53.9	65.4	66.8	15.3	67.9	63.7	51.7	8.9
편모+미혼자녀	1.9	0.4	0.1	0.0	1.9	0.4	0.1	0.0	1.8	0.6	0.1	0.0
부부+양친	9.1	3.8	8.7	8.1	10.2	3.7	9.2	10.0	6.6	4.3	6.4	5.3
부부+편부모	0.3	0.2	0.2	0.6	0.3	0.1	0.5	0.2	0.3	0.3	0.4	0.7
부부+자녀+형제자매	0.3	0.4	0.8	3.7	0.3	0.3	0.4	2.5	0.2	0.5	2.2	5.4
부부+미혼손자녀	0.5	2.2	0.6	0.0	0.5	2.5	0.7	0.0	0.6	1.0	2.6	0.0
기타	-	-	0.1	0.9	-	-	0.0	0.8	-	-	0.2	1.1
3세대가구	2.6	3.0	2.6	5.3	2.8	3.0	2.7	5.5	2.2	2.8	2.3	5.0
부부+미혼자녀+양친	11.4	11.8	11.3	32.4	9.7	10.3	11.4	38.6	15.4	18.7	17.3	23.2
부부+자녀+편부모	1.0	2.2	1.6	4.7	0.7	1.8	1.3	5.1	1.8	4.2	2.6	4.1
기타	6.7	5.7	1.6	18.6	5.3	4.9	7.4	22.5	10.0	9.2	10.8	12.8
4세대이상가구	3.7	3.9	8.1	9.1	3.7	3.6	2.7	11.0	3.6	5.3	3.9	6.3
단독가구.비혈연가구	0.3	0.4	0.2	0.9	0.2	0.3	0.1	0.8	0.5	0.8	0.4	1.0
	6.6	3.7	3.7	15.4	8.9	4.1	3.6	11.5	1.6	1.7	4.0	21.2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이러한 변화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면,¹¹⁾ 동부와 읍면부는 대체로 경향은 유사하나 읍면부는 55세이상층에서 부부가족을 이루는 여성과 단독가구를 이루는 여성들이 동부에 비해 2배가량 많다. 특히 읍면부에서 단독가구를 이루고 홀로 사는 노인여성이 21.2%나 된다. 따라서 55세 이전의 연령층에서는 읍면부 여성들이 3세대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55세이상의 연령층에서는 3세대가구에 사는 여성의 비율이 동부(38.6%)에 비해 15.4% 포인트나 낮은 23.2%로 나타나고 있다. 읍면부의 노인여성단독가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1)본장에서 도시는 동부(洞部)지역을, 농촌은 읍면부(邑面部)지역을 의미한다.

2. 가구주 부부의 일반적 현황

이제 가구주 부부를 중심으로 이들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에 앞서 가구의 혼인상태별 가구분포가 <표Ⅲ-10>에 제시되었다. 이에 의하면 전체가구의 77.6%가 유배우가구주이며 사별가구 10.3%, 미혼가구 9.4%, 그리고 이혼가구가 2.2%의 분포를 보인다. 동부는 미혼가구(10.8%)와 이혼가구(2.4%)가 전체에 비해 많고 대신 사별가구(8.7%)가 적다. 읍면부는 사별가구가 18.3%로 크게 많고 유배우가구는 75.9%로 나타났다.

<표Ⅲ-10>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가구분포

단위:가구,%

구성비	전체		동부(洞部)		읍면부(邑面部)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전체	12,958,181	100.0	10,031,978	100.0	2,926,203	100.0
유배우가구	10,060,042	77.6	7,838,478	78.1	2,221,564	75.9
이혼가구	277,798	2.1	238,790	2.4	39,008	1.3
사별가구	1,407,557	10.3	871,791	8.7	535,766	18.3
미혼가구	1,212,746	9.4	1,082,883	10.8	129,863	4.4
미상	38	0.0	36	0.0	2	0.0

자료:통계청(1997),「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 부부의 연령 및 학력

가구주 부부의 연령분포가 <표Ⅲ-11>과 같다. 이에 의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 30대가 가장 많아 각각 35.1%, 37.0%의 비율을 보인다. 부부 모두 30대 연령층인 경우가 전체의 25.1%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부부 모두 40대 연령층이 14.4%이며 남편은 40대이고 부인은 30대인 부부가 11.4%의 순이다. 대체로 같은 연령대이거나 부인이 남편보다 하위 연령대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는 30-40대의 장년층 남편이 전체의 65.7%로 주축을 이루고 이에 따라 같은 연령층의 부인 또한 전체의 63.8%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읍면부는 50세 이상의 남편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49.8%이며, 부인 또한 50세 이상이 40.4%에 이른다. 부인의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읍면부(17.6%)가 동부(5.3%)의 3배를 넘고 있다.

부부의 학력분포를 보면<표Ⅲ-11참조>, 남편과 부인 모두 고졸인 부부가 전체의 25.1%로 가장 많다. 부부 모두 국졸이하가 17.4%로 그 다음 순이며 부부 모두 대졸이상이 9.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 또한 부부 모두 고졸인 경우가 27.8%로 가장 많지만, 부부모두 대졸이상(11.5%)인 부부와 「남편-대졸, 부인-고졸」(10.7%)인 부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비해 읍면부의 경우는 국졸이하인 부부가 무려 41.7%나 되며 부부가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60%에 달해 저학력자에 편중된 분포를 보인다.

<표Ⅲ-11>지역별 가구주부부의 부부 상호간 연령분포

단위:%, 명

전 체		부 인 의 연 령						남편 연령계
		20세미만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남 편 의 연 령	20세미만	0.0	0.0	-	0.0	-	-	0.0
	20-29	0.1	6.9	0.2	0.0	0.0	-	7.2
	30-39	0.0	9.6	25.1	0.3	0.0	0.0	35.1
	40-49	0.0	0.1	11.4	14.4	0.2	0.0	26.0
	50-59	-	0.0	0.2	8.2	9.5	0.2	18.1
	60세이상	-	0.0	0.0	0.2	5.4	8.0	13.6
	부인 연령	0.1	16.6	37.0	23.1	15.1	8.1	100.0
도시(洞部)								
남 편 의 연 령	20세미만	0.0	0.0	-	-	-	-	0.0
	20-29	0.1	7.5	0.3	0.0	0.0	-	7.9
	30-39	0.0	10.4	27.3	0.4	0.0	0.0	38.1
	40-49	0.0	0.1	12.1	15.3	0.1	0.0	27.6
	50-59	-	0.0	0.2	8.0	8.3	0.1	16.7
	60세이상	-	0.0	0.0	0.2	4.3	5.2	9.7
	부인 연령	0.1	18.0	39.9	23.9	12.8	5.3	100.0
농촌(邑面部)								
남 편 의 연 령	20세미만	0.0	0.0	-	0.0	-	-	0.0
	20-29	0.1	4.6	0.1	-	-	-	4.8
	30-39	0.0	7.0	17.6	0.3	0.0	0.0	24.8
	40-49	-	0.1	8.9	11.3	0.2	0.0	20.5
	50-59	-	0.0	0.3	8.7	13.5	0.3	22.8
	60세이상	-	0.0	0.0	0.3	9.1	17.6	27.0
	부인 연령	0.1	11.7	26.9	20.5	22.8	17.6	100.0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Ⅲ-12>지역별 가구주부부의 부부 상호간 학력분포

단위: %

전 체		부 인 의 학 력					남편 계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초급대졸	대졸이상	
남 편 의 학 력	국졸이하	17.4	1.1	0.4	0.0	0.0	18.9
	중졸	5.6	8.1	1.5	0.0	0.0	15.3
	고졸	3.1	9.2	25.1	0.6	0.4	38.4
	초급대졸	0.2	0.4	3.7	0.9	0.2	5.5
	대졸이상	0.3	0.8	9.1	2.2	9.5	21.9
부인 계		26.6	19.6	39.8	3.8	10.2	100.0
동 부							
남 편 의 학 력	국졸이하	10.3	1.0	0.4	0.0	0.0	11.7
	중졸	4.7	8.2	1.5	0.0	0.0	14.5
	고졸	2.8	10.0	27.8	0.7	0.4	41.7
	초급대졸	0.2	0.5	4.2	1.0	0.3	6.2
	대졸이상	0.3	0.8	10.7	2.6	11.5	26.0
부인 계		18.4	20.4	44.7	4.3	12.3	100.0
읍 면 부							
남 편 의 학 력	국졸이하	41.7	1.8	0.5	0.0	0.0	44.1
	중졸	8.6	7.8	1.5	0.0	0.0	18.0
	고졸	4.2	6.8	15.6	0.4	0.2	27.1
	초급대졸	0.2	0.3	2.0	0.5	0.1	3.1
	대졸이상	0.3	0.5	3.3	0.9	2.6	7.6
부인 계		55.0	17.1	23.1	1.8	3.0	100.0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2) 18세이하 동거자녀 현황

동거하는 자녀중 18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동부 일반가구 전체의 56.9%이며, 또한 6세이하의 취학전 자녀를 둔 가구는 26.1%로 나타났다. 읍면부는 고령층 부부가 많아 18세이하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40.7%이고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동부 보다 9.6% 포인트나 낮아 16.5%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구성별 분포를 보면, 동부는 6세이하 자녀만 있는 가구가 18.4%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중고생에 해당하는 13-18세 연령층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써 동부 가구 전체의 15.6%가 이에 해당한다. 초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7세-12세 자녀만 둔 가구가 8.8%이며 학령전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가 7.0%, 초등학생자녀와 중고생자녀를 둔 가구가 6.4%의 순이다. 이에 비해 읍면부 가구는 중고생자녀를 둔 가구가 17.6%로 가장 많고 초등학생과 중고생자녀를 둔 가구(8.0%), 그리고 초등학생만 둔 가구(7.4%), 6세이하 자녀만 있는 가구 (7.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3>지역별 가구주 부부의 자녀유형 분포

단위:가구, %

	도 시(洞部)		농 촌(邑面部)	
계	202,697	100.0	60,520	100.0
18세이하 자녀있음	115,432	56.9	24,654	40.7
6세이하 자녀있음	52,850	26.1	9,994	16.5
6세이하+(7세-12세)+(13세-18세)	572	0.3	145	0.2
6세이하+(7세-12세)	14,133	7.0	2,880	4.8
6세이하+(13세-18세)	847	0.4	148	0.2
6세이하 자녀만	37,298	18.4	6,821	11.3
(7세-12세)	17,885	8.8	3,613	6.0
(13세-18세)	31,630	15.6	7,706	12.7
(7세-12세)+(13세-18세)	13,067	6.4	3,341	5.5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3) 동거부모

일반가구중 부인(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을 중심으로 시부모(양친, 또는 편부 편모)와 함께 사는 가구는 동부가 5.8%로 나타났으며 친정부모(양친,또는 편부 편모)와 함께 사는 가구는 이보다 낮은 1.2%의 비율을 보인다. 읍면부는 시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가 동부에 비해 3.4%포인트가 높은 9.2%이며, 친정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는 1.1%로 큰 차이가 없다.

<표Ⅲ -14>지역별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 분포

단위:가구,%

	도시(洞部)		농촌(邑面部)	
전체가구수	202,697	100.0	60,520	100.0
시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	11,790	5.8	5,584	9.2
친정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	2,397	1.2	649	1.1

주: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가 시부모이거나 친정부모인 경우는 제외되었음.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여기서 고부관계를 나타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몇가지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때의 고부관계는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이다.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와 함께 사는 고부관계는 뒷부분에서 분석된다.

먼저 연령분포를 보면 시어머니의 90.7%가 60세이상이며 며느리는 31.6%가 20대, 34.8%가 30대로 나타났다. 시어머니가 60세이상이며 며느리는 20-30대인 경우가 전체의 66.1%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60세이상의 시어머니가 동부(89.8%) 보다 읍면부(92.5%)가 2.7% 포인트 많고 며느리의 경우는 동부는 20-30대가 76.8%인데 비해 읍면부는 30-40대가 63.0%이고 50대도 21.5%나 된다.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하면 시어머니의 8.8%가 유업자인 반면 며느리는 약 절반에 해당하는 49.7%가 유업자이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전체에 비해 유업자비율이 낮아 시어머니는 4.8%, 며느리는 39.1%가 유업자이다. 읍면부는 시어머니 17.3%, 며느리 72.0%가 유업자로 나타났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상호간 유업상태를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모두 무업자인 경우가 47.3%로 가장 많고, 「시어머니-무업자, 며느리-유업자」인 경우가 43.8%로써 그 다음 순을 나타낸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가 유업자인 경우는 비율이 낮아 5.8%이며 「며느리-무업자, 시어머니-유업자」인 경우는 그 보다 더 낮은 3.0%의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분포는 지역별로 다른 모습을 띤다. 동부의 경우 시어머니, 며느리 모두 무업자가 57.8%로 지배적인 유형이며 「시어머니-무업자, 며느리-유업자」인 경우가 37.4%이다. 동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유업자인 경우가 1.7%로 가장 비율이 낮게 나타나, 전체

<표Ⅲ-15> 동거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연령
(가구주, 그 배우자가 며느리인 경우)

단위:%,명

전 체		시어머니의 연령				며느리 연령계
		30-39	40-49	50-59	60세이상	
며 느 리 연 령	20세미만	0.0	0.0	0.0	4.8	4.9
	20-29	-	0.4	4.3	27.0	31.6
	30-39	-	0.0	4.5	30.3	34.8
	40-49	-	-	0.1	18.0	18.1
	50-59	-	-	-	8.6	8.6
	60세이상	-	-	-	2.0	2.0
시어머니 연령		0.0	0.4	8.9	90.7	100.0
도시						
며 느 리 연 령	20세미만	0.0	0.0	-	7.1	7.1
	20-29	-	0.4	4.9	36.8	42.1
	30-39	-	0.0	4.7	29.9	34.7
	40-49	-	-	0.1	13.4	13.5
	50-59	-	-	-	2.5	2.5
	60세이상	-	-	-	0.1	0.1
시어머니 연령		0.0	0.4	9.7	89.8	100.0
농촌						
며 느 리 연 령	20세미만	0.0	-	0.1	-	0.1
	20-29	-	0.3	2.9	6.2	9.5
	30-39	-	-	4.1	31.0	35.1
	40-49	-	-	0.1	27.8	27.9
	50-59	-	-	-	21.5	21.5
	60세이상	-	-	-	6.0	6.0
시어머니 연령		0.0	0.3	7.2	92.5	100.0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의 경향과 차이를 보인다. 이와 달리 읍면부는 「며느리-유업자, 시어머니-무업자」인 가구가 전체의 57.4%로 가장 많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무업자인 경우가 25.2%로써 동부에 비해 32.6% 포인트나 적을 뿐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유업자인 가구도 14.6%로써 동부의 10배를 넘고 있다.

<표Ⅲ-16> 지역별 동거하는 시모와 며느리의 경제활동상태분포
(가구주, 그 배우자가 며느리인 경우)

단위:%,명

전체		시어머니		며느리 계	도시		시어머니		며느리 계	농촌		시어머니		며느리 계
		유업	무업				유업	무업				유업	무업	
며 느 리	유업	5.8	43.8	49.7	며 느 리	유업	1.7	37.4	39.1	며 느 리	유업	14.6	57.4	72.0
	무업	3.0	47.3	50.3		무업	3.1	57.8	60.9		무업	2.7	25.2	28.0
시어머니		8.8	91.2	100.0	시어머니		4.8	95.2	100.0	시어머니		17.3	82.7	100.0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한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경우는 그 수가 훨씬 적어 총 5,374가구, 동부에서 3,542가구, 읍면부에서 1,832가구로 나타났다. 시부모가 가구주인 관계로 시어머니나 며느리 모두 연령이 앞의 경우 보다 젊다. 시어머니의 연령분포를 보면 50대가 43.8%, 60대가 49.4%이며, 며느리는 48.4%가 20대이고 38.4%가 30대이다. 시어머니는 50대이상이고 며느리는 20-30대인 경우가 전체의 81.0%를 차지한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하면 며느리가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를 분석한 앞의 내용과 차이가 커서 흥미를 끈다.¹²⁾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유업자비율은 더 높은 반면 젊은 며느리의 유업자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동부의 경우도 나이 든 시어머니는 일을 하고 젊은 며느리는 무업자인 유형이 14.7%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유업자인 비율도 6.0%이다. 읍면부의 차이는 보다 커서 시모와 며느리 모두 유업자인 경우가 33.1%로 가장 많고 시어머니는 유업자이고 며느리는 무업자인 경우가 앞의 분석에서는 읍면부도 2.7%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무려 24.3%나 되고 있다.

12) 두경우를 모두 합한 전체의 교부간 특성을 비교한 표는 부록을 참조할것.

<표Ⅲ-17>동거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연령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가 시어머니인 경우)

단위:%,명

		시어머니의 연령					며느리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며 느 리 연 령	20세미만	-	0.0	0.4	0.5	0.1	0.1
	20-29	-	0.1	5.4	30.6	12.2	48.4
	30-39	-	-	0.2	12.5	25.7	38.4
	40-49	-	-	-	0.1	8.7	8.8
	50-59	0.0	0.0	-	-	2.1	2.2
	60세이상	0.1	0.2	0.3	0.1	0.5	1.1
	시어머니 연령	0.1	0.4	6.3	43.8	49.4	100.0
며 느 리 연 령	20세미만	-	0.1	0.4	0.3	0.0	0.8
	20-29	-	0.1	6.1	31.7	11.2	49.0
	30-39	-	-	0.2	13.5	25.2	38.8
	40-49	-	-	-	0.2	8.2	8.3
	50-59	0.0	0.0	-	-	1.9	2.0
	60세이상	0.0	0.3	0.3	0.1	0.25	1.0
	시어머니 연령	0.1	0.5	7.0	45.8	46.7	100.0
며 느 리 연 령	20세미만	-	-	0.3	0.9	0.3	1.5
	20-29	-	0.2	4.1	28.5	14.4	47.2
	30-39	-	-	0.2	10.6	26.9	37.7
	40-49	-	-	-	-	9.7	9.7
	50-59	0.1	-	-	-	2.5	2.6
	60세이상	0.1	0.1	0.2	0.1	0.9	1.4
	시어머니 연령	0.2	0.3	4.9	40.1	54.6	100.0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Ⅲ-18> 지역별 동거하는 시모와 며느리의 경제활동상태분포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가 시어머니인 경우)

단위 : %,명

전체		시어머니		며느리 계	동부	시어머니		며느리 계	읍면부	시어머니		며느리 계		
		유업	무업			유업	무업			유업	무업			
며 느 리	유업	15.5	23.9	39.4	며 느 리	유업	6.0	27.5	33.4	며 느 리	유업	33.1	17.3	50.3
	무업	18.1	42.6	60.6		무업	14.7	51.9	66.6		무업	24.3	25.3	49.7
시어머니		33.6	66.4	100.0	시어머니		20.6	79.4	100.0	시어머니		57.4	42.6	100.0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제2절 맞벌이 가구의 개인 및 가구 특성

부부의 경제활동 유형별 가구 분포가 <표Ⅲ-19>와 같다. 이에 의하면 부부 중 남편만 취업한 가구(이하 남편외벌이가구)가 일반가구 전체의 40.8%로 가장 많고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취업한 맞벌이가구가 24.5%로 나타났다. 부부 모두 비취업자인 가구는 6.4%이며 부부 중 부인만 취업한 가구(이하 부인외벌이가구)는 1.7%로 그 비율이 매우 낮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의 경우 남편외벌이가구가 일반가구 전체의 45.6%이며 맞벌이가구가 20.0%로 나타나, 전체가구의 분포에 비해 남편외벌이가 많고 맞벌이가구가 적다. 읍면부는 이와 반대로 맞벌이가구가 40.4%로 가장 많고 남편외벌이가구가 24.6%의 분포를 보인다. 부인외벌이가구나 부부 비취업형가구의 분포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표Ⅲ-20>에서 지역별로 보다 자세히 부부의 경제활동 유형별 가구분포를 보면, 대체로 대도시 지역의 맞벌이 가구비율이 낮게 나타나, 20% 내외의 비율을 보임에 비해 각 도는 경기도와 강원, 그리고 경남을 제외하면 모두 30%를 상회한다. 경기도의 맞벌이가구비율이 22.7%로 가장 낮고 그다음이 강원(27.6%)과 경남(26.9%)이며, 충북(30.9%)-전북(32.6%)-경북(33.1%)-제주(34.1%)가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지역이며 충남(37.7%)과 전남(39.0%)이 맞벌이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

<표Ⅲ-19> 가구주 혼인상태 및 맞벌이 경제활동유형별 가구분포

단위 : %

구성비	전 체	도시(동부)	농촌(읍면부)
전체	100.0	100.0	100.0
유배우가구	77.5	78.0	75.9
맞벌이	24.5	20.0	40.4
남편외벌이	40.8	45.6	24.6
부인외벌이	1.7	1.7	1.9
가구주, 배우자 모두 비취업자	6.4	6.7	5.1
미상	4.1	4.1	3.8
이혼가구	2.2	2.5	1.4
사별가구	10.8	8.6	18.3
미혼가구	9.4	10.9	4.5
미상	0.0	4.2	0.0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Ⅲ-20>지역별 가구주의 혼인상태 및 가구주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가구분포

단위:가구수,%

	전체 가구수		유배우 가구				무배우가구		미혼 가구주	미상
			맞벌이 가구	남편 외벌이	부인 외벌이	부부 비취업	사별 가구주	이혼 가구주		
서울특별시	2965794	100.0	18.7	45.4	1.7	6.7	7.8	2.8	12.6	4.4
부산광역시	1079417	100.0	20.0	43.9	2.5	8.0	10.8	3.2	7.6	4.0
대구광역시	703464	100.0	19.9	43.6	1.9	7.0	10.5	2.7	10.1	4.3
인천광역시	658818	100.0	20.0	49.3	1.3	6.0	7.8	2.3	9.8	3.4
광주광역시	354717	100.0	19.7	41.7	1.5	8.1	9.7	2.0	12.0	5.4
대전광역시	357814	100.0	19.8	44.1	1.6	7.2	7.5	2.3	12.5	5.2
경기도	2168007	100.0	22.7	47.0	1.5	6.2	7.8	2.1	9.2	3.5
강원도	440955	100.0	27.6	33.9	2.1	7.2	13.0	1.8	9.0	5.4
충청북도	407664	100.0	30.9	35.5	1.7	5.6	11.2	1.9	9.3	3.9
충청남도	514254	100.0	37.7	28.9	1.5	5.7	14.6	1.2	6.5	3.8
전라북도	556985	100.0	32.6	30.4	1.8	6.7	15.8	1.5	7.1	4.1
전라남도	637452	100.0	39.0	24.9	1.9	4.8	19.0	1.3	4.7	4.6
경상북도	824891	100.0	33.1	30.3	1.7	5.6	16.3	1.5	7.8	3.7
경상남도	1141523	100.0	26.9	40.1	1.7	5.0	13.2	2.0	7.5	3.7
제주도	146426	100.0	34.1	24.6	2.0	4.0	18.9	3.3	8.6	4.6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통계청(1997),「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그러나 이러한 분포는 각 도의 동부만 따로 분석하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표Ⅲ-21>에서 보면, 경기지역은 21.1%로 여전히 가장 낮고 충북(23.1%)-경남(23.2%)-강원(23.6%)이 그 다음 순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지역군이다. 전남은 도 전체로는 맞벌이 가구비율이 39.0%로 가장 높았으나 동부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크게 떨어져 25.5%로 나타났다. 전북(27.5%)-경북(28.9%)의 동부는 다른 동부에 비해 맞벌이가구 비율이 비교적 높게 조정되고 제주가 29.6%로 맞벌이가구 비율이 전체 동부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맞벌이가구비율의 지역간 순위는 각지역의 유배우 취업여성중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율 순위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제주지역만이 예외에 해당한다. 즉, <표Ⅲ-2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맞벌이가구비율이 매우 높은 전남과 경북은 동부라 해도 유배우 여성의 40%이상이 농림어업종사자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농림어업근로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지방이다. 맞벌이가구비율이 중위그룹에 속하는 경남, 강원,충북지역은 농림어업근로자 비율 또한 중위그룹에 속한다. 가장 맞벌이 비율이 낮은 경기지역은 농림어업근로자 또한 4.6%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 유배우여성취업자중 전문사

무직여성의 비율을 지역별로 순위를 매기면 이는 또한 정반대로 전문사무직 여성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맞벌이가구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Ⅲ-21> 도별 동부지역 가구주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가구분포

단위:가구수,%

	전체 가구수		유배우 가구							무배우가구				미혼 가구주		미상		
			맞벌이 가구	남편 외벌이	부인 외벌이	부부 비취업	사별 가구주	이혼 가구주										
경기도	35478	100.0	7489	21.1	17388	49.0	519	1.5	2185	6.2	2453	6.9	775	2.2	3474	9.8	1195	3.4
강원도	6204	100.0	1462	23.6	2230	35.9	136	2.2	472	7.6	780	12.6	128	2.1	655	10.6	341	5.5
충청북도	5099	100.0	1177	23.1	2155	42.3	76	1.5	305	6.0	461	9.0	108	2.1	615	12.1	202	4.0
충청남도	5137	100.0	1693	33.0	1708	33.2	84	1.6	321	6.2	629	12.2	76	1.5	414	8.1	212	4.1
전라북도	8852	100.0	2432	27.5	3123	35.3	163	1.8	646	7.3	1250	14.1	145	1.6	727	8.2	366	4.1
전라남도	5763	100.0	1469	25.5	2244	38.9	98	1.7	349	6.1	801	13.9	97	1.7	414	7.2	291	5.0
경상북도	12555	100.0	3625	28.9	4337	34.5	206	1.6	736	5.9	1862	14.8	196	1.6	1147	9.1	446	3.6
경상남도	18231	100.0	4223	23.2	8175	44.8	301	1.7	936	5.1	1948	10.7	401	2.2	1542	8.5	705	3.9
제주도	2020	100.0	598	29.6	621	30.7	35	1.7	92	4.6	264	13.1	76	3.8	236	11.7	98	4.9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Ⅲ-22> 동부지역 유배우여성의 지역별 직업분포

	전체 유배우여성		관리직,전문가,준 전문가,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농림어업숙련근 로자		기능원,조립원, 단순노무직	
서울	17347	100.0	5520	31.8	6813	39.3	47	0.3	4967	28.6
부산	6684	100.0	1218	18.2	2853	42.7	200	3.0	2413	36.1
대구	4374	100.0	924	21.1	1773	40.5	206	4.7	1471	33.6
인천	3729	100.0	888	27.1	1336	35.8	225	6.0	1280	34.3
광주	2104	100.0	609	28.9	876	41.6	199	9.5	420	20.0
대전	2097	100.0	586	27.9	961	45.8	96	4.6	454	21.6
경기도	10405	100.0	2872	27.6	3724	35.8	475	4.6	3334	32.0
강원도	2134	100.0	390	18.3	862	40.4	438	20.5	444	20.8
충청북도	1664	100.0	304	18.3	608	36.5	328	19.7	424	25.5
충청남도	2206	100.0	267	12.1	523	23.7	1087	49.3	329	14.9
전라북도	3348	100.0	497	14.8	886	26.5	1443	43.1	522	15.6
전라남도	2112	100.0	303	14.3	717	33.9	810	38.4	282	13.4
경상북도	5057	100.0	623	12.3	1230	24.3	2479	49.0	725	14.3
경상남도	6021	100.0	1089	18.1	2102	34.9	1479	24.6	1351	22.4
제주도	886	100.0	158	17.8	351	39.6	228	25.7	149	16.8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1. 동부지역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특성

1)개인적 특성

가) 연령

가구 유형별 부부의 연령분포를 보면<표Ⅲ-23>, 남편외벌이 부부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다. 이들 가구의 경우 30대 연령층이 가장 많아 남편과 부인 각각 30대가 44.0%, 43.4%를 차지한다. 맞벌이 가구 또한 30대가 남편 37.2%, 부인 44.0%로 가장 많으나 40대 연령층(남편 34.4%, 부인 28.8%)의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부인외벌이가구는 보다 고령층인 40-50대 연령층에 주로 분포해 있어 남편 57.0%, 부인 63.2%가 이들 연령층이다. 비취업형 부부는 부인외벌이가구 보다도 고령층이 많아 이들 부부 중 남편은 57.8%가 60세 이상이며 부인 또한 60세 이상이 38.3%나 된다. 전반적으로 남편외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부부연령분포가 유사한 가운데 남편외벌이 부부가 보다 젊은 층이 많다면, 부인외벌이가구와 부부 비취업형 가구는 이들 두 유형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고령층 부부가 많고 이중 부부 비취업형 부부의 고령화가 더욱 분명하다.

<표 Ⅲ-23> 동부지역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연령분포

단위:명,%

	맞벌이가구		남편외벌이가구		부인외벌이가구		가구주,배우자 모두 비취업자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계	40132	40132	91992	91992	3417	3417	13654	13654
20세미만	13	47	18	103	1	1	7	12
20-29	2993	6204	8388	19932	135	232	303	600
30-39	14916	17666	40463	39950	508	737	1065	1234
40-49	13785	11586	25224	21090	855	1045	1242	1817
50-59	6640	3898	13930	9276	1094	1114	3140	4763
60세이상	1785	731	3969	1641	824	288	7897	522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세미만	0.0	0.1	0.0	0.1	0.0	0.1	0.1	0.1
20-29	7.5	15.5	9.1	21.7	4.0	6.8	2.2	4.4
30-39	37.2	44.0	44.0	43.4	14.9	21.6	7.8	9.0
40-49	34.4	28.9	27.4	22.9	25.0	30.6	9.1	13.3
50-59	16.6	9.7	15.1	10.1	32.0	32.6	23.0	34.9
60세 이상	4.5	1.8	4.3	1.8	24.1	8.5	57.8	38.3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나) 학력

이같은 연령분포의 차이를 반영해 젊은 연령층이 많은 부부유형일수록 학력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남편외벌이 부부와 맞벌이 부부는 모두 고졸이상 학력자가 과반을 넘고 이중 남편외벌이가구가 부부 모두 맞벌이에 비해 고학력자가 다소 많다. 다만 맞벌이 부인의 경우 남편외벌이가구의 부인에 비해 중졸이하 저학력자도 7.6% 포인트 많지만, 4년제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비율 역시 14.5%로 남편외벌이 가구의 부인(12.9%)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인외벌이가구와 부부 비취업형 가구는 맞벌이나 남편외벌이에 비해 저학력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중졸이하 학력자가 50%이상을 차지한다.

<표Ⅲ-24> 동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학력분포

단위:명,%

	맞벌이가구		남편외벌이가구		부인외벌이가구		부부비취업형 가구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계	40147	40147	92013	92013	3418	3418	13660	13660
무학	584	830	626	1227	214	311	1355	2070
국졸	4242	6285	5886	9991	847	1121	3598	5465
중졸	6695	9132	11513	17690	744	874	2621	2659
고졸	16526	16220	41033	46917	995	789	3684	2819
초급대졸	2325	1860	6248	4348	156	70	554	191
대졸	8270	5276	23245	11396	425	223	1687	438
대학원졸이상	1505	544	3462	444	37	30	161	1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학	1.5	2.1	0.7	1.3	6.3	9.2	9.9	15.2
국졸	10.6	15.7	6.4	10.9	25.0	33.1	26.3	40.0
중졸	16.7	22.8	12.5	19.2	22.0	25.8	19.2	19.5
고졸	41.2	40.4	44.6	51.0	29.1	23.3	27.0	20.6
초급대졸	5.8	4.6	6.8	4.7	4.6	2.0	4.1	1.4
대졸	20.6	13.1	25.3	12.4	12.4	6.5	12.4	3.2
대학원졸이상	3.8	1.4	3.8	0.5	1.1	0.9	1.2	0.1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다) 종사상의 지위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로 종사상의 지위분포를 보면<표Ⅲ-25참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가 다른 부부유형에 비해 비임금근로자가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맞벌이 남편은 외벌이 남편에 비해 자영업자가 많고 맞벌이 부인은 외벌이 부인에 비해 가족종사자가 많다. 맞벌이 남편의 경우 자영업자가 전체의 31.1%로써 외벌이남편(16.2%)의 거의 2배에 가까운 비율이다. 외벌이남편은 70.7%가 임금근로자이고 맞벌이남편은 54.7%가 임금근로자로 나타났다. 한편 맞벌이부인도 임금근로자가 51.2%로 가장 많으나 무급가족종사자가 29.5%나 차지해 맞벌이부부의 취업 특성을 보여준다. 외벌이부인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64.6%이고 자영업자가 28.5%로 나타났다.

<표Ⅲ-25>동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종사상의 지위분포

단위:명,%

	맞벌이가구				남편외벌이가구		부인외벌이가구	
	남편		부인		남편		부인	
계	40147	100.0	40147	100.0	92467	100.0	3419	100.0
임금근로자	21966	54.7	20539	51.2	65389	70.7	2210	64.6
자영업자	12482	31.1	5951	14.8	15021	16.2	976	28.5
고용주	5479	13.6	1828	4.6	11962	12.9	211	6.2
무급가족종사자	220	0.5	11829	29.5	91	0.1	22	0.6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맞벌이부부 상호간 종사상의 지위분포를 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임금근로자인 부부가 전체의 42.7%로 가장 많다. 맞벌이 부부의 21.2%는 남편은 자영업자, 부인은 가족종사자로 부부가 함께 일하는 유형에 속한다. 남편이 고용주이고 부인이 무급가족종사자인 부부도 맞벌이 전체의 7.5%로 적지 않다.

<표Ⅲ-26>동부 맞벌이부부의 종사상의 지위분포

단위:명,%

		부 인								남편 계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 가족종사자			
남 편	임금근로자	17 151	42.7	3 596	9.0	962	2.4	257	0.6	21 966	54.7
	자영업자	2 018	5.0	1 786	4.5	180	0.5	8 498	21.2	12 482	31.1
	고용주	1 347	3.4	468	1.2	641	1.6	3 023	7.5	5 479	13.7
	무급가족종사자	23	0.1	101	0.3	45	0.1	51	0.1	220	0.6
부인 계		20 539	51.2	5 951	14.8	1 828	4.6	11 829	29.5	40 147	100.0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라) 직업분포

맞벌이부부의 직업분포를 보면 남편의 경우 맞벌이가구는 「서비스 및 시장판매근로자」가 26.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생산관련직인 「기능공」(16.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원」(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외벌이 남편의 직업은 「기능공」(18.2%)과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15.7%), 그리고 「기술공 및 준전문가」(15.7%)가 많다. 이들 두 집단의 직업분포를 비교하면 맞벌이 남편이 상대적으로 「서비스 및 시장판매근로자」에 편중된 특성을 보인다면 외벌이 남편은 대부분의 직종에 고른 분포를 보이면서 맞벌이에 비해 전문사무직의 화이트칼라층이 많다.

부인의 경우는 맞벌이 부인이나 외벌이 부인 모두 「서비스 및 시장판매근로자」가 각각 39.9%와 42.7%로써 동직종에 유배우여성이 집중 취업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직종 분포의 차이는 맞벌이 부인의 경우 전문직, 준전문직, 그리고 사무직이 전체의 25.8%로 외벌이 부인(13.0%)에 비해 2배가량 많은 대신 외벌이 부인은 상대적으로 단순노무직(20.6%)이 많다는 점에서 찾게 된다. 외벌이 부인은 맞벌이 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27>동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직업분포

단위:명,%

	맞벌이가구				남편외벌이		부인외벌이	
	남편		부인		남편		부인	
계	40147	100.0	40147	100.0	92466	100.0	3419	100.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775	6.9	376	0.9	9748	10.5	31	0.9
전문가	2612	6.5	3193	8.0	6580	7.1	163	4.8
기술공 및 준전문가	4568	11.4	3237	8.1	14483	15.7	181	5.3
사무직원	3424	8.5	3902	9.7	10476	11.3	99	2.9
서비스 및 시장판매근로자	10595	26.4	15999	39.9	12576	13.6	1459	42.7
농림어업근로자	2063	5.1	1890	4.7	1291	1.4	57	1.7
기능공	6615	16.5	4883	12.2	16784	18.2	506	14.8
장치기계조작,조립원	4729	11.8	2444	6.1	14481	15.7	218	6.1
단순노무직근로자	2759	6.9	4216	10.5	6047	6.5	705	20.6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맞벌이 부부의 상호간 직업분포를 자세히 보면 부부의 직업조합이 81개나 됨에 따라 상당수가 1%미만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은 부부 모두 서비스 근로 및 판매직 근로자인 경우가 전체의 21.3%나 됨으로써 동직종이 맞벌이부부의 대표적인 직업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들 직종과는 차이가 크나 부부 모두 기능공인 경우 (6.2%)가 그 다음순이며 부부 모두 전문가인 경우도 3.7%로 나타났다.

<표Ⅲ-28>동부 맞벌이 부부의 직업분포

단위:%

	부 인 외 직 업										남편 직업 계
	고위임 직원, 관리자	전문 가	기술공, 준전문 가	사무 직원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	농림어 업근로 자	기능공	장치,기 계조작, 조립원	단순 노무직 근로자		
남 편 의 직 업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4	0.8	0.8	1.4	1.9	0.0	0.6	0.3	0.6	6.9
	전문가	0.1	3.7	1.1	0.6	0.7	0.0	0.1	0.0	0.2	6.5
	기술공 및 준전문가	0.2	1.7	2.8	1.9	2.8	0.0	0.7	0.4	1.0	11.4
	사무직원	0.1	1.0	1.2	1.9	2.3	0.1	0.6	0.4	0.9	8.5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0.1	0.4	0.8	1.7	21.3	0.1	0.8	0.4	0.9	26.4
	농림어업근로자	0.0	0.0	0.0	0.0	0.5	4.3	0.1	0.1	0.2	5.1
	기능원	0.0	0.2	0.7	1.2	4.4	0.1	6.2	1.4	2.2	16.5
	장치 기계조작, 조립원	0.1	0.1	0.5	0.8	3.9	0.1	1.9	2.5	1.9	11.8
	단순노무직근로자	0.0	0.0	0.1	0.2	2.1	0.1	1.1	0.6	2.6	6.9
부인 직업 계		0.9	8.0	8.1	9.7	39.9	4.7	12.2	6.1	10.5	100.0 (40,147)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이들 대분류 직종을 단순화해서 관리자,전문가,준전문가,그리고 사무직을 전문사무직으로 묶고 서비스및판매직, 농림직, 생산관련직, 단순노무직을 블루칼라층으로 묶어 이들 두 직군별 부부의 분포를 보면 <표Ⅲ-29>와 같다. 이에 의하면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블루칼라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59.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부부 모두 전문사무직인 경우가 19.7%로써 부부가 대체로 같은 직군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남편은 전문사무직이나 부인이 블루칼라직인 부부가 13.6%이고 이와 반대로 남편은 블루칼라직이나 부인은 화이트칼라직군인 경우가 기대대로 제일 비율이 낮아 6.9%이다.

<표Ⅲ-29> 맞벌이부부 상호간 직군별 분포

단위:%,명

		부 인 의 직 업	
		전문 사무직	블루 칼라
남 편 의 직 업	전문 사무직	19.7 (7 909)	13.6 (5 460)
	블루 칼라	6.9 (2 770)	59.8 (24 008)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다) 통근현황

통근현황을 보면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남편이나 외벌이 부인에 비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많고 이들의 적지 않은 수가 주거지와 일터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표Ⅲ-30>에서 보는 것처럼 맞벌이부부는 통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남편 12.2%, 부인 18.1%로 외벌이 남편(5.3%)과 외벌이 부인(5.3%)보다 훨씬 많다. 통근을 하는 경우도 통근거리가 외벌이남편이나 외벌이부인은 주거지와 다른 시군구에 직장이 위치해 통근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경우가 각각 49.3%로 맞벌이 부부(남편 43.2%, 부인 31.3%)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수단을 보면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은 남편의 경우 외벌이냐 맞벌이냐 모두 「승용차」가 주요 통근수단으로 나타나 맞벌이 남편은 41.3%, 외벌이 남편은 48.4%가 승용차로 출퇴근한다. 맞벌이남편의 경우 외벌이남편에 비해 「도보」로 통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에 비해 부인들은 모두 「도보」로만 통근하는 경우가 맞벌이 33.3%, 외벌이 33.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외벌이 부인은 40.2%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부인의 경우 도보로만 통근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면, 대부분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통근한다. 맞벌이 부인 역시 「도보」 다음으로 「시내버스」 이용자가 28.4%로 많지만 「승용차」 이용자 또한 19.7%로 나타났다.

<표Ⅲ-30>동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통근 현황

단위:명,%

	맞벌이부부				남편외벌이		부인외벌이	
	남편		부인					
계	40147	100.0	40147	100.0	92467	100.0	3419	100.0
통근안함	4884	12.2	7269	18.1	4931	5.3	426	5.3
통근함	35131	87.5	32746	81.6	87107	94.2	2986	94.2
통학함	132	0.3	132	0.3	429	0.5	7	0.5
통근지역	35263	100.0	32878	100.0	87536	100.0	2993	100.0
주거지읍면동	7191	20.4	9449	28.7	11152	12.7	740	12.7
같은시군구내읍면동	12842	36.4	13143	40.0	33207	37.9	1264	37.9
다른시군구	15230	43.2	10286	31.3	43177	49.3	989	49.3
제1통근수단	35263	100.0	32878	100.0	87536	100.0	2993	100.0
시내버스	6156	17.5	9352	28.4	15679	17.9	1202	40.2
좌석버스	596	1.7	708	2.2	1537	1.8	44	1.5
기타버스	1907	5.4	2021	6.1	5540	6.3	267	8.9
전철,지하철	1739	4.9	1610	4.9	4873	5.6	139	4.6
기차	77	0.2	36	0.1	262	0.3	3	0.1
승용차	14581	41.3	6481	19.7	42320	48.4	225	7.5
택시	453	1.3	456	1.4	1185	1.4	31	1.0
자전거	695	2.0	202	0.6	1532	1.8	21	0.7
도보로만	6385	18.1	10934	33.3	6385	7.3	1007	33.6
기타	2674	7.6	2688	8.2	8223	9.4	54	1.8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2) 가구 특성

가) 세대구성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가구구성 분포가 <표 Ⅲ-31>과 같다. 이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많은 남편외벌이가구가 2세대가구가 전체의 82.9%로 가장 많다. 또한 고령층 부부가 많은 부부 비취업형 가구는 1세대가구가 30.0%로 다른 부부유형에 비해 1세대

가구가 많은 특성을 보인다. 대체로 부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1세대의 부부가족이나 3세대 가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인외벌이가구와 부부비취업형 가구가 세대구성에서 그러한 특성을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맞벌이가구가 3세대가구의 비율이 12.2%로서 부부비취업형(14.6%)보다는 낮지만 부인외벌이가구(11.9%)보다는 다소 높은 점을 주목할만하다. 3세대가구의 세대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부부 비취업형 가구는 「부부+미혼자녀+양친」으로 구성된 세대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은 데 비해 맞벌이가구는 「부부+미혼자녀+편부모」의 비율이 8.7%로 상대적으로 높다. 같은 3세대가구라 해도 부부비취업형가구는 부모가 가구주로서 자녀부부와 함께 사는 유형이 많다면 맞벌이가구는 가구주부부가 편부모를 모시는 세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의 경우 부모가 자녀양육이나 가사일을 보조해주기 위해 자녀부부와 함께 사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Ⅲ-31> 동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가구의 세대구성 분포

단위:가구수,%

	맞벌이가구		남편외벌이가구		부인외벌이가구		부부 비취업형	
1세대가구	5295	13.2	8059	8.7	597	17.5	4253	30.0
부부	50161	12.6	7730	8.4	582	17.0	4191	29.4
기타	234	0.6	329	0.4	15	0.4	62	0.4
2세대가구	29871	74.5	76604	82.9	2428	71.1	7852	55.2
부부+미혼자녀	27969	69.8	72016	78.0	2270	66.4	6967	49.0
부부+양친	60	0.1	117	0.1	5	0.2	83	0.6
부부+편부모	239	0.6	398	0.4	34	1.0	128	0.9
부부+자녀+형제자매	545	1.4	1800	2.0	18	0.5	55	0.4
부부+미혼손자녀	31	0.1	104	0.1	19	0.6	226	1.6
기타	1027	2.6	2169	2.4	82	2.4	393	2.8
3세대가구	4871	12.2	7605	8.2	382	11.9	2081	14.6
부부+미혼자녀+양친	578	1.4	913	1.0	70	2.1	753	5.3
부부+미혼자녀+편부모	3493	8.7	5191	5.6	210	6.2	549	3.9
기타	800	2.0	1501	1.6	102	3.0	779	5.5
4세대이상가구	57	0.1	105	0.1	10	0.3	46	0.3
계	40094	100.0	91918	100.0	3417	100.0	14232	100.0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나) 가구원수

가구원수 분포를 보면 맞벌이가구와 남편외벌이가구, 그리고 부인외벌이 가구는 4인 가구의 비율이 각각 42.1%, 47.5%, 그리고 33.3%로 가장 높다. 대체로 과반 이상의 가구가 3-4인 규모의 가구원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부부 비취업형 가구는 2인가구가 이들 가구 전체의 30.1%로 가장 많다.

<표Ⅲ-32> 동부 부부의 경제활동 유형별 가구원수 분포

단위:가구수,%

	맞벌이가구		남편외벌이가구		부인외벌이가구		부부 비취업형	
2인	5065	12.6	7732	8.4	583	17.1	4116	30.1
3인	8287	20.6	21459	23.2	858	25.1	3319	24.3
4인	16894	42.1	43938	47.5	1138	33.3	3182	23.3
5인	7125	17.7	14561	15.8	593	17.3	1698	12.4
6인	2032	5.1	3466	3.8	186	5.5	878	6.4
7인	538	1.3	999	1.1	45	1.3	337	2.5
8인	166	0.4	232	0.3	11	0.3	89	0.7
9인	28	0.1	60	0.1	4	0.1	27	0.2
10인 이상	12	0.0	20	0.0	1	0.0	-	-
계	40147	100.0	92467	100.0	3419	100.0	13659	100.0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나) 동거 부모 및 자녀

부인을 중심으로 시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 비율을 보면<표Ⅲ-33>, 맞벌이가구가 10.4%로 남편외벌이(7.0%), 부인외벌이(7.6%), 부부 비취업형 가구(5.1%)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세대구성 분포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친정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는 모든 부부 유형에서 매우 낮다.

동거자녀만을 대상으로 18세이하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 비율도 부부의 연령층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 남편외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가 각각 78.7%, 73.5%로 그 비가 높고 부인외벌이 (47.1%), 그리고 부부 비취업형 가구가 21.2%의 순이다. 6세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 비율은 남편외벌이가구가 맞벌이가구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아 이들 가구 전체의 41.9%가 학령전의 어린 자녀가 있으며 맞벌이가구는 이 보다 14.2% 포인트 낮은 27.7%이다. 6세

이하 자녀의 유무가 여성의 취업여부에는 많은 영향을 미쳐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비율이 맞벌이와 남편외벌이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표Ⅲ-33> 동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가구의 자녀유형 분포

단위:가구수,%

	맞벌이가구		남편외벌이 가구		부인외벌이 가구		부부비취업형 가구	
계	40147	100.0	92467	100.0	3419	100.0	13659	100.0
시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 비율	4189	10.4	6451	7.0	255	7.5	699	5.1
친정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 비율	599	1.5	747	0.8	41	1.2	82	0.6
18세이하 자녀있음	29523	73.5	71926	77.8	1611	47.1	2897	21.2
6세이하 자녀있음	11139	27.7	38732	41.9	371	10.9	953	7.0
6세이하+(7세-12세)+(13세-18세)	162	0.4	353	0.4	9	0.3	12	0.1
6세이하+(7세-12세)	3591	8.9	9738	10.5	104	3.0	214	1.6
6세이하+(13세-18세)	209	0.5	555	0.6	6	0.2	22	0.2
6세이하자녀만	7177	17.9	28086	30.4	252	7.4	705	5.2
(7세-12세)	5221	13.0	10466	11.3	243	7.1	348	2.6
(13세-18세)	9018	22.5	15553	16.8	756	22.1	1262	9.2
(7세-12세)+(13세-18세)	4145	10.3	7175	7.8	241	7.0	334	2.4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한편 맞벌이 부인의 6세미만 자녀유무별 직업분포를 보면 <표Ⅲ-34>와 같다. 이에 의하면 6세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어린 자녀가 없는 여성집단에 비해 전문가, 기술공 및 준 전문가는 2배 이상 많은 분포를 보이며 사무직 또한 비율이 높다. 그러한 직업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6세미만 자녀의 유무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여성의 연령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Ⅲ-34> 맞벌이부인의 6세미만 자녀유무별 직업 분포

단위:명,%

직업	6세미만자녀없음		6세미만자녀있음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65	0.9	111	1.0
전문가	1585	5.5	1608	14.5
기술공 및 준전문가	1863	6.4	1374	12.4
사무직원	2422	8.3	1480	13.4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12062	41.5	3937	35.6
농림어업근로자	1759	6.1	131	1.2
기능원	3834	13.2	1049	9.5
장치 기계조작, 조립원	2084	7.2	360	3.3
단순노무직근로자	3213	11.1	1003	9.1
계	29087	100.0	11053	100.0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다) 주택

<표Ⅲ-35>에서 집의 점유형태를 보면 부부 비취업형 가구가 자기집의 비율이 67.0%로 가장 높다. 다음이 남편외벌이가구로써 이들의 51.2%가 자기집을 소유하며 맞벌이 가구는 이보다 다소 낮은 47.5%이다. 부인외벌이 가구의 자가소유율이 46.2%로 가장 낮다. 부인외벌이 가구는 월세가가구 전체 가구의 21.4%나 차지해 이들의 경제적 위상을 엿볼 수 있다.

<표Ⅲ-35> 동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집의 점유형태

단위:가구수,%

	맞벌이가구		남편외벌이가구		부인외벌이가구		가구주,배우자 모두 비취업자	
자기집	19081	47.5	47373	51.2	1579	46.2	9159	67.0
전세(월세없음)	13291	33.1	32920	35.6	962	28.1	2796	20.5
보증금 있는 월세	5965	14.9	8313	9.0	667	19.5	1162	8.5
보증금 없는 월세	419	1.0	724	0.8	65	1.9	153	1.1
사글세	703	1.8	1269	1.4	98	2.9	203	1.5
무상	688	1.7	1870	2.0	48	1.4	186	1.4
계	40147	100.0	92469	100.0	3419	100.0	13659	100.0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거처의 종류를 보면 단독주택이 가장 많아 맞벌이가구 49.5%, 남편외벌이가구 46.9%, 부인외벌이가구 58.8%, 그리고 부부 비취업형가구 60.7%이다. 모든 가구 유형에서 단독주택 다음으로 아파트의 비율이 높다. 맞벌이 가구의 특징은 부부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에 사는 가구가 8.5%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많다.

<표Ⅲ-36> 동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거처의 종류 분포

단위:가구수,%

	맞벌이가구		남편외벌이가구		부인외벌이가구		가주주,배우자 모두 직업없음	
단독주택	19891	49.5	43364	46.9	2010	58.8	8298	60.7
아파트	12452	31.0	36061	39.0	822	24.0	3495	25.6
연립주택	2892	7.2	7035	7.6	262	7.7	982	7.2
다세대주택	1344	3.3	3248	3.5	112	3.3	377	2.8
비거주용건물내주택	3403	8.5	2608	2.8	195	5.7	477	3.5
오피스텔	3	0.0	9	0.0	-		-	
숙박업소	2	0.0	4	0.0	-		-	
기타	160	0.4	138	0.2	18	0.5	28	0.2
계	40147	100.0	92467	100.0	3419	100.0	13657	100.0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2.. 읍면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특성

1)개인적 특성

읍면부 부부는 동부에 비해 고령층이 많이 분포해 있으나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특성은 대체로 비슷하다. 동부와 마찬가지로 읍면부 역시 남편외벌이가구의 부부가 가장 젊은 층으로 구성된다. 이들 가구의 남편은 30대에 43.1%가 편중 분포되어 있으며 부인은 20-30대가 주축을 이뤄 각각 24.3%, 38.7%를 나타낸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동부의 남편은 30-40대가 중심이 되었으나 읍면부는 50대이상인 58.2%를 차지하고 이에 따라 부인은 40대와 50대가 전체의 53.1%로 나타났다. 부인외벌이가구의 남편은 60세이상은 50.8%이고 부인은 50대이상인 63.4%이다. 부부비취업형가구는 대부분이 고령층으로써 남편은 60대 이상이 71.6%, 부인은 60세이상이 57.4%에 이른다.

<표 III-37> 읍면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연령분포

단위:명,%

	맞벌이가구		남편외벌이가구		부인외벌이가구		가구주,배우자 모두 비취업자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계	24450	24450	14895	14895	1127	1127	3102	3102
20세미만	-	7	3	19	-	1	2	4
20-29	483	1321	1546	3625	13	36	50	107
30-39	4102	5625	6426	5758	97	140	184	211
40-49	5650	5945	2943	2500	170	235	183	273
50-59	6986	7034	2220	1864	275	326	461	726
60세이상	7229	4518	1757	1129	572	389	2222	178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세미만	-	0.0	0.0	0.1	-	0.1	0.1	0.1
20-29	2.0	5.4	10.4	24.3	1.2	3.2	1.6	3.4
30-39	16.8	23.0	43.1	38.7	8.6	12.4	5.9	6.8
40-49	23.1	24.3	19.8	16.8	15.1	20.9	5.9	8.8
50-59	28.6	28.8	14.9	12.5	24.4	28.9	14.9	23.4
60세 이상	29.6	18.5	11.8	7.6	50.8	34.5	71.6	57.4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학력분포를 보면<표III-38 참조>, 읍면부의 남편외벌이가구는 부부 모두 고졸학력자가 중심을 이뤄 남편은 42.4%, 부인은 43.2%가 고졸자이다. 이에 비해 맞벌이 부부는 남편의 41.1%, 부인의 47.6%가 국졸학력이다. 부인외벌이 가구와 부부 비취업형 가구는 무학자와 국졸자가 모두 60%-70%를 이룬다.

가구유형별로 종사상의 지위분포를 보면, 맞벌이가구의 경우 농업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남편은 자영업자가 79.2%를 차지하고 부인은 무급가족종사자가 75.1%에 이른다. 이에 비해 남편외벌이가구의 남편은 62.0%가 임금근로자이고 자영업자는 30.4%로 나타났다. 부인외벌이가구의 부인은 자영업자가 53.9%로 가장 많고 임금근로자도 39.9%이다.

<표Ⅲ-38> 읍면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학력분포

단위:명,%

	맞벌이가구		남편외벌이가구		부인외벌이가구		부부 비취업형 가구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계	24458	24458	14902	14902	1127	1127	3103	3103
무학	3315	4871	626	934	300	385	971	1277
국졸	10054	11648	2461	3228	420	464	1076	1168
중졸	4773	3977	2501	3008	184	139	398	347
고졸	4871	3250	6313	6432	172	115	473	267
초급대졸	432	235	852	530	16	5	49	16
대졸	913	459	1914	750	35	19	129	27
대학원졸이상	100	18	235	20	-	19	7	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학	13.6	19.9	4.2	6.3	36.6	34.2	31.3	41.2
국졸	41.1	47.6	16.5	21.7	37.3	41.2	34.7	37.6
중졸	19.5	16.3	16.8	20.2	16.3	12.3	12.8	11.2
고졸	19.9	13.3	42.4	43.2	15.3	10.2	15.2	8.6
초급대졸	1.8	1.0	5.7	3.6	1.4	0.4	1.6	0.5
대졸	3.7	1.9	12.8	5.0	3.1	1.7	4.2	0.9
대학원졸이상	0.4	0.1	1.6	0.1	1.7	1.7	0.2	0.0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Ⅲ-39> 읍면부 가구 유형별 부부의 종사상 지위분포

단위:명,%

	맞벌이가구		남편외벌이 가구	부인외벌이가구
	남편	부인	남편	부인
계	24457	24457	14902	1127
임금근로자	4042	3256	9232	450
자영업자	19363	2620	4536	608
고용주	941	206	1085	33
무급가족종사자	111	18375	49	36
%	100.0	100.0	100.0	100.0
임금근로자	16.5	13.3	62.0	39.9
자영업자	79.2	10.7	30.4	53.9
고용주	3.8	0.8	7.3	2.9
무급가족종사자	0.5	75.1	0.3	3.2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맞벌이부부의 부부 상호간 종사상의 지위분포를 보면<표Ⅲ-40 참조>, 읍면부의 특성상 남편이 자영업자이고 부인은 무급가족종사자인 부부가 전체의 71.2%에 이른다. 남편과 부인 모두 임금근로자인 부부는 9.9%에 불과하다.

<표Ⅲ-40> 읍면부 맞벌이부부의 종사상의 지위분포

단위:명,%

		부 인								남편 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가족종사자			
남 편	임금근로자	2 415	9.9	1 288	5.3	97	0.4	242	1.0	4 042	16.5
	자영업자	737	3.0	1 158	4.7	50	0.2	17 418	71.2	19 363	79.2
	고용주	101	0.4	125	0.5	48	0.2	667	2.7	941	3.8
	가족종사자	3	0.0	49	0.2	11	0.0	48	0.2	111	0.5
부인 계		3 256	13.3	2 620	10.7	206	0.8	18 375	75.1	24 457	100.0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읍면부 맞벌이부부의 70%이상이 농림어업종사자이다. 맞벌이의 경우 농림어업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남편의별이가구는 전 직종에 상당히 고른 분포를 보인다. 부인의 별이가구의 경우 농림어업종사자가 41.8%로 가장 많으나 맞벌이에 비해 농림어업종사자가 적고 대신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26.5%)나 단순노무직근로자(12.8%)가 많다.

<표Ⅲ-41> 읍면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직업분포

단위:명,%

계	맞벌이가구				남편의별이		부인의별이	
	남편		부인		남편		부인	
계	24457	100.0	24457	100.0	14902	100.0	1127	100.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417	1.7	35	0.1	1353	9.1	4	0.4
전문가	327	1.3	175	1.1	679	4.6	6	0.5
기술공 및 준전문가	621	2.5	415	1.7	1392	9.3	16	1.4
사무직원	509	2.1	501	2.0	1276	8.6	19	1.7
서비스 및 시장판매근로자	2105	8.6	3439	14.1	1339	9.0	299	26.5
농림어업근로자	17398	71.1	17413	71.2	2848	19.1	471	41.8
기능공	1140	4.7	802	3.3	2477	16.6	96	8.5
장치기계조작,조립원	1161	4.7	689	2.8	2572	17.3	72	6.4
단순노무직근로자	779	3.2	888	3.6	961	6.4	144	12.8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2) 가구 특성

가) 세대구성 및 가구원수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가구구성 분포가 <표Ⅲ-42>와 같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많은 남편외벌이가구는 2세대가구가 전체의 73.2%로 가장 많다. 이에 반해 고령층 부부가 많은 부부 비취업형 가구는 1세대가구가 50.8%이고 부인외벌이가구도 39.7%가 1세대를 이룬다. 이들 대부분이 부부가족이다. 읍면부 맞벌이가구의 특성은 3세대가구가 15.6%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가장 많다는 점이다. 특히 맞벌이부부가 편부모를 모시는 형태의 3세대가구가 9.9%로 나타났다.

<표Ⅲ-42> 읍면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가구구성 분포

단위:가구수,%

	맞벌이가구		남편외벌이가구		부인외벌이가구		부부비취업형가구	
1세대가구	7926	32.4	2327	15.6	448	39.7	1576	50.8
부부	7849	32.1	2291	15.4	443	39.3	1561	50.3
기타	77	0.3	36	0.2	5	0.4	15	0.5
2세대가구	12531	51.2	10898	73.2	539	47.7	1076	34.7
부부+미혼자녀	10848	44.4	10213	68.5	485	43.0	851	27.4
부부+양친	129	0.5	38	0.3	5	0.4	31	1.0
부부+편부모	835	3.4	169	1.1	17	1.5	44	1.4
부부+자녀+형제자매	76	0.3	144	1.0	1	0.1	5	0.2
부부+미혼손자녀	203	0.8	58	0.4	15	1.3	80	2.6
기타	440	1.8	276	1.9	16	1.4	65	2.1
3세대가구	3799	15.6	1608	10.8	130	11.6	426	13.7
부부+미혼자녀+양친	734	3.0	261	1.8	30	2.7	202	6.5
부부+미혼자녀+편부모	2416	9.9	1000	6.7	62	5.5	63	2.0
기타	649	2.7	347	2.3	38	3.4	161	5.2
4세대이상가구	128	0.5	37	0.2	2	0.2	9	0.3
단독가구 비혈연가구	74	0.3	32	0.2	8	0.7	16	0.5
계	24458	100.0	14902	100.0	1127	100.0	3103	100.0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읍면부는 동부에 비해 가구원수가 적어 남편외별이가구를 제외한 전가구에서 가구원수가 2-3인인 경우가 과반을 넘는다. 이들 가구 유형중 부부비취업형가구의 경우 50.3%가 2인가구로서 고령층 부부가족이 중심이 됨을 알 수 있다. 남편외별이 가구는 4인가구가 전체의 39.8%로 가장 많다.

<표Ⅲ-43> 읍면부 부부의 경제활동 유형별 가구원수 분포

단위:가구수,%

	맞벌이가구		남편외별이가구		부인외별이가구		부부비취업형가구	
2인	7851	32.1	2293	15.4	443	39.3	1562	50.3
3인	5104	20.9	3542	23.8	283	25.1	592	19.1
4인	5733	23.4	5933	39.8	220	19.5	422	13.6
5인	3515	14.4	2134	14.3	112	9.9	231	7.4
6인	1423	5.8	667	4.5	42	3.7	176	5.7
7인	556	2.3	239	1.6	21	1.9	85	2.7
8인	190	0.8	69	0.5	3	0.3	25	0.8
9인	66	0.3	17	0.1	2	0.2	8	0.3
10인이상	20	0.0	8	0.0	1	0.1	2	0.1
계	24458	100.0	14902	100.0	1127	100.0	3103	100.0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나) 동거 부모 및 자녀 현황

<표Ⅲ-43>에서 보듯이 읍면부는 동부에 비해 시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비율이 전반적으로 높다. 맞벌이가구가 시부모를 모시는 비율이 제일 높아 15.8%이며, 남편외별이가구 9.6%, 부인외별이가구 6.7%, 부부비취업형가구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인외별이가구나 비취업형 가구는 시부모와 동거하는 가구가 동부 보다 낮게 나타난다. 읍면부의 부부 연령이 높아 부모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친정부모와 사는 가구는 지역별로 차이가 없어 1%도 채 안되지만 부인외별이가구는 1.2%로 다소 높게 나타난다.

18세이하의 동거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남편외별이(50.8%), 맞벌이(40.7%), 부인외별이 (30.8%), 부부비취업형(15.3%)의 순으로 나타난다. 6세미만의 학령전 자녀를 둔 가구의 비율을 보면 남편외별이가구가 42.9%로 많고 맞벌이가구는 이보다 훨씬 낮은 12.5%이며 부인외별이와 부부 비취업형가구는 그 비율이 각각 5.9%, 5.5%이다.

18세이하 자녀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남편외별이가구는 6세미만 자녀만을 둔 가구

(31.9%)가 제일 많고 이에 비해 다른 가구는 모두 중고생 연령층의 자녀만 있는 가구가 가장 많아 맞벌이가구 17.6%, 부인외벌이가구 16.6%, 그리고 부부 비취업형가구 6.2%로 나타났다.

<표Ⅲ-44> 읍면부의 가구유형별 동거 부모 및 자녀 관련 특성

단위:가구수,%

	맞벌이가구		남편외벌이		부인외벌이		부부비취업형	
계	24458	100.0	14902	100.0	1127	100.0	3103	100.0
시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 비율	3864	15.8	1434	9.6	75	6.7	133	4.3
친정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 비율	220	0.9	90	0.6	13	1.2	6	0.2
18세미만 자녀있음	11126	45.5	10593	50.8	347	30.8	476	15.3
6세미만자녀있음	3059	12.5	6397	42.9	67	5.9	172	5.5
6세미만자녀+초등학생+중고생	78	0.3	56	0.4	1	0.1	2	0.1
6세미만자녀+초등학생	1214	5.0	1514	10.2	19	1.7	46	1.5
6세미만자녀+중고생	61	0.2	70	0.5	2	0.2	6	0.2
6세미만자녀만	1706	7.0	4757	31.9	45	4.0	118	3.8
초등학생	1805	7.4	1393	9.3	47	4.2	64	2.1
중고생	4306	17.6	1814	12.2	187	16.6	191	6.2
초등학생+중고생	1956	8.0	989	6.6	46	4.1	49	1.6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다) 주택

거처의 종류를 보면<표Ⅲ-45>, 남편외벌이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유형에서 단독주택이 80%이상을 차지한다. 남편외벌이가구는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한편 집의 점유형태를 보면 남편외벌이가구는 전세비율이 20.9%로 자기집 비율이 80%이상인 다른 가구유형과 특징을 보인다.

<표Ⅲ-45> 읍면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거처의 종류 분포

단위:가구수,%

	맞벌이가구		남편외벌이가구		부인외벌이가구		부부비취업형	
단독주택	21314	87.1	9108	61.1	967	85.8	2671	86.1
아파트	1132	4.6	3761	25.2	43	3.8	198	6.4
연립주택	462	1.9	1161	7.8	29	2.6	122	3.9
다세대주택	119	0.5	297	2.0	13	1.2	22	0.7
비거주용건물내주택	1365	5.6	550	3.7	71	6.3	86	2.8
오피스텔	-	-	-	-	-	-	-	-
숙박업소	2	0.0	1	0.0	-	-	-	-
기타	64	0.3	24	0.2	4	0.4	4	0.1
계	24458	100.0	14902	100.0	1127	100.0	3103	100.0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Ⅲ-46> 읍면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별 집의 점유형태

단위:가구수,%

	맞벌이가구		남편외벌이가구		부인외벌이가구		부부비취업형	
자기집	21376	87.4	9071	60.9	898	79.7	2600	83.8
전세(월세없음)	1382	5.7	3110	20.9	95	8.4	220	7.1
보증금 있는 월세	585	2.4	728	4.9	30	2.7	57	1.8
보증금 없는 월세	201	0.8	365	2.4	23	2.0	53	1.7
사글세	258	1.1	357	2.4	37	3.3	60	1.9
무상	656	2.7	1271	8.5	44	3.9	113	3.6
계	24458	100.0	14902	100.0	1127	100.0	3103	100.0

자료:통계청(1995),「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제4장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특성

제1절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특성

1. 성별 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1995년 15세 이상 인구는 33,610,140명인데, 이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유업자가 17,988,286명(유업율; 53.5%)이고 무업자가 15,607,277명(무업율; 46.5%)이었다. 이와 같은 유업율은 1990년의 49.9%에 비해서 3.6%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¹³⁾ 유업율을 성별로 나누어서 보면 남성유업율이 71.6%인데 비해서, 여성유업율은 36.6%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성별 유업율 증가율을 보면 여성유업율은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1990년-95년 사이에 여성 유업율은 4.0% 포인트 증가한 반면에 남성은 3.3% 포인트 증가하였다).

전체 유업자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49.0%가 주로 일하였고, 3.8%는 '가사와 함께 틈틈이', 0.3%는 '학교를 다니며 틈틈이', 0.1%는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고 그리고 0.3%는 일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이와 같은 경제활동상태를 1990년과 비교하면, 주로 일하였다는 비율은 대략 5% 포인트 정도 증가한 반면에 틈틈이 일하고 있는 인구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특히 가사와 함께 틈틈이 일하고 있는 유업자의 비율이 1990년 5.1%에서 1995년 3.8%로 하락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중에서 틈틈이 일하는 여성비율은 지난 1990년 8.9%에서 1995년에는 7.6%로 감소하였다. 남성 유업자 중에서도 가사와 함께 틈틈이 일하는 유업자비율과 일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유업자비율이 감소하였다.

13)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조사에서 유업자는 '지난 1개월동안 최소 4일 이상 일을 한 사람'과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던 자'를 말한다. 따라서 유업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유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청(1995),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지침서」, pp. 38-39.

14)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로 일하였음은 '199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중 30일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사람'이었음. 그러나 1995년 조사에서 주로 일하였음은 '지난 1개월 동안 15일 이상 돈벌이 또는 생업에 주로 종사한 사람'이고 또한 틈틈이 일함은 '지난 1개월동안 3일 이상 15일 미만 수입있는 일만을 한 사람'이 해당된다.

<표 IV-1> 성별 유형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1990년 경제활동상태별 분류			
경제활동 주로 일하였음	44.1	65.8	23.7
가사와 함께 틈틈이 일하였음	5.1	1.8	8.3
학교 다니며 틈틈이 일하였음	0.3	0.2	0.3
다른 활동하며 틈틈이 일하였음	0.2	0.2	0.2
일하다가 잠시 쉬고 있음	0.1	0.2	0.1
전체 15세 이상 인구	100.0	100.0	100.0
1995년 경제활동상태별 분류			
경제활동 주로 일하였음	49.0	70.3	29.1
가사와 함께 틈틈이 일하였음	3.8	0.4	7.0
학교 다니며 틈틈이 일하였음	0.3	0.3	0.2
다른 활동하며 틈틈이 일하였음	0.1	0.2	0.1
일하다가 잠시 쉬고 있음	0.3	0.5	0.2
전체 15세 이상 인구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1992),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경제활동편.

통계청(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경제활동편.

1995년 무업자의 세부활동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무업자 중에서 가사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50.5%, 학교에 다녀야 하기 때문이 27.7%, 기타 연로하거나 연소하기 때문인 사람이 13.6%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8.2%는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다. 무업자의 세부활동별 분포를 성별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남성은 대부분이 주로 일하고 있었고, 일하지 않은 남성인력은 대부분이 학교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51.1%), 연로·연소하기 때문(24.4%)이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였던 남성도 19.1%로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서 여성은 가사를 돌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여성인력이 68.8%, 학교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18.1% 등이었다.

가사와 함께 틈틈이 일하는 여성비율은 동부에 비해서 거의 10%포인트 정도 높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읍면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상당수는 무급가족종사자나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가사와 일의 병행이 가능한 반면에, 동부의 여성취업자는 근무 시간과 장소가 경직적인 임금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사와 일의 병행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다.

지역별 여성 경제활동상태를 1990년과 비교하여 보면 주로 일하는 여성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반면에 학교에 다니며 틈틈이 일하는 여성비율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가사와 함께 틈틈이 일하는 여성비율은, 읍면부에서는 감소한 반면에 동부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표 IV-4> 여성인력의 유형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전체	시부	군부
1990년 경제활동상태별 분류				
경제활동	주로 일하였음	23.7	23.4	24.8
	가사와 함께 틈틈이 일하였음	8.3	4.2	19.9
	학교 다니며 틈틈이 일하였음	0.3	0.3	0.2
	다른 활동하며 틈틈이 일하였음	0.2	0.1	0.2
	일하다가 잠시 쉬고 있음	0.1	0.1	0.1
전체 15세 이상 인구		100.0	100.0	100.0
1995년 경제활동상태별 분류				
경제활동	주로 일하였음	28.9	27.7	35.6
	가사와 함께 틈틈이 일하였음	7.1	5.7	15.2
	학교 다니며 틈틈이 일하였음	0.2	0.2	0.1
	다른 활동하며 틈틈이 일하였음	0.1	0.1	0.2
	일하다가 잠시 쉬고 있음	0.2	0.2	0.1
전체 15세 이상 인구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1992,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경제활동편.

2. 인적특성별 유업율 현황

앞에서 보았듯이 남성유업율은 71.6%이고, 여성유업율은 36.5%이다. 남녀 연령계층별 유업율 곡선을 보면 남성의 연령별 유업율은 각종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15세 이후 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가 30세가 되면 95% 내외의 유업을 기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높은 유업률은 정년연령인 50세 이후 까지 지속되다가, 그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다. 즉, 남성의 연령별 유업율곡선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역U자형을 나타낸다.

<표 IV-5> 성별 연령계층별 유업율

(단위: %)

연령계층별	전 체		남 자		여 자	
	1990	1995	1990	1995	1990	1995
15-19	12.5	9.1	8.4	6.8	16.7	11.5
20-24	46.4	49.3	40.2	43.8	51.4	53.7
25-29	55.7	60.7	82.1	82.0	29.8	39.4
30-34	61.4	64.5	93.7	94.1	28.0	34.1
35-39	65.7	68.5	94.5	95.1	35.3	41.1
40-44	67.9	70.6	93.5	94.5	40.4	45.4
45-49	67.8	69.6	91.4	92.8	43.6	45.2
50-54	64.8	66.3	87.1	88.4	42.9	44.4
54-59	56.9	60.1	77.5	79.8	38.8	41.8
60세 이상	28.3	33.3	45.6	49.5	17.2	22.6

자료: 통계청(1992),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경제활동편.

통계청(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경제활동편.

이에 비해 여성의 연령별 유업율은 24세에서 1차 정점을 보인 이후에 25세 부터 하락하여 30-34세 연령층에서 저점을 기록한 뒤에, 35세 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40-44세 연령층에서 2차 정점을 보인다. 즉, 여성의 연령별 유업율곡선은 전형적인 M자형을 보인다. 그러나 저점을 보인 연령대가 1990년에 25-29세에서 1995년에는 30-34세 연령층로 지연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晩婚化와 이에 따른 첫 자녀 평균출산연령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0-1995년 동안 성별 연령계층별 유업율의 변동추이를 보면, 15-19세 연령층의 유업율은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하락은, 상급학교에 대한 진학을 증대와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없는 체계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에 기인한다. 유업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층은 60세 이상(5.0% 포인트 증가)과 25-29세(5.0% 포인트)이었고, 그 다음은 54-59세(3.2% 포인트), 30-34세(3.1% 포인트)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60세 이상과 20-24세 연령층이 각각 1990년 45.6%, 40.2%에서 1995년 49.5%, 43.8%로 3.9% 포인트, 3.6% 포인트 증가된 것 이외에는 소폭 증감을 하였다. 이에 비해서 여성은 25-29세 연령층이 9.6% 포인트, 30-44세 연령층이 약 5.5-6.5% 포인트, 60세 이상이 5.4% 포인트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5-19세 연령층의 여성유업율은 5.2%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교육정도별로 유업율을 보면 중졸의 유업율은 각각 40.1%로서 학력집단 중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중졸을 제외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인력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유업율은 중졸 이하는 50-60% 수준을 유지하다가, 고졸이상은 80-95%수준을 보였다. 여성의 유업율을 보면 고졸 이하 여성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의 유업율이 가장 높아서 41.6%이었다. 이에 비해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여성유업율은 각각 45.5%, 62.3%를 나타내었다.

혼인상태별 유업율을 보면 남성은 기혼의 유업율이 미혼보다 높은 반면에, 여성은 미혼 유업율이 기혼보다 높았다. 남성의 경우 미혼이나 사별한 남성집단의 유업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혼남성의 대부분은 15-29세 연령층이고 사별한 남성의 대부분은 고령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남성의 역 U자형의 연령별 유업율과 상응한다.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이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가구주인 이혼여성의 유업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미혼여성의 유업율은 유배우 및 사별한 여성의 유업율보다 높았다.

연령계층별 혼인상태별 여성유업율 추이를 보면, 미혼여성의 유업율은 25-29세 연령층에서 72.4%로 가장 높아졌다가,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45-49세에는 64.5%를 기록한 이후에 50-54세, 55-59세에 각각 51.5%, 46.5%를 기록한 이후에 60세 이상 연령층은 25.8%로 낮아진다. 기혼여성의 유업율은 15-19세 연령층에서 30.6%를 기록한 이후에 하락하여 25-29세 연령층에서 25.6%를 보인 이후, 다시 증가하여 40-44세때 45.4%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다시 하락하였다.

가구주 여부별 여성유업율을 보면, 가구주인 여성의 유업율은 52.4%로서 비가구주인 여성 유업율 34.1%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남성과 비교하면 여성가구주의 유업율은 남성가구주의 유업율(87.4%)보다 훨씬 낮은 반면에 여성 비가구주의 유업율은 남성 비가구주의 유업율(39.8%)과 비슷하였다.

<표 IV-6> 인적특성별 남녀 유업율

(단위: %)

	전 체	남 자	여 자
학력별			
무 학	36.6	54.0	31.4
초 졸	50.9	65.2	41.6
중 졸	40.1	53.6	28.0
고 졸	61.2	83.9	38.6
대 졸	72.9	89.3	45.5
대학원졸	87.7	94.3	62.3
혼인상태별			
미 혼	41.0	41.6	40.3
기 혼	60.3	86.6	35.2
유배우	61.9	88.0	36.0
사 별	30.6	42.8	29.1
이 혼	68.4	77.1	61.5

주: 대졸통계에는 전문대졸이 제외되었음.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여성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유업율을 보면, 25-29세 연령층을 정점으로 하는 단봉형을 보였다. 이를 남성 가구주와 비교하면 15-25세 연령층까지는 남녀 유업율이 거의 같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25-30% 포인트 정도로 차이가 난다. 여성 비가구주의 연령별 유업율곡선은 20-24세를 1차 정점 그리고 50-54세를 2차 정점으로 하는 M자형을 보였다. 이러한 여성 비가구주의 유업율은 15-24세까지는 남성보다 오히려 높았으나, 25세 이후에는 남성유업율보다 훨씬 낮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업의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인력활용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7> 연령계층별 인적특성별 여성의 유업율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전 체
혼인상태별											
미 혼	9.2	59.0	72.4	68.6	68.0	69.1	64.5	51.5	46.5	25.8	40.3
기 혼	30.6	27.3	25.6	32.0	40.1	45.4	45.3	45.3	42.1	23.1	35.2
가구주여부별											
가구주	28.5	68.8	76.1	66.3	68.0	67.3	63.7	56.9	50.1	29.8	52.4
비가구주	8.8	51.5	36.1	32.1	38.3	42.6	41.9	42.9	39.	20.6	34.1

자료: 통계청(1992,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경제활동편.

제2절 여성취업자의 고용구조

1.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지위

1995년 현재 전체 취업자수는 17,988,286명이고, 이 중에서 여성이 6,334,117명으로 여성비율은 35.2%이었다. 그리고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기업주가 전체 취업자의 7.2%(1,289천명), 자영업자가 22.0%(3,875천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0.7%(1,889천명) 그리고 임금근로자가 60.1%(10,932천명)였다.¹⁵⁾ 지난 1990-1995년 사이의 종사상지위별 취업구조 변화를 보면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큰 변동이 없는 반면에, 자영업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기업주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기업주, 자영업자,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낮았다.¹⁶⁾ 또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에 있어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기업주는 15.2%, 자영업자 25.1%, 임금근로자는 31.0%이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88.0%에 달했다. 지난 1990년과 성별 종사상지위별 취업구조를 비교하면 기업주,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에 있어서도 여성비율이 증가하였다.

학력별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지위를 보면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여성취업자의 비율이 높아져, 초등학교졸업 이하 여성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30% 이하인데 비해서 전문대졸 이상은 80%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주비율도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높았다. 이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나 자영업자의 비율은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높아져, 초졸이하는 각각 48%와 30%내외의 수준에 달했다. 이와같은 학력별 종사상지위구조는 남성도 비슷하였으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자영업자와 기업가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무급가족종사자비율은 낮았다.¹⁷⁾

15) 종사상지위별 분포의 백분비 계산에서 종사상지위가 미상(unknown)인 729명을 제외하고 산정했음.

16)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여성 기업주는 195,421명이었고, 여성 자영업자 972,403명,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1,663,392명 그리고 여성 임금근로자가 3,502,715명이었다.

17) 남성 無學취업자의 75.1%가 자영업자, 4.0%가 무급가족종사자인데 비해서, 대졸이상집단 중에서 기업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보다 훨씬 높은 14.7%이었다.

<표 IV-8> 성별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단위: %)

	전 체	남 자	여 자	여성비율
1990				
기업주	5.4	7.0	2.2	13.9
자영업자	24.2	21.3	17.0	23.6
무급가족종사자	10.6	11.5	26.7	84.3
임금근로자	59.7	60.2	54.1	30.5
전 체	100.0	100.0	100.0	33.6
1995				
기업주	7.2	9.4	3.1	15.2
자영업자	21.5	24.9	15.4	25.1
무급가족종사자	10.5	1.9	26.2	88.0
임금근로자	60.8	63.8	55.3	31.0
전 체	100.0	100.0	100.0	35.2

자료: 통계청(1992,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경제활동편.

<표 IV-9> 학력별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단위: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기업주	0.4	1.5	3.5	3.7	3.6	6.0
자영업자	34.7	20.0	18.3	11.3	7.5	8.0
무급가족종사자	48.3	47.6	33.2	16.4	6.6	5.7
임금근로자	16.5	31.0	45.0	68.6	82.3	80.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연령계층별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지위분포를 보면, 15-24세 미만 여성취업자의 94% 내외가 임금근로자이다. 그러나 연령이 높은 취업집단일수록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낮아져서, 35-39세 연령층에서는 임금근로자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비해 고연령 여성취업집단일수록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져서, 60세이상 여성취업자 중에서 50.1%는 무급가족종사자이고 35.9%는 자영업자이다. 또한 기업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집단은 35-49세 연령층이었다.

<표 IV-10> 여성취업자의 연령계층별 종사상지위별 구조

(단위: %)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전체
연령계층별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지위분포											
기업주	0.1	0.5	2.2	4.5	5.5	5.5	5.1	3.5	2.2	1.1	3.2
자영업자	0.5	2.0	8.1	15.3	17.6	19.1	19.8	21.8	23.9	35.9	15.9
무급가족종사자	3.9	3.6	12.4	26.2	30.1	31.8	35.1	41.0	49.2	50.1	26.9
임금근로자	95.4	93.9	77.4	54.0	46.7	43.6	40.0	33.8	24.7	13.0	54.1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종사상지위별 여성취업자의 연령계층분포											
기업주	0.1	2.5	8.8	16.4	23.3	18.9	14.0	8.2	4.7	3.1	100.0
자영업자	0.1	2.1	6.5	11.1	14.8	13.2	10.8	10.3	10.0	21.0	100.0
무급가족종사자	0.4	2.3	5.8	11.3	14.9	13.0	11.3	11.5	12.2	17.3	100.0
임금근로자	4.7	29.0	18.1	11.5	11.5	8.8	6.4	4.7	3.0	2.2	100.0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이와 같은 연령계층별 종사상지위별 취업구조는 각 종사상지위별 여성취업자의 연령분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여성임금근로자의 51.8%가 30세 미만이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대체로 30세부터 60세 이상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에 비해 기업주는 56.2%가 35-49세의 중년여성이었다. 종사상지위별 남성취업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남성 임금근로자는 30-44세가 49.4%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평균연령이 높았다. 그리고 남성무급가족종사자는 여성과는 달리 대부분이 30-34세 연령층이 많았다.(64.9%). 그러나 남성 자영업자와 기업주의 연령분포는 여성과 거의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령계층별 분포는, <표 IV-10>에서 보듯이 종사상지위별 여성취업자의 혼인상태별 분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즉, 임금근로자를 보면 남성은 임금근로자의 73.6%가 유배우인데 비해서 여성은 46.2%가 미혼이다. 즉, 임금근로자로서 일하는 기혼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와는 반대로, 남성 무급가족종사자의 60.6%는 미혼인데 비해서 여성은 94.0%가 유배우이다. 또한 여성 자영업자 중에는 사별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2.7%로서 남성의 1.9%에 비해서 훨씬 높다.

<표 IV-11>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단위: %)

	기업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남성	100.0	100.0	100.0	100.0
미혼	24.5	4.8	4.3	60.6
유배우	73.6	92.2	94.1	35.2
사별	0.8	1.9	0.7	2.6
이혼	1.1	1.1	1.0	1.5
여성	100.0	100.0	100.0	100.0
미혼	46.2	6.2	12.6	2.5
유배우	43.9	57.9	68.5	94.0
사별	7.5	32.7	12.5	3.3
이혼	2.3	3.3	6.3	0.2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은 임금근로자의 취업기회를 얻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적게 소요되어 창업이 쉬움에 따라, 이와 같이 자영업자 중에서 남편의 사별로 인해서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주의 경우에도 남성은 94.1%가 유배우 남성인데 비해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미혼과 사별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종사상지위별 여성취업자의 취업업종을 보면, 여성 기업주의 대부분(44.1%)은 숙박 및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많은 업종은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29.2%), 도소매업(17.4%)이었다. 이에 비해 남성기업주는 여성기업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조업(남성기업주의 26.1%), 건설업(13.4%)에 속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주 비율이 높았다.

<표 IV-12> 종사상지위별 여성취업자의 업종별 분포

(단위: %)

	기업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3	34.1	59.3	1.1
제조업	6.1	4.4	6.2	30.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0	0.0	0.0	0.2
건설업	0.8	0.5	0.8	3.3
도매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점	17.4	29.5	18.8	13.6
숙박 및 음식점업	44.1	15.8	9.9	8.6
운수, 창고 및 통신업	0.5	0.2	0.2	2.6
금융 및 보험업	0.4	0.7	0.0	9.1
가사서비스업	0.1	0.7	0.0	1.4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29.2	14.1	4.6	3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여성 자영업자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34.1%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도소매업 (29.5%), 숙박업,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에 상당수가 종사하였다. 이와 같은 업종별 분포는 남성과 유사하나, 남성은 단지 금융보험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남성자영업자의 6.9%). 무급가족종사자는 대부분(59.3%)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도 상당수 있었다. 여성 임금근로자는 제조업,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나, 금융보험업에도 9.1%가 일하고 있었다.

종사상지위별 여성취업자의 취업직종을 보면 여성기업주의 63.3%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자이고, 입법공무원 및 고위임직원, 관리자는 11.4%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남성기업주는 36.7%가 입법공무원 및 고위임직원이고 29.2%만이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성기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속성이 대부분 영세하고, 숙박음식업이나 도소매업에 속하는데 기인한다.

<표 IV-13> 종사상지위별 여성취업자의 직종별 분포

(단위: %)

	기업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임법공무원, 고위임직자, 관리자	0.3	0.3	11.4	0.1
전문가	9.7	1.8	5.8	0.4
기술공 및 준 전문가	13.7	4.1	11.4	1.2
사무직원	25.0	0.5	2.7	4.0
서비스근로자, 상점과 시장판매자	19.9	51.6	63.3	28.1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0.5	34.0	1.2	59.1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11.0	3.9	2.9	4.1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8.0	0.7	0.6	1.2
단순 노무직 근로자	11.9	3.1	0.8	1.9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남녀 무급가족종사자를 보면 약 90%가 농어업숙련근로자, 서비스근로자, 상점 및 시장 판매자이었다. 여성 임금근로자는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무직원과 서비스 및 상점과 시장판매자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생산관련직에서는 남성에 비해서 기능원,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비율은 높았다. 전문관리직에서는 여성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준전문가의 비율은 낮은 반면에 전문가의 비율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2. 여성취업자의 업종별 고용구조

취업자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1차산업에 16.1%, 2차 산업에 23.8% 그리고 3차 산업에 60.1%가 종사하고 있었다. 성별로 1차: 2차: 3차 산업의 분포를 보면, 남성은 13.2%: 25.9%: 60.9%인데 비해서 여성은 21.5%: 19.8%: 58.7%였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 비율은 훨씬 높는데 비해서, 2차 산업 취업자비율은 훨씬 낮았다.

업종별 남녀취업자의 분포를 좀 더 세분해서 보면, 남성취업자의 주요 취업업종은 제조업(3,023천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업(1,881천명), 건설업(1,406천명), 농업(1,401천명), 운수,

창고 및 통신업(859천명), 부동산 및 임대사업서비스업(580천명)이었다. 이에 비해서 여성 취업자의 주요 취업업종은 농업(1,318천명), 제조업(1,255천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업(1,111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692천명), 교육서비스업(490천명), 금융 및 보험업(321천명)이었다. 또한 남녀취업자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여성취업자는 남성에 비해서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업자 중에서 여성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보면 가사서비스업이 가장 높아서 여성비율이 90.6%에 달했다. 그 다음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1.9%), 숙박 및 음식점업(61.7%), 교육서비스업(52.8%), 금융 및 보험업(50.4%), 농업(48.5%) 순이었다.

<표 IV-14> 성별 취업자의 업종별 분포

(단위: %)

	전 체	남 자	여 자	여성비율
농업, 수렵업 및 임업	15.1	12.0	20.8	48.5
어업	0.8	0.9	0.6	25.8
광업	0.2	0.3	0.1	9.1
제조업	23.8	25.9	19.8	29.3
전기, 가스 및 수도업	0.5	0.6	0.1	9.6
건설업	8.6	12.1	2.1	8.5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16.6	16.1	17.6	37.1
숙박 및 음식점업	6.2	3.7	10.9	61.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5.3	7.4	1.5	10.1
금융 및 보험업	3.5	2.7	5.1	50.4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4.3	5.0	3.0	24.9
공공행정	3.8	4.8	1.9	17.8
교육서비스업	5.2	3.8	7.7	52.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7	1.0	3.0	61.9
기타 공공, 사회, 개인서비스업	4.0	3.5	4.8	42.8
가사서비스업	0.3	0.0	0.9	90.6
국제 및 외국기관	0.1	0.1	0.1	22.2

자료: 통계청(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경제활동편.

여성취업자의 학력별로 취업업종을 구분해서 보면, 무학인 취업여성은 76.0%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졸업 취업여성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비율이 49.3%로 가장 높으나, 무학인 취업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높았다. 중졸 취업여성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27.8%로 가장 높았고,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율도 각각 20.3%, 19.6%로 높았다. 고졸 취업여성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가장 높았고,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율도 20.4%에 달했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취업여성은 대부분이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였다. 즉, 농림어업은 초졸이하, 숙박업은 중졸,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고졸, 그리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초대졸 여성의 취업업종임을 알 수 있다.

<표 IV-15> 교육정도별 여성취업자의 업종별 분포

(단위: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76.0	49.3	16.8	4.0	1.2	0.6
제조업	6.8	17.5	27.8	23.1	12.8	8.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0	0.0	0.0	0.2	0.3	0.2
건설업	1.1	1.7	1.5	2.9	3.0	1.7
도매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점	5.9	11.1	19.6	25.6	15.5	12.8
숙박 및 음식점업	5.3	12.5	20.3	11.9	5.1	2.9
운수, 창고 및 통신업	0.3	0.3	0.6	2.2	3.1	2.8
금융 및 보험업	0.3	1.2	3.0	9.2	6.9	5.0
가사서비스업	1.0	1.4	1.5	0.4	0.9	0.5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¹⁾	3.2	5.0	8.9	20.4	51.1	65.0
전업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등의 업종을 포함.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업종을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¹⁸⁾, 여성 제조업 종사자는 대부분 '음식료품 제조업',

18)업종분류 소분류(3-digit classification).

'섬유제품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정용기구 제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¹⁹⁾ 이와 같은 제조업 종사업종도 취업여성의 학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제조업 종사업종 중에서 무학인 여성은 주로 음식료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초졸 및 중졸 여성은 '섬유제품 제조업'과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졸여성은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리고 대졸 이상은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선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여성들은, 주로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특히 초대졸 이상 취업여성의 35.4%는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연령계층별 여성유업자의 종사산업분포를 보면, 30세 미만 여성유업자 중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유업자는 5%도 되지 않으나 연령과 함께 동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유업자는 77.5%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율도 연령과 함께 증가하였다. 즉, 30세 미만에는 해당 연령대 여성취업자의 3% 미만이 가사서비스부문에 종사했으나,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45-49세 연령층에서는 1.7%가 되었다.

이에 비해 제조업, 도소매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 비중은 연령과 함께 계속해서 감소하는 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는, 동 부문에 종사했던 여성비율이 15-19세 연령층에서는 6.2%이었다가 35-49세에서는 18.0% 내외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연령계층별 여성취업자의 업종분포는, 우리 나라 여성은 연령계층별로 경제활동하는 혹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50세 이후의 장노령층여성은 농림어업, 중장년층 여성은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30세 미만 미혼여성은 나머지 업종들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남성취업자의 연령별 취업구조는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변동이 적었다.

19)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취업자는 대부분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정용기구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표 IV-16> 세부업종별 여성취업자의 분포

(단위: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대졸이상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	74.8	47.8	16.0	3.7	0.8
임업 및 관련 서비스업	0.0	0.0	0.0	0.0	0.0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	1.2	1.4	0.8	0.2	0.0
석탄광업	0.0	0.0	0.0	0.0	0.0
금속광업	0.0	0.0	0.0	0.0	0.0
기타 광업 및 채석업	0.1	0.1	0.0	0.1	0.0
음식료품 제조업	1.6	2.8	2.6	1.9	0.8
섬유, 의복제품제조업	0.8	2.5	4.1	2.4	0.7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	3.1	7.2	4.2	1.7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0.4	1.2	1.9	0.8	0.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0.1	0.2	0.3	0.2	0.1
펄프, 종이제품 제조업	0.2	0.2	0.4	0.4	0.1
출판, 인쇄, 기록매체 제조업	0.0	0.2	0.4	1.3	2.2
코크스, 석유정제업	0.0	0.0	0.0	0.1	0.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2	0.3	0.6	1.3	0.7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0.3	0.5	0.6	0.4	0.1
비금속제품	0.3	0.6	0.6	0.5	0.2
제1차금속산업	0.1	0.2	0.2	0.3	0.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0.3	0.7	0.9	0.8	0.2
달리분류않된 가정용기구 제조	0.3	0.7	1.2	1.5	0.7
사무, 회계용 기계 제조업	0.0	0.1	0.2	0.3	0.1
달리 분류않된 전기기계 제조	0.1	0.4	0.6	0.6	0.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0.3	1.1	2.4	3.2	0.7
의료, 정밀광학기기, 시계제조	0.0	0.2	0.4	0.4	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3	0.9	1.1	1.0	0.4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대졸이상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1	0.2	0.2	0.4	0.2
가구 및 기타 제조업	0.4	1.4	1.9	1.4	0.5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0.0	0.0	0.0	0.0	0.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0.0	0.0	0.0	0.1	0.2
수도사업	0.0	0.0	0.0	0.0	0.0
건설업	1.1	1.7	1.5	2.9	2.2
자동차판매,수리 및 연료소매	0.1	0.3	0.6	1.1	0.5
도매 및 상품중개업	0.4	1.1	2.2	4.7	3.6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	5.4	9.7	16.9	19.8	10.2
숙박 및 음식점업	5.3	12.5	20.3	11.9	3.8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	0.2	0.2	0.3	0.7	0.3
수상운송업	0.0	0.0	0.0	0.1	0.1
항공운송업	0.0	0.0	0.0	0.1	0.7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	0.1	0.1	0.1	0.6	0.9
통신업	0.0	0.0	0.1	0.8	1.0
금융업	0.1	0.2	0.3	3.1	2.6
보험 및 연금업	0.2	1.0	2.7	5.6	2.8
금융관련 서비스업	0.0	0.0	0.0	0.4	0.4
부동산업	0.4	0.5	0.3	0.6	0.5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0.0	0.1	0.3	0.7	0.5
정보처리 및 관련 서비스업	0.0	0.0	0.0	0.2	0.7
연구 및 개발업	0.0	0.0	0.0	0.1	0.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0.5	0.7	0.8	2.6	3.1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0.4	0.4	0.4	2.6	4.6
교육서비스업	0.1	0.4	0.8	3.4	35.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3	0.6	0.7	3.2	8.5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0.1	0.1	0.1	0.1	0.1
회원단체	0.4	0.3	0.5	1.1	2.3
오락, 문화, 운동관련 산업	0.2	0.4	0.8	1.7	2.1
기타 서비스업	0.7	1.3	4.2	4.0	1.0
가사 서비스업	1.0	1.4	1.5	0.4	0.7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0.0	0.0	0.0	0.1	0.1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표 IV- 17> 연령계층별 여성취업자의 업종분포

(단위:%)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2.8	1.8	4.5	9.8	13.1	17.5	25.7	40.2	57.1	77.5
제조업	32.9	25.1	19.0	18.7	21.4	21.5	19.5	15.3	10.7	4.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2	0.3	0.2	0.1	0.0	0.1	0.0	0.0	0.0	0.0
건설업	4.3	4.3	2.6	1.4	1.4	1.5	1.9	1.9	1.3	0.5
도매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점	21.6	19.5	18.9	20.7	21.4	19.5	17.5	14.8	11.1	7.0
숙박 및 음식점업	6.2	4.7	6.9	13.0	16.9	18.9	18.0	14.2	9.2	4.0
운수, 창고 및 통신업	2.4	3.2	2.5	1.4	1.5	0.9	0.7	0.5	0.4	0.2
금융 및 보험업	8.1	7.7	7.4	6.9	5.3	4.1	3.4	2.4	1.8	0.9
가사서비스업	0.2	0.3	0.3	0.6	1.1	1.5	1.7	1.5	1.2	0.9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21.3	33.2	37.7	27.4	17.9	14.6	11.8	9.2	7.2	4.4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미혼과 유배우의 취업업종을 보면 미혼과 유배우에 있어서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남성취업자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여성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금융업,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별한 남녀취업자의 업종분포를 보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제조업, 도소매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혼한 남녀취업자를 보면 이혼여성은 도소매숙박업을 운영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 특이한 점은 이혼한 남녀취업자를 보면, 남성은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은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미혼남성은 미혼여성에 비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비율이 훨씬 높았다.

<표 IV-18>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의 업종분포

(단위: %)

	남 성				여 성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6.9	14.5	38.6	13.1	1.4	28.2	42.6	3.6
제조업	34.5	23.8	13.2	20.9	23.3	17.5	14.7	17.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6	0.6	0.2	0.3	0.2	0.1	0.1	0.1
건설업	11.3	12.1	14.4	22.8	4.0	1.4	1.7	1.5
도매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점	18.5	15.8	10.1	14.4	18.9	18.3	11.2	14.8
숙박 및 음식점업	4.3	3.6	2.3	4.3	6.3	11.7	16.3	37.8
운수, 창고 및 통신업	5.3	7.9	4.6	9.8	3.2	1.0	0.4	0.8
금융 및 보험업	2.9	2.7	0.8	0.5	7.1	4.7	2.4	4.2
가사서비스업	0.1	0.0	0.1	0.1	0.3	0.8	2.3	4.2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15.5	18.9	15.9	13.9	35.3	16.4	8.3	15.5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3. 여성취업자의 직종별 고용구조

취업자의 직종구조를 보면,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에 5.7%(763천명)가 종사하고 있고, 생산관련직에 31.8%(5,688천명), 사무직원에 11.7%(2,089천명), 서비스근로자에 19.8%(3,538천명) 그리고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에 15.6%(2,793천명)가 종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직종구조를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남성취업자는 24.5%가 관리자·전문가·준전문가, 37.9%가 생산관련직인데 비해서, 여성취업자는 27.9%가 판매 및 서비스근로자, 21.0%가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이었다.²⁰⁾ 또한 직종별 여성취업자 비율을 보면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자의 여성비율이 가장 높아서 50.0%이었고, 그 다음은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47.6%), 사무직원(45.6%), 전문가(35.6%) 순이었다. 그러나 입법공무원 및 고위임직원, 관리자의 여성비율은 5.1%에 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생산직종에서도 남성은 상대적으로 숙련공인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인 비중이 높는데 비해서 여성은 단순노무직근로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남녀직종격리(occupational segregation by sex)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0) 직종별 여성취업자수를 보면 여성 입법공무원 및 관리자가 38,854명, 전문가 366,227명, 기술공 및 준전문가 567,724명, 사무직원 953,133명,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근로자 1,767,678명, 여성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1,329,572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499,059명,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346,044명 그리고 단순노무직근로자가 464,788명이었다.

<표 IV-19> 성별 취업자의 직종별 분포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여성비율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자, 관리자	4.3	6.3	0.6	5.1
전문가	5.7	5.7	5.8	35.6
기술공 및 준 전문가	11.2	12.5	9.0	28.2
사무직원	11.7	9.8	15.1	45.6
서비스근로자, 상점과 시장판매자	19.8	15.3	27.9	50.0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15.6	12.6	21.0	47.6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13.8	17.1	7.9	20.2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1.2	14.3	5.5	17.3
단순 노무직 근로자	6.8	6.5	7.3	38.2

자료: 통계청(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경제활동편.

여성취업자의 업종별 직종별 취업구조를 보면, 농림어업에서 농어업종사 숙련근로자로서 일하는 여성비율이 가장 높아서 21.5%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도소매 및 소비용품 수리점에서 서비스 및 판매직으로 종사하는 여성비율(12.9%), 숙박 및 음식업에서 서비스 및 판매직으로 일하는 여성비율(10.2%), 제조업의 기능근로자(6.9%),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의 기술공 및 준전문가(5.8%), 전문가(5.4%) 순이었다.

이에 비해 남성취업자는 12.7%가 농림어업에서 농어업종사 숙련근로자로 일했고, 도소매 및 소비용품 수리점에서 서비스 및 판매직종사자(9.4%), 제조업에서 기능근로자(8.0%), 기계조작원 및 조립공(6.7%), 운수창고통신업에서 기계조작원 및 조립공(4.6%),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에서 기술공 및 준전문가(4.9%), 전문가(4.3%)로 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남녀 취업자의 업종 및 직종별 취업구조를 비교해 보면, 여성취업자는 남성에 비해서 상당히 제한된 업종과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0> 업종별 직종별 여성취업구조

(단위: %)

	입법 공무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직원 및 판매직	서비스 및 종사 숙련직	농어업 기능 근로자	기계 조작원 조립공	단순 노무자	소계
농업, 임업, 어업, 광업	0.0	0.0	0.0	0.1	0.0	21.5	0.0	0.3	22.1
제조업	0.1	0.2	1.1	3.6	1.0	0.0	6.9	4.5	18.8
전기, 가스, 수도사업	0.0	0.0	0.0	0.1	0.0	0.0	0.0	0.0	0.1
건설업	0.0	0.0	0.1	1.1	0.1	0.0	0.3	0.4	2.1
도매소매, 소비용품수리점	0.1	0.2	0.6	2.7	12.9	0.0	0.3	0.8	17.6
숙박 및 음식점업	0.1	0.0	0.0	0.5	10.2	0.0	0.0	0.4	11.2
운수, 창고 및 통신업	0.0	0.0	0.1	1.0	0.1	0.0	0.1	0.1	1.5
금융 및 보험업	0.0	0.0	0.9	2.0	0.1	0.0	0.0	2.0	5.1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0.2	5.4	5.8	3.7	4.0	0.1	0.1	1.3	20.6
가사서비스업	0.0	0.0	0.1	0.0	0.2	0.0	0.0	0.6	0.9
소계	0.6	5.9	8.7	14.8	28.5	21.6	7.7	7.5	100.0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연령계층별 여성취업자의 직종분포를 보면, 고졸이하의 저학력인 15-19세 취업여성의 대부분은 사무직원, 서비스 및 판매직근로자이었다. 그러나 20-29세 연령층 여성취업자는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판매직 및 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율은 30-49세 연령층의 취업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아져, 대략 35-40%에 달했다.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의 비율이 높은 연령층은 55세 이상으로, 이들 연령에서는 55%-75% 정도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이 비율은 높았다. 생산직중에서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은 40-54세 연령층 취업여성이었고, 기능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은 35-44세 연령층이었다.

<표 IV-21> 연령계층별 여성취업자의 직종분포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자, 관리자	0.0	0.1	0.5	0.8	0.9	1.0	0.9	0.8	0.5	0.3
전문가	0.3	6.4	13.5	11.0	5.5	4.2	3.2	2.1	1.5	0.7
기술공 및 준 전문가	8.1	18.0	19.1	10.8	6.5	4.2	2.8	1.9	1.1	0.7
사무직원	48.7	42.0	25.9	11.5	7.1	4.3	2.9	1.6	0.7	0.2
서비스근로자, 상점 시장판매자	22.0	19.4	23.4	34.3	39.9	40.4	37.6	30.0	21.9	11.4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2.4	1.6	4.3	9.6	12.8	17.1	25.2	39.6	56.3	76.2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6.9	5.2	6.0	9.9	11.3	11.3	9.6	7.9	5.8	2.5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1	5.4	3.2	4.5	6.1	6.8	6.3	4.3	2.4	0.8
단순 노무직 근로자	2.5	1.9	4.1	7.6	9.9	10.8	11.5	11.7	9.8	7.1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남성취업자는 15-19세 연령층에서 생산직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아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기계조작원 및 조립공의 비율이 해당 연령층 남성취업자의 각각 29.6%, 25.4%이었다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낮아졌다. 다만 단순노무직근로자의 비율은 45세 이상 연령이 가장 높아서 10%를 넘었다.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직원은 25-39세 연령층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40-54세 연령층이 가장 높았는데, 이것은 승진과 자본축적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이와 같은 직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별 여성취업자의 취업직종은 혼인상태별 취업직종에도 반영되어서, 미혼 남녀취업자를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 비율이 오히려 높다. 그러나 유배 남녀취업자를 보면 남성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와 그리고 생산직종에서 기능직근로자, 기계조작공 및 조립공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사별 남녀취업자 직종별 취업구조를 비교하면, 여성은 농어업직과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나머지 직종은 남성보다 낮았다. 이혼한 여성취업자는 56%가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이고, 14.1%와 10.2%가 각각 단순노무직, 기능직근로자인데 비해서, 이혼한 남성취업자는 각 직종에 고루 취업되어 있었다.

<표 IV-22>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의 업종분포

(단위: %)

	남 성				여 성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자, 관리자	1.2	7.5	3.3	4.4	0.4	0.7	0.6	1.4
전문가	4.5	6.0	2.0	1.9	8.8	5.5	0.9	1.8
기술공 및 준 전문가	13.4	12.2	5.4	6.6	18.5	5.8	1.6	4.2
사무직원	12.7	9.1	3.4	4.3	39.0	6.7	1.0	4.6
서비스근로자, 상점과 시장판매자	15.0	15.5	10.2	14.6	20.5	31.0	29.4	55.8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6.4	13.9	37.4	12.2	1.2	27.9	41.3	3.3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22.3	15.6	12.0	23.3	4.9	9.0	7.6	10.2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7.9	13.3	7.7	16.2	4.7	4.9	4.0	4.6
단순 노동직 근로자	6.4	6.2	18.5	16.3	2.1	8.5	13.8	14.1
직업군인	0.2	0.7	0.1	0.1	0.0	0.0	0.0	0.0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학력별 여성취업자의 취업직종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취업여성은 대부분이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초졸이하 남성취업자도 동일하였다.²¹⁾ 중졸 여성취업자는 42.2%가 서비스 및 시장판매자이었고 생산관련직에 36.0%,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16.4%이었고, 중졸 남성취업자는 생산직(57.9%)과 농림어업직(17.3%), 서비스 및 판매직(15.7%)이었다. 그리고 고졸여성취업자는 서비스 및 판매직(36.6%)과 사무직(28.9%), 남성은 생산직(47.5%)과 서비스 및 판매직(19.4%)에 종사하고 있었다. 남녀 중고졸취업자의 종사직종을 세분해서 보면, 남성 기능근로자의 대부분은 추출 및 건축기능근로자,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인데 비해서, 여성은 식품가공, 섬유 의복 관련 등 기타 기능근로자가 대부분 이었다. 그리고 남성 장치 및 기계조작원은 대부분이 운전기사나 이동장치조작원인데 비해서 여성은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이었다. 또한 여성중고졸 취업자는 남성에 비해서 행상 및 단순서비스근로자로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1) 無學인 남성취업자의 74.4%, 초졸 남성취업자의 46.0%가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이었다.

<표 IV-23> 학력별 여성취업자의 직종별 분포

(단위: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자, 관리자	0.0	0.1	0.3	0.8	0.9	1.9
전문가	0.1	0.1	0.1	0.5	16.0	40.7
기술공 및 준 전문가	0.2	0.4	1.3	9.8	31.2	26.6
사무직원	0.2	0.8	3.6	28.9	28.0	16.4
서비스근로자, 상점과 시장판매자	11.6	25.0	42.2	36.6	17.3	10.9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74.6	48.6	16.4	3.8	1.1	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3.3	9.5	16.3	7.3	2.2	1.1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6	5.3	8.4	5.7	0.9	0.3
단순 노무직 근로자	8.3	10.2	11.3	6.7	2.4	1.6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초대졸 여성취업자는 기술공 및 준전문가(31.2%)와 사무직(28.0%), 대졸여성의 대부분은 전문가(40.7%), 기술공 및 준전문가(26.6%)이었다. 이에 비해 남성 초대졸은 기술공 및 전문가(24.0%), 생산직(26.0%), 대졸이상은 사무직원(25.1%), 전문가 및 준전문가(37.3%)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었다. 종사직종을 세분해서 보면, 초대졸 여성취업자 중에서 전문가, 관리직 및 준전문가는 대부분이 교육전문가, 교육준전문가,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이었는데 비해서, 남성은 종합관리자, 법인관리자, 교육준전문가,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였다. 이와 같이 대졸남성과 여성의 취업직종을 비교하면 여성은 전문직, 남성은 상대적으로 사무직비중이 높다. 이것은 승진을 통해서 사무직에서 관리직으로의 직종상향이동이 남성의 경우 용이한 반면에, 여성은 직종의 상향이동이 상당히 어려워서 대부분 전문가로 취업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여성 시간제취업자의 특성

1. 시간제근로자의 규모

우리 나라 노동법은 시간제근로자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자'(근로기준법 제21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센서스 자료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항목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근로자를 틈틈이 일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분석하였다.²²⁾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취업자의 17.9%가 시간제취업자이며, 특히 여성취업자의 20.4%가 시간제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비농림어업의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비율을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3.5%가 시간제로 일했다. 성별로는 남성 임금근로자의 1.2%, 여성 임금근로자의 8.0%가 시간제임금근로자이었다. 또한 시간제취업자의 90.6%, 시간제임금근로자의 76.7%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서, 시간제 고용형태가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24> 성별 시간제취업자의 현황

(단위: %)

	전체(A)	남자	여자(B)	여성 (B/A) 비율 *100
취업자	100.0	100.0	100.0	-
풀타임	92.1	98.8	79.6	30.5
시간제	17.9	1.2	20.4	90.6
임금근로자(비농림)	100.0	100.0	100.0	-
풀타임	96.5	98.2	92.0	31.6
시간제	3.5	1.2	8.0	76.7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

2.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고용구조

시간제유업자의 업종별 고용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농림어업 종사자이다. 특히 시간제취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시간제취업자의 45.3%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4> 참조).

이와 같은 현상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의 상당수가 가사와 일을 병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시간제근로자의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

22) 틈틈이 일한 사람은 '조사대상 기간 중에 가사통학, 기타 다른 활동을 하면서 지난 1개월 동안 4일 이상 15일 미만 수입있는 일을 한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지난 1개월동안 15일 이상 일은 하였지만 하루 4일 미만 일하면서 가사, 통학 등 다른 활동을 주로 한 사람'도 틈틈이 일 한 사람에 포함된다.

농림부문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만을 대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時間制 賃金勤勞者の 업종별 고용구조를 보면, 전체 시간제임금근로자의 31.9%가 제조업, 26.4%가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그리고 12.4%가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표 IV-25> 참조).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 시간제근로자는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46.0%)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비율이 가장 높은 데 비해서, 여성은 제조업(35.8%)이었다. 제조업과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대상으로 남녀 시간제근로자의 고용구조를 비교하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건설업(14.9%)하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데 비해서 여성은 숙박 및 음식점업(10.1%)과 금융·보험업(9.9%)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간제근로자의 직종별 고용구조를 보면, 전체 시간제근로자의 22.8%가 단순노무직이었고, 20.0%는 서비스근로자, 16.3%는 기능근로자 그리고 14.4%는 기술공 및 준전문가이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여성 시간제근로자는 단순노무직근로자, 서비스근로자, 기능근로자, 장치 및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이 대부분이었다. 즉, 여성시간제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와 서비스직 근로자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서 남성시간제근로자는 전문가(16.6%)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23.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25> 시간제취업자의 업종별 고용구조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농업,수렵업,임업,어업 및 광업	43.6	28.1	45.3
제조업	12.4	9.6	12.7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0	0.2	0.0
건설업	2.0	9.3	1.3
도매,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점	16.9	11.4	17.4
숙박 및 음식점업	8.0	5.7	8.2
운수, 창고 및 통신업	0.6	2.1	0.4
금융 및 보험업	2.3	1.1	2.4
가사서비스업	1.6	1.8	1.5
개인 및 사회 서비스업	12.7	30.8	10.8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표 IV-26> 시간제임금근로자의 업종별 고용구조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제조업	31.9	15.3	35.8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1	0.4	0.1
건설업	5.2	14.9	3.1
도매,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점	12.4	10.9	12.8
숙박 및 음식점업	9.2	5.7	10.1
운수,창고 및 통신업	1.5	2.8	1.2
금융 및 보험업	8.4	1.8	9.9
가사서비스업	4.7	2.5	5.2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26.4	46.0	21.8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이와 같은 직종별 구조는, 남성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상당수의 기업들은 전문기술에 대응하거나 기존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시간제고용형태를 활용하는 반면에, 여성시간제근로자는 바쁜 업무시간에 대응하는 등 업무대응이나 정규근로자의 대체채용을 목적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²³⁾

3.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인적특성

일반적으로 시간제고용형태를 선택하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제약이 있는, 기혼여성, 학생 그리고 고령자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시간제근로자의 연령계층별 분포를 보면, 시간제근로자의 대부분이 20-44세 연령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기업측이 시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김태홍(1994), p. 46- 48을 참조.

<표 IV-27> 시간제임금근로자의 직종별 고용구조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자, 관리자	0.5	1.1	0.4
전문가	7.3	16.6	5.2
기술공 및 준 전문가	14.4	23.3	12.3
사무직원	9.5	9.2	9.5
서비스근로자, 상점과 시장판매자	20.0	13.9	21.4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0.0	0.0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16.3	13.5	17.0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1	6.4	9.8
단순 노무직 근로자	22.8	15.8	24.4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이와 같은 연령별 분포만을 보면 우리 나라의 시간제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시간제고용형태를 취하는 근로자집단의 특성과 다르게 보이나, 성별로 구분해보면 시간제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성 시간제근로자의 54.3%는 15-29세에 속하고 22.0%는 30-54세 연령층이었다. 이와 같은 남성 시간제근로자의 연령별 구조는, 남성시간제의 상당수가 학생이고 또한 전문기술직 시간제근로자임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여성시간제근로자의 51.4%는 30-44세 연령층이고, 16.3%는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이러한 여성의 연령별구조는, 여성 시간제근로자는 대부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기혼여성이거나 혹은 고령자임을 나타낸다.

또한 시간제근로자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전체 시간제근로자의 70.8%가 고졸이하로서, 시간제고용형태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인력집단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성별로 보면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남성 시간제근로자의 33.7%가 학생이었으며, 특히 남성대학생 시간제근로자가 상당수 있었다. 그리고 남성 시간제근로자의 27.1%는 대졸자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여성시간제근로자는 중고졸이 57.2%, 초등학교졸업이하가 21.7%였고, 대졸자와 학생의 비율은 각각 10.1%, 7.0%로서 남성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다.

<표 IV-28> 성별 시간제근로자의 연령계층별 분포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15-19세	4.7	11.6	3.1
20-24세	12.8	23.9	10.3
25-29세	13.1	18.8	11.8
30-34세	16.4	10.5	17.7
35-39세	17.7	7.7	20.0
40-44세	12.5	5.8	14.0
45-49세	8.3	4.5	9.2
50-54세	5.8	4.0	6.2
54-59세	4.4	5.5	4.1
60세 이상	4.3	7.5	16.3
전연령층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시간제근로자의 혼인상태별 분포를 보면, 시간제근로자의 67.7%는 有配偶者이고 23.4%는 미혼, 그리고 6.8%는 사별, 2.1%는 이혼근로자였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남자 시간제근로자의 55.3%는 미혼인 반면에, 여자 시간제근로자의 74.0%는 유배우 그리고 7.9%는 사별이었다. 이와 같은 혼인상태별 구조는 남성 시간제근로자의 상당수가 학생인 반면에 여성 시간제근로자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연령층과 고령자가 많은데 기인한다.

<표 IV-29> 성별 시간제근로자의 학력별 분포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무 학	3.3	1.4	3.7
초 졸	16.1	8.0	18.0
중고졸	51.4	26.4	57.2
초대졸	3.9	3.3	4.0
대졸이상	13.3	27.1	10.1
학 생	12.0	33.7	7.0
(중고재)	(2.1)	(6.0)	(1.2)
(초대재)	(2.3)	(6.4)	(1.4)
(대 재)	(7.6)	(21.3)	(4.4)
전 체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표 IV-30> 성별 시간제근로자의 혼인상태별 분포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미 혼	23.4	55.3	16.0
유배우	67.7	40.6	74.0
사 별	6.8	1.9	7.9
이 혼	2.1	2.2	2.1
전 체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제4절 여성취업자와 통근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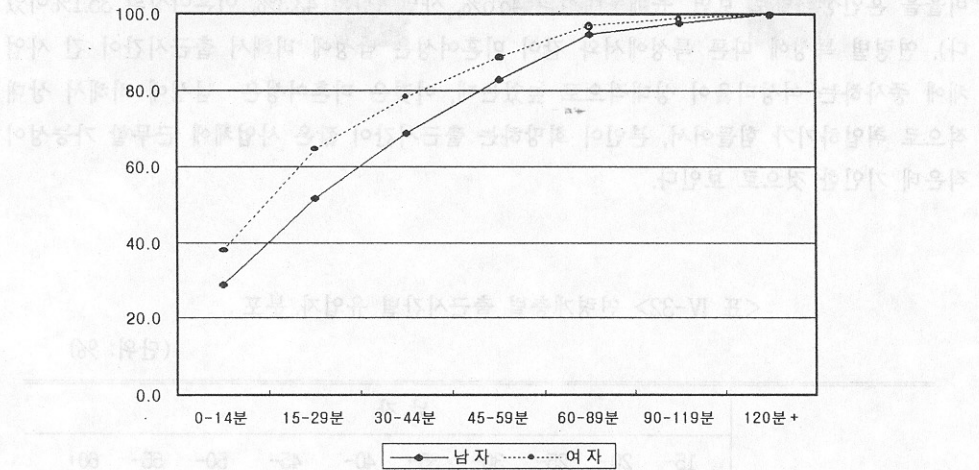
남녀 취업자의 출퇴근시간별 분포를 보면, 여성유업자의 출근시간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짧았다. 즉, 출근시간이 30분 미만인 여성유업자는 전체여성유업자의 64.6%인데 비해서 남성은 51.8%였다.

취업자의 경제활동상태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주로 일하거나’ 혹은 ‘자원활동과 같이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히 일하는’ 여성유업자는 동일한 유형의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에게 비해서 출근시간이 짧은 사업체에 근무하는 취업자 비율이 훨씬 높았다.(출근시간이 30분 미만인 여성비율은 각각 61.4%, 79.1%인데 비해서, 남성은 51.7%, 59.4%이었다). 이에 비해서 가사를 하면서 틈틈히 일을 하는 유업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출근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히 일하는 유업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상대적으로 출근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출근시간별 유업자의 분포를 인적특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30대 이상 여성유업자의 45% 내외가 출근시간이 15분 미만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여부가 출퇴근시간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물론 남성유업자도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출근시간에 의해서 경제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아서, 60세 이상 남성유업자의 47.4%가 출근시간이 15분 미만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15-24세 연령층 여성유업자는 동일한 연령의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근시간이 긴 사업체에 종사하는 유업자비율이 높았다.

<그림 IV-1> 출퇴근 시간대별 남녀유업자 누적분포

(단위 : %)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

<표 IV-31> 성별 출근시간대별 유업자 분포

(단위 : %)

	남 자					여 자				
	주로 일함	틈틈히 가사	틈틈히 학교	틈틈히 다른활동	유업자 전체	주로 일함	틈틈히 가사	틈틈히 학교	틈틈히 다른활동	유업자 전체
15분미만	28.6	56.9	13.9	39.1	28.7	34.9	59.9	12.3	51.2	38.1
15-30분미만	23.1	28.5	17.4	20.3	23.1	26.5	26.8	17.5	27.9	26.5
30-45분미만	17.2	7.3	22.6	7.8	17.1	14.8	5.9	15.8	2.3	13.6
45-60분미만	14.1	1.6	16.5	20.3	14.1	11.4	4.2	18.4	9.3	10.5
60-90분미만	11.8	4.1	20.9	6.3	11.8	9.1	2.6	21.9	2.3	8.3
90-120분미만	3.0	1.6	5.2	3.1	3.0	2.3	0.5	7.9	2.3	2.1
120분이상	2.2	0.0	3.5	3.1	2.2	1.1	0.2	6.1	4.7	1.0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

혼인상태별로 보면, 기혼여성은 기혼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근시간이 짧은 직장에 근무하는 유업자비율이 높았다.(출근시간이 15분 미만인 사업체에 근무하는 여성유업자의 비율을 혼인상태별로 보면, 유배우여성의 46.6%, 사별여성의 43.3%, 이혼여성의 35.1%이었다). 연령별 특성에 따른 특성에서와 같이 미혼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출근시간이 긴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것은 미혼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업하기가 힘들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출근시간이 짧은 사업체에 근무할 가능성이 적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32> 연령계층별 출근시간별 유업자 분포

(단위: %)

	남 자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15분미만	25.6	25.9	24.7	26.5	26.9	29.3	31.0	33.0	35.3	47.4
15-30분미만	26.0	26.9	24.2	23.1	21.9	21.8	22.4	21.9	21.9	25.2
30-45분미만	31.7	18.4	18.3	17.7	17.9	16.6	17.0	14.6	14.3	9.0
45-60분미만	10.6	13.0	15.0	15.0	14.8	14.9	13.2	13.7	12.2	7.7
60-90분미만	3.7	11.2	12.5	12.6	12.7	11.8	10.8	11.1	11.1	7.1
90-120분미만	0.7	3.0	3.5	3.0	3.2	2.9	3.1	2.9	2.7	2.1
120분이상	1.8	1.6	1.7	2.0	2.6	2.7	2.6	2.8	2.6	1.6
	여 자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15분미만	19.9	22.3	30.9	46.6	46.3	44.5	40.5	45.3	46.5	57.9
15-30분미만	31.1	27.2	24.2	24.8	26.2	26.6	27.8	27.1	29.4	26.4
30-45분미만	19.9	17.4	15.0	11.2	12.2	12.1	14.5	12.1	8.7	6.3
45-60분미만	15.0	14.9	12.8	9.0	7.8	9.1	8.7	8.4	7.5	4.7
60-90분미만	10.0	13.4	12.0	6.0	5.4	6.1	6.7	5.3	5.6	3.3
90-120분미만	3.0	3.1	3.2	1.5	1.5	1.2	1.5	1.1	2.1	0.8
120분이상	1.0	1.7	1.7	0.9	0.6	0.5	0.2	0.7	0.3	0.7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

유업자의 종사상지위별 출근시간대를 살펴보면, 예상했던대로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대부분이 출근시간이 15분미만이었다. 그리고 대체로 여성 임금근로자와 고용주는 남성에 비해서 출근시간이 짧았다.

<표 IV-33> 종사상지위별 출근시간별 유업자 분포

(단위: %)

	남 자					여 자				
	임금 근로자	자영 업자	고용주	무급 가족	유업자 전체	임금 근로자	자영 업자	고용주	무급 가족	유업자 전체
15분미만	22.1	52.3	33.1	60.5	28.7	28.7	60.1	47.1	65.0	38.1
15-30분미만	23.6	21.9	20.6	25.4	23.1	28.4	21.0	21.9	22.2	26.5
30-45분미만	18.7	10.9	17.4	6.8	17.1	16.0	8.3	11.1	6.2	13.6
45-60분미만	16.0	6.8	13.7	2.8	14.1	12.8	5.5	9.2	3.1	10.5
60-90분미만	13.7	4.8	10.3	3.0	11.8	10.3	3.6	7.5	2.3	8.3
90-120분미만	3.5	1.3	2.6	0.8	3.0	2.5	1.0	2.2	0.6	2.1
120분이상	2.3	1.9	2.4	0.8	2.2	1.1	0.6	1.0	0.6	1.0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

제5절. 여성의 지역별 고용구조

1. 지역별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지역별 남녀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대체로 6개 시도보다는 9개도의 유업율이 더 높았다. 6개시 중에서는 인천(53.6%), 서울(51.3%)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광주(47.3%)의 유업율이 가장 낮았다. 9개 도에서는 충남(61.3%), 전남(61.3%)의 유업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의 유업율(53.3%)이 가장 낮았다.

<표 IV-34> 지역별 남녀인구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전 지역			시 부			군 부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서울	51.3	70.6	33.4	51.3	70.6	33.4	-	-	-
부산	49.3	67.7	32.5	49.3	67.7	32.5	-	-	-
대구	49.6	69.1	31.9	49.6	67.1	31.9	-	-	-
인천	53.6	76.3	31.6	53.6	76.3	31.6	-	-	-
광주	47.3	65.1	30.5	46.3	65.1	30.5	-	-	-
대전	48.8	67.6	31.0	48.8	67.6	31.0	-	-	-
경기도	55.2	76.8	34.4	54.7	77.0	33.3	57.3	75.9	38.9
강원도	53.3	69.0	38.5	50.4	66.4	35.5	59.9	75.0	45.5
충북	54.9	70.7	39.9	50.2	67.8	33.3	62.6	75.6	50.6
충남	61.3	74.5	45.8	57.7	73.5	42.7	61.3	75.4	48.7
전북	53.9	69.0	40.5	50.4	66.8	35.5	67.8	77.5	59.5
전남	61.3	75.1	49.3	52.3	71.5	35.1	68.9	78.1	61.0
경북	58.6	74.5	44.3	56.0	73.0	40.6	66.4	79.1	55.6
경남	56.5	75.5	39.2	54.4	75.0	35.2	65.0	77.7	54.4
제주	61.2	73.1	50.9	57.4	72.0	44.8	67.9	75.1	61.8
전체	53.7	72.3	36.5	52.1	71.5	33.9	63.2	76.7	51.1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지역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6개 시에서 여성 유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33.4%)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30.5%)이었다. 9개 도에서는 제주의 유업율(50.9%)이 가장 높았고, 경기도(34.4%)가 가장 낮았다.

일반적으로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산업구조를 가진 시도는, 산업구조의 특성 때문에 2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큰 시도보다 높다. 따라서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서 유업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동부(urban sector)의 여성유업율을 보면 여성유업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44.8%), 충남(42.7%), 경북(40.6%) 등이었고, 낮은 지역은 광부(30.5%), 대전(31.0%) 등이었다. 읍면부(rural sector)에서는 제주, 전남, 전북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경기도의 여성유업율이 가장 낮았다. 즉, 동부와 읍면부를 불문하고 6개 시에 거주하는 여성은 9개 도에 비해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제주도는 동부와 읍면부를 불문하고 여성들의 유업율이 가장 높았고 경기도는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다.

<표 IV-35> 지역별 남녀 무직자의 무직사유별 분포

(단위: %)

	남 자				여 자			
	구직활동	가사	통학	기타	구직활동	가사	통학	기타
서 울	19.0	5.3	51.3	24.5	3.8	68.7	18.2	9.4
부 산	18.5	4.9	55.7	20.9	4.6	69.3	19.2	7.0
대 구	20.4	4.8	49.0	25.7	4.1	68.5	19.3	8.1
인 천	19.0	4.4	53.4	23.2	4.2	67.3	19.7	8.8
광 주	21.2	6.5	48.5	23.8	3.5	75.5	14.1	6.9
대 전	18.6	5.3	56.5	19.5	3.4	67.0	22.5	7.1
경기도	18.2	4.2	55.2	22.4	3.9	68.5	20.0	7.6
강원도	20.2	6.4	47.2	26.2	3.0	74.9	13.9	8.1
충 북	18.6	6.0	46.9	28.5	3.0	65.9	18.9	12.2
충 남	16.3	4.9	53.7	25.1	3.5	64.9	19.6	12.0
전 북	17.4	5.6	46.9	30.1	3.4	60.7	19.7	16.2
전 남	17.3	5.4	52.6	24.7	4.1	59.4	22.3	13.4
경 북	18.1	7.7	47.7	26.5	3.3	62.5	20.8	15.1
경 남	18.6	5.3	46.5	29.6	3.4	63.5	18.0	10.2
제 주	19.3	4.0	50.6	26.1	3.1	70.1	16.5	15.7
전 체	19.0	3.7	53.3	23.7	4.1	56.6	23.6	9.4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지역별 무업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 무업자는 여성에 비해서 구직활동, 통학, 기타(연로, 질병 등)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하고 있지 않은 남성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21.2%), 대구(20.4%), 강원도(20.2%) 등이었고, 이들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충남, 전남, 전북이었다.

여성무업자의 경우에는 구직으로 인해서 무직에 있는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4.6%), 인천(4.2%), 대구(4.1%), 전남(4.1%) 등이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강원도, 충북, 제주도 등이었다. 따라서 부산, 인천, 대구, 전남 등에서는 여성을 위한 고용안정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가사나 육아로 인해서 무직상태에 있는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광주, 강원도, 제주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에 여성취업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가사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실시하

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지역별로 연령계층별 여성의 유업율곡선을 보면, 모든 여성의 연령계층별 유업율 곡선은 M자형 곡선을 보였다. 그러나 M자형곡선의 저점을 보면 강원도,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에서는 저점이 25-29세 연령층에서 발생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결혼 및 출산연령이 늦어져, 저점이 30-34세 연령층에 발생되었다. 또한 M자형 곡선의 2차 정점을 이루는 연령대를 보면, 광주를 제외한 5개시, 경기도와 강원도는 40-44세에서 2차 정점을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50-54세 연령층에서 2차 정점을 보였다.

15-19세 연령층의 여성 유업율을 보면 대전과 경기도, 인천, 서울 등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15-19세 연령층의 유업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연령층에서 학생비율이 낮거나 혹은 학생이 시간제 등으로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1차 정점에서의 유업율과 저점에서의 유업율 차이를 지역별로 구하였다. 제1차 정점과 저점 간의 격차를 보면, 6개 시 중에서는 인천이 가장 커서 30.2% 포인트였고 그 다음은 부산(21.7% 포인트), 서울(20.9% 포인트)였다. 9개도 중에

<표 IV-36> 지역별 연령계층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서울	10.4	54.9	46.2	34.0	37.5	38.2	34.9	30.3	22.4	7.7
부산	9.9	54.3	40.4	32.6	39.0	41.6	38.6	35.1	26.3	8.1
대구	7.7	49.5	36.4	33.5	39.3	40.9	39.8	34.4	27.8	9.3
인천	11.3	57.3	33.2	27.1	35.4	41.6	39.1	35.9	26.7	11.2
광주	6.7	44.9	40.0	35.7	36.0	38.0	38.9	32.9	27.6	9.9
대전	18.2	46.0	39.4	34.1	37.6	39.7	36.1	31.1	27.3	8.5
경기도	12.8	57.4	34.9	30.5	39.2	46.0	43.4	41.7	32.3	13.9
강원도	6.9	50.4	39.6	41.2	46.1	51.4	48.8	49.4	51.0	25.3
충북	9.3	46.1	35.5	37.0	45.4	54.3	55.1	58.6	54.0	31.4
충남	8.2	53.0	37.7	43.6	52.5	63.2	64.5	68.3	63.9	37.5
전북	5.9	39.2	37.6	42.4	47.8	53.8	57.3	58.1	62.3	32.8
전남	6.4	46.0	38.6	45.7	53.4	65.8	68.9	75.2	73.7	45.8
경북	6.6	52.1	34.8	39.8	47.5	56.7	64.4	65.6	64.4	37.0
경남	9.7	57.0	31.8	31.2	41.9	50.1	52.9	57.1	54.6	33.2
제주	9.2	58.0	50.9	49.9	59.9	63.1	72.7	70.2	64.5	43.7
전체	9.3	53.2	38.9	34.3	40.9	45.9	45.5	45.3	42.1	23.1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서는 경기도(26.9%), 경남(25.2%), 경북(17.3%)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60세 이상 여성의 유업율을 보면 6개 시중에서는 인천이 가장 높아서 11.2%이고, 그 다음은 광주(9.9%), 대구(9.3%)이었다. 9개 도 중에서는 전남(45.8%), 제주(43.7%), 충남(37.5%)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기도(13.9%)가 가장 낮았다.

<표 IV-37> 지역별 학력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남 자						여 자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서 울	34.5	51.0	47.5	82.0	43.4	89.0	12.3	24.2	25.5	40.1	29.7	44.4
부 산	32.4	50.7	51.6	81.1	47.3	87.9	14.5	28.3	27.3	38.4	31.2	48.9
대 구	34.6	55.5	52.1	82.1	47.7	88.8	15.3	30.8	26.2	37.0	28.8	47.3
인 천	38.8	58.4	57.0	87.2	64.3	92.2	14.8	28.9	25.7	35.7	33.3	48.4
광 주	37.8	51.1	41.7	80.1	32.8	88.2	14.4	29.0	21.0	34.7	26.0	52.8
대 전	39.9	52.5	48.4	80.3	41.2	89.1	15.1	27.7	24.0	36.0	30.2	45.9
경기도	44.2	61.3	57.9	87.3	60.5	91.4	18.7	34.5	29.4	38.0	33.7	42.5
강원도	52.6	69.2	53.7	81.4	42.6	90.1	31.3	45.8	28.0	41.8	33.1	55.9
충 북	57.4	73.3	54.1	84.4	38.8	89.3	37.6	50.8	30.7	38.8	24.6	51.5
충 남	62.3	79.9	59.8	82.9	53.4	92.7	40.7	60.6	33.4	43.2	33.5	49.6
전 북	58.1	74.6	52.9	81.8	30.7	88.0	40.3	55.5	27.9	37.7	22.9	49.3
전 남	67.9	79.4	60.3	83.3	56.4	91.0	51.5	67.0	32.7	39.1	30.9	54.8
경 북	63.6	75.9	58.5	84.3	60.9	92.7	44.2	58.8	33.5	37.7	38.6	49.1
경 남	63.4	68.5	56.1	87.5	58.4	91.9	41.1	49.8	29.5	37.3	34.6	48.0
제 주	57.6	65.8	56.3	83.7	58.3	92.4	48.6	59.8	38.2	53.5	44.9	61.3
전 체	54.0	65.2	53.6	83.9	49.3	89.9	31.4	41.6	28.0	38.6	31.1	46.4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지역별로 학력별 유업율을 보면, 남녀 모두 초대졸을 제외하고 교육수준을 높아질수록 유업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여성의 유업율은 남성유업율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여성 유업율을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無學인 여성의 유업율은 9개도에서는 대체로 30-50% 수준을 보이나 6개시에서는 15% 내외의 극히 낮은 유업율을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9개도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저학력여성에게 취업 기회가 주어지나, 2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큰 6개시에서는 無學여성에게 취업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초등학교졸업 여성에게도 똑같은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중졸이하 여성집단부터는 6개시의 여성유업율과 9개도의 유업율은 거의 같은 수준을 보였다. 대졸여성의 경우 유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61.3%)였고, 그 다음은 강원도(55.9%), 전남(54.8%), 광주(52.8%), 충북(51.5%) 순이었다.

지역별 가구주유무별 유업율을 보면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의 유업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나, 남성비가구주와 여성비가구주 간의 유업율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가구주는 가구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가구주의 유업율은 50.0% 내외에 지나지 않아서, 여성 가구주의 가구는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훨씬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표 IV-38> 지역별 가구주여부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전 체		남 자		여 자	
	가구주	비가구주	가구주	비가구주	가구주	비가구주
서울	81.5	32.7	87.1	38.9	53.8	30.5
부산	78.4	31.7	84.8	35.3	47.9	30.4
대구	78.8	30.9	85.7	35.1	47.9	29.5
인천	84.3	33.2	87.3	45.2	50.8	29.4
광주	75.9	28.8	83.2	29.9	43.9	28.3
대전	78.4	29.5	84.3	32.3	48.0	28.6
경기도	84.5	35.9	89.1	47.4	54.0	32.2
강원도	77.3	36.9	83.9	36.3	47.2	37.1
충북	82.0	37.1	87.6	34.2	53.0	38.1
충남	82.2	44.6	88.2	44.3	53.3	44.7
전북	78.3	37.8	85.7	34.4	49.2	38.9
전남	82.4	46.0	88.7	41.6	59.0	47.3
경북	80.5	42.5	87.0	41.9	53.3	42.6
경남	83.4	37.6	89.5	40.4	54.7	36.7
제주	81.5	47.1	88.8	43.7	61.1	48.4
전체	81.4	35.5	87.3	39.8	52.4	34.1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지역별로 여성 유업율을 가구주유무별로 보면, 먼저 6개 시에서 여성가구주의 유업율은 서울이 가장 높아서 53.8%이고 광주가 가장 낮아서 43.9%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여성 비가구주의 유업율은 6개 시가 30% 내외로 거의 같았다. 9개 도에서는 여성가구주의 유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서 61.1%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서 47.2%이었다. 9개 도의 여성비가구주의 유업율을 보면, 유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서 48.4%인데 비해서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32.2%에 불과했다. 즉, 여성 비가구주의 유업율은 6개 시의 경우는 거의 편차가 없었던 비해서, 9개 군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가구주는 가구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여성가구주의 유업율이 낮은 지역인 광주(43.9%), 강원도(47.2%), 부산 및 대구(각각 47.9%) 등은 이들 여성가구주의 취업촉진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지역별 여성취업자의 고용구조

먼저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를 지역별로 보면, 지역산업구조의 특성이 반영되어 6개 시는 9개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다만 9개 도 중에서 제조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경기도는 6개 시와 유사한 종사상지위별 고용구조를 보였다. 6개 시 중에서 서울시는 사업주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인천은 임금근로자, 대구는 자영업자 그리고 광주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6개 시중에서 가장 높았다.

9개 도의 종사상지위별 고용구조를 보면 경기도, 제주도, 경남은 임금근로자와 사업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전남, 충남, 전북, 경북은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고용구조를 보면 6개 시는 상대적으로 기업주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9개 도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6개 시 중에서 여성 기업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는 대전이었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광주, 그리고 임금근로자는 서울이었다.

9개 도에서는 경기도, 경남, 충북,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충남과 전남, 전북, 경북 등에서는 여성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기도와 강원도,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기업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 취업자의 산업별 고용구조를 보면, 전남, 충남, 경북, 전북은 농업종사자의 비율

이 40.0%를 넘었다. 또한 강원도, 충북, 경남, 제주도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도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보였다. 이에 비해 광주와 대전은 다른 4개시에 비해서 도소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건설업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보였다. 특이한 것은 강원도와 제주도는 숙박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율이, 서울과 부산은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가졌었다. 그리고 서울은 금융업, 부산은 운수업 종사자의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39> 지역별 종사상지위별 여성 취업자 분포

(단위: %)

	기업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서울	4.3	12.3	10.8	72.6
부산	3.6	14.4	14.0	68.0
대구	3.3	16.6	14.8	65.4
인천	3.7	14.9	12.7	68.7
광주	3.8	20.2	15.8	60.2
대전	5.0	16.1	15.5	63.4
경기도	3.5	18.4	12.8	65.4
강원도	3.4	35.0	20.2	41.3
충북	2.1	40.7	15.6	41.7
충남	1.4	51.3	18.5	28.8
전북	2.0	47.3	19.2	31.5
전남	1.5	53.9	24.3	20.3
경북	2.0	46.7	20.6	30.7
경남	2.7	32.8	20.9	43.6
제주	3.2	33.2	23.9	39.7
전체	3.2	26.9	15.6	54.1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고용구조를 지역별 보면 전남은 여성취업자의 64.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충남, 전북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 비율이 50% 이상이었고, 강원도, 충북, 경남, 제주도 30% 이상이였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도 등으로 25-30% 수준이었고, 6개시는 대체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6개시와 경기도, 제주도

는 상대적으로 도소매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강원도와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서울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사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40> 지역별 업종별 여성 취업자 분포

(단위: %)

	농어 업	제조 업	전기 가스업	건설 업	도소매 업	숙박 음식업	운수 창고업	금융 보험업	가사 서비스	개인,사회 서비스
서울	0.3	22.8	0.1	2.6	22.3	12.1	2.6	7.1	1.8	28.2
부산	2.6	26.2	0.1	2.8	22.6	14.2	2.0	5.4	1.3	22.6
대구	3.9	27.7	0.1	2.2	22.4	13.1	0.9	5.7	0.9	23.1
인천	4.8	29.8	0.1	3.0	19.8	11.4	1.7	6.0	0.6	22.8
광주	7.8	11.6	0.0	3.4	26.5	12.8	1.6	7.1	0.7	28.5
대전	3.7	13.0	0.2	2.8	24.9	15.5	2.2	6.8	1.3	29.7
경기도	10.2	27.2	0.1	2.4	17.2	11.9	1.4	5.6	0.8	23.3
강원도	31.6	8.3	0.1	2.0	17.8	15.1	1.3	4.6	0.4	18.9
충북	38.6	15.9	0.0	1.8	12.8	9.7	0.8	3.7	0.6	15.9
충남	55.5	11.1	0.1	1.1	9.8	7.9	0.7	2.4	0.3	11.2
전북	50.7	7.8	0.1	1.4	11.9	8.1	1.0	3.6	0.4	15.0
전남	64.0	4.3	0.1	1.3	10.8	7.2	0.6	2.5	0.2	9.2
경북	52.1	11.7	0.1	1.0	10.9	9.3	0.7	2.6	0.2	12.4
경남	34.3	16.4	0.2	1.7	14.9	10.5	0.9	4.2	0.5	16.3
제주	42.6	2.8	0.0	2.7	16.4	12.7	2.0	4.8	0.2	15.8
전체	22.0	18.8	0.1	2.1	17.2	11.2	1.5	5.1	0.9	20.6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지역별 직종별 고용구조를 보면,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9개도에서는 1차산업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서 농어업종사 숙련직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6개시의 산업별 취업구조를 보면, 서울시는 입법공무원 및 관리자, 준전문가의 비율과 사무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전과 광주는 전문가, 서비스직 그리고 농어업관련 숙련공의 비율이 다른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 지역별 직종별 여성 취업자 분포

(단위: %)

	입법 공무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 및 판매직	농어업 종사 숙련직	기능 근로자	기계 조작원 조립공	단순 노무자
서울	1.0	8.9	12.8	22.3	32.8	0.2	11.5	2.4	8.1
부산	0.7	6.5	8.0	17.6	35.3	2.2	15.3	4.0	10.2
대구	0.4	7.5	9.5	16.4	34.7	3.7	11.5	9.9	6.5
인천	0.5	5.5	12.3	18.4	30.6	4.7	11.8	9.3	7.0
광주	0.7	10.2	11.0	16.4	36.7	7.5	6.1	3.9	7.3
대전	0.5	9.5	9.2	19.0	39.8	3.6	6.8	2.7	9.0
경기도	0.7	5.6	11.2	16.4	29.4	9.8	8.0	8.9	10.0
강원도	0.4	5.0	6.8	10.4	33.3	30.2	3.9	1.8	8.1
충북	0.2	3.9	5.7	9.1	24.3	38.1	3.4	6.8	8.5
충남	0.0	3.0	4.0	7.5	18.5	55.0	3.3	4.3	4.5
전북	0.2	3.7	5.2	8.8	20.9	50.0	4.1	2.0	5.1
전남	0.1	2.6	3.1	5.6	18.0	63.5	2.4	0.9	3.8
경북	0.9	3.3	5.4	6.7	19.8	51.6	3.8	4.6	4.1
경남	0.5	4.3	7.0	12.3	25.4	33.6	4.5	5.3	7.2
제주	0.4	3.7	3.7	12.4	28.4	40.0	1.5	0.6	9.3
전체	0.6	5.9	8.7	14.8	28.5	21.6	7.7	4.7	7.5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9개도의 직종별 취업구조를 보면 경기도는 6개시의 취업구조와 유사하여, 농어업관련 숙련직의 비율은 극히 낮고 생산관련직, 사무직, 관리직,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남은 경기도보다는 농어업종사자 비율이 높으나,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에 비해서 제조업과 사무직, 관리직·전문가·준전문가의 비율이 훨씬 높은 구조를 보였다. 나머지 도 중에서 전남, 충남, 경북, 전북은 농어업관련 종사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제주도, 강원도, 충북은 모두 농업관련 종사자 비율이 20-25% 수준이었으나,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와 사무직원, 강원도는 서비스직 그리고 충북은 제조업의 비율이 다소 높은 구조를 보였다.

여성 취업자의 직종구조를 보면, 대체로 6대 시는 9개 도에 비해서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 생산관련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보였다.²⁴⁾ 그리고 6개 시

24)전문관리직은 입법공무원 및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 및 기술공을 포괄함.

에서 부산, 인천, 대구는 생산관련직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사무직원과 전문관리직의 비율이 다른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광주와 대전은 생산관련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광주는 농어업관련 숙련공과 전문가 및 준전문가, 대전은 서비스 및 판매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 취업자에 있어서도 경기도는 나머지 8개도 보다는 시와 유사한 직종구조를 보였다. 전남, 충남, 경북, 전북은 해당 지역 여성취업자의 50% 이상이 농어업관련 숙련공이었다. 제주도, 충북, 경남, 강원도는 농어업직 여성비율이 30%대로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충북은 생산관련직의 비율, 경남은 생산관련직과 사무직원, 제주, 강원도는 사무직원과 서비스 및 판매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보였다.

제5장 여성 노동력 규모와 구조의 전망

국민경제에 있어서 노동력 규모는 인적자원으로 경제성장의 근본 잠재력이다. 일반적으로 노동력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민간인구의 규모,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시간, 노동강도 그리고 기술수준의 5가지 요인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들 요인을 크게 양적요인(민간인구의 규모, 경제활동참가율)과 질적요인(노동시간, 노동강도, 기술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개 노동력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은 양적요인들로 민간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한 경제활동인구를 사용한다. 질적요인도 사용하나 객관적 지표와 자료의 부족으로 직접분석하기보다 간접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장에서도 이와 같은 경제활동인구를 기초로 노동력 규모를 파악하고 노동의 성별 연령별 구성을 고찰하므로 그 규모와 구조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²⁵⁾.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성별 노동력의 규모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여성노동력의 전망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나라 생산가능한 민간인구의 규모를 전망한다. 인구의 변화는 노동력 변동의 가장 큰 변수중 하나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1996)와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7년)를 이용하여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의 민간인구의 변화를 살펴본다. 둘째는, 경제활동참가율²⁶⁾을 설명변수로 하는 성별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다. 노동력을 전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 뒤에 이를 기초로 향후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하고, 경제활동참가율과 민간인구 전망치를 이용하여 1997년 이후의 노동력규모를 전망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력의 성별·연령별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향후 여성 노동력의 변화와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25)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를 노동력(labor force)이라는 용어로 많이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26)접근방법에 있어 3-4장은 평상상태접근법(Usual status approach)을 사용하였으나 본 장은 유업자접근법에 의한 시계열자료가 없어 전망을 위해 현상태접근법(Current status approach)의한 경제활동참가율을 사용하였다.

제1절 성별 노동공급추이와 함수추정

1. 생산가능한 민간인구의 전망

가. 생산가능한 민간인구

인구증가는 직접적으로는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노동력 변화에 중요한 변수이다. 1970년 이후 우리 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위생의 개선으로 인해 평균연령 증가와 사망률의 저하를 가져왔다. 이것은 인구증가의 요인으로 이어졌고 동시에 정부가 주도한 가족계획사업은 연령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인구구조는 1970년 0-14세가 많은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1985년에는 10-29세의 청년층이 많은 중형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계속적인 인구의 노령화 추세로 인해 2000년에는 25-44세의 장년과 중년층 인구가 많은 중형을 보일 것으로 여러 문헌연구들은 예측한다. 이와 같이 인구구조는 중단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를 가져와서, 곧 바로 노동력규모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노동력 전망에 사용되는 민간인구는 생산가능한 민간인구이다.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의 노동에 적합한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하며 총인구에서 현역군인 및 방위병,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전투경찰 등을 제외한 인구를 민간인구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분석연도의 생산가능한 민간인구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장에서는 먼저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7)의 전국편과 경제활동편에 의거하여 전국편에서는 총인구를 그리고 경제활동편에서는 민간인구를 구하여 ‘민간인구/총인구’ 비율을 구했다. 그리고 연령계층별 민간인구비율이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1996)의 결과에 연령계층별 민간인구비율을 곱하여 1995년-2010년까지의 민간인구를 추계하였다.

나. 민간인구의 규모

<표 V-1>는 15세 이상의 민간인구의 규모를 예측한 것으로 1997년 35,012천명에서 2000년 36,387천명으로 그리고 2005년 38,072천명 2010년 39,985천명으로 점점 낮은 비율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여성 민간인구가 남성 민간인구보다 많은 것으

로 나타났고 그 비율은 1997년 51.3%에서 2000년 51.2% 그리고 2010년에는 50.8%로 점차 그 차이가 줄어 들 것으로 예측된다.

<표 V-1> 연도별 연령별 민간인구 전망

단위 : 천명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전 체											
1997	3,932	3,538	4,418	4,173	4,289	3,427	2,548	2,114	2,019	4,553	35,012
2000	3,736	3,335	4,313	4,247	4,241	4,025	2,935	2,353	2,009	5,193	36,387
2005	3,073	3,253	3,791	4,293	4,207	4,187	3,964	2,870	2,272	6,161	38,072
2010	3,425	2,669	3,701	3,774	4,256	4,159	4,131	3,888	2,782	7,200	39,985
여 성											
1997	1,938	1,986	2,164	2,037	2,096	1,684	1,260	1,054	1,035	2,705	17,958
2000	1,836	1,872	2,113	2,073	2,075	1,978	1,451	1,174	1,021	3,037	18,632
2005	1,487	1,822	1,856	2,097	2,058	2,059	1,960	1,432	1,151	3,526	19,448
2010	1,628	1,474	1,807	1,841	2,083	2,043	2,042	1,937	1,406	4,046	20,307
남 성											
1997	2,254	1,994	1,553	2,136	2,196	1,743	1,288	1,060	983	1,849	17,054
2000	2,200	1,900	1,464	2,174	2,166	2,047	1,484	1,179	987	2,156	17,756
2005	1,936	1,587	1,431	2,196	2,149	2,128	2,004	1,438	1,121	2,635	18,624
2010	1,894	1,797	1,195	1,933	2,173	2,116	2,089	1,951	1,376	3,154	19,678

자료: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연령계층별로는 15-19세와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에서는 민간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 35세이상의 민간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령인구(60세이상)의 증가가 현격해 1997년 4,553천명인 것이 2000년에는 640천명 증가한 5,193천명으로 무려 14.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노령인구의 증가는 2000년에는 15세이상 민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3%로 나타나 앞으로 노령인구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복지증진과도 관련되리라 생각된다. 성별로 증감하는 추이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20-24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민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남성의 경우는 2005년이후 오히려 증가해 2010년에는 2005년에 비해 210천명이 많은 1,797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2. 여성의 노동공급함수 추정

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표 V-2>를 보면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1980년부터 1985년까지는 전체 참가율이 다소 감소함을 보여준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77.9%이던 것이 점차 하락하여 1985년에는 72.3%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경제활동인구는 6,447천명에서 9,617천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민간인구의 증가와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1970년 8,274천명이던 생산가능인구가 1985년 13,295천명으로 5,021천명 증가하여 노동력을 증가시켰으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 15-24세 연령층의 빠른 참가율 감소와 상대적으로 참가율이 낮은 60세이상의 노령인구의 증가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5년 이후 1995년까지는 다시 상승하였으나, 1970년에 비하면 1.8%가 하락된 76.1%를 보인다.

<표 V-2> 연도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천명)

연 도	전 체	남 성	여 성
1970	57.6(10,062)	77.9(6,447)	39.3(3,615)
1975	58.3(12,193)	77.4(7,822)	40.4(4,371)
1980	59.0(14,431)	76.4(9,019)	42.8(5,412)
1985	56.6(15,592)	72.3(9,617)	41.9(5,975)
1990	60.0(18,539)	74.0(11,030)	47.0(7,509)
1995	62.0(20,946)	76.1(12,524)	48.3(8,423)
1996	62.0(21,188)	76.1(12,620)	48.7(8,586)

주)1) 각 연도의 통계는 15세 이상 인구로 조정된 것임.

2) 괄호 안은 경제활동인구임.

자료:통계청(1994),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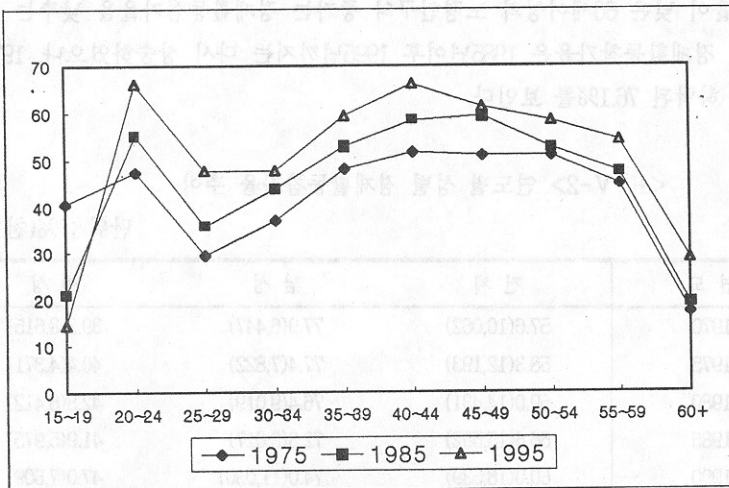
통계청(1997), 「경제활동인구연보」.

이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대 이후 참가율이 꾸준히 상승되어 1995년에는 9.2%가 오른 48.3%의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참가율이 15-19세에서는 남성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나 25-34세의 경우 출산률이 낮아지면서 퇴장폭이 크게 감소했고

육아기간 또한 짧아져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기간이 빨라지는등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²⁷⁾가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림 V-1>과 <그림 V-2>는 연령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을 10년 간격으로 추이해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남녀 모두 연령별 참가율의 모양의 큰 변화는 찾기 힘들다. 여성의 경우는 1975년의 형태나 20년이 지난 1995년의 구조에서 전형적인 M자형 쌍봉구조(bimodal)에 벗어나고 있지 않다.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참가율 상승에 의해 곡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과 최저점이 25-29세에서 30-34세로 옮겨진 것이다. 최저점의 이동은 결혼의 평균연령²⁸⁾이 높아져 육아기간이 이동하여 생긴 현상이다.

<그림 V-1> 연도별 연령계층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자료:통계청(1994),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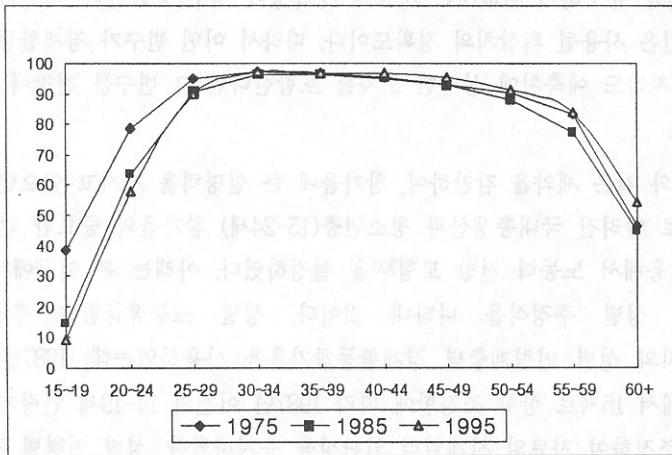
통계청(1996), 「경제활동인구연보」.

27)박명수의 「중장기 노동력 수급 전망」에 의하면 여성 20-5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노동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을 구분해 언급하고 있다. 노동공급측 요인으로 ①출산율 저하로 인한 육아기간 단축 및 육아부담 감소와 보육소, 탁아소등의 육아환경의 변화 ② 내구소비재등의 보급에 기인한 가사부담의 감소 ③학력수준의 향상과 전문분야의 다양화 ④여성의 사회참여 의욕의 고조와 고용기회 평등화의 추진등이며 수요측 요인으로는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취업형태의 다양화를 언급하였다. 박명수, 「중장기 노동력 수급 전망, 한국노동연구원,1991.

28)우리 나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975년 23.6세, 1985년 24.8세 그리고 1995년 26.1세로 나타난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남성의 경우도 15세이후 상승하여 30대 중반에 최고봉을 이루고 이것이 50대 초반까지 유지되다 후반쯤 하락하는 역U자형의 단봉구조(unimodal)는 변함이 없다. 단지 남성은 20대 중반까지의 참가율이 계속 하락됨에 따라 머리부분의 곡선이 계속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남성 진학률의 급격한 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여진다²⁹⁾.

<그림 V-2> 연도별 연령계층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자료: 통계청(1994),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통계청(1996), 「경제활동인구연보」.

나.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정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 학력, 실업률, 국내총생산, 혼인상태, 진학률, 피부양인구비, 연금 그리고 자녀수와 육아기간등 여러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³⁰⁾ 특히 여성에게 자녀수와 육아기간은 25-34세동안 이 연령층의 전후 연령층에 비해 15-20%의 감소를 보일 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기존 연구는 이와 같은 변수를 이용해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예측하기도 했으며³¹⁾ 또한 노동력

29) 남자의 고등학교와 대학의 진학률은 각각 1980년 87.5%, 30.3% 1985년 93.1%, 38.3% 그리고 1995년은 98.6%와 52.9%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 「1996 여성통계연보」, 1997.

30) J. P. Smith ed. (1980), 「Female Labor Supply: Theory and Estim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수급구조를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서 산업별 직종별 가용공급인력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기도³²⁾ 했다. 그리고 구성렬교수(1988)는 인구학적인 요인인 교육수준, 도시화, 피부양 인구비와 비인구학적인 요인인 경제성장률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정하였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산정하였다. 이처럼 오늘날은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에 따른 접근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에 관련되었다고하여 무작정 그 변수를 사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따른다. 왜냐하면 전망에 사용될 변수는 외삽치이고 이것은 예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추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전망의 필수조건은 사용될 외삽치의 정확도이다. 따라서 어떤 변수가 경제활동참가율에 중요한 변수라 할지라도 예측치에 상당한 오차를 포함한다면 그 변수를 전망에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제약을 감안하여, 참가율에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정확한 예측치로 알려진 국내총생산과 청소년층(15-24세) 참가율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진학률을 이용해서 노동력 전망 모형³³⁾을 설정하였다. 아래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추정식을 나타내 것이다. 성별 노동공급함수 추정을 위해서 1970-1996년까지의 성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사용하였는데, 1987년부터 경제활동인구를 14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1987년 이전의 14-19세 연령계층의 참가율을 15-19세로 조정하여 자료의 시계열적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는 통계청의 「1963-1993년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1994), 「경제활동인구 연보」(1995-1997)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진학률은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국내총생산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을 이용하였다. 예측을 위해 외삽치로 사용된 국내총생산액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내부자료를 그리고 진학률은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를 기초로한 진학률 전망치를 사용하였다.

31) 이와같은 방법으로 인력공급을 추정한 연구자는 김중수(1989), 구성렬(1989), 박명수(1990) 등이 있다.

32) 한국교육개발원(1980), 한국개발연구원(1981), 직업훈련연구소(1983), 한국산업개발연구원(1983), 한국과학기술처(1985), 온종관(1984) 등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33) 계량모형의 형태는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시계열모형(time series model) 그리고 이 두가지의 단점을 개선한 벡터자기회귀모형(VAR model)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 전적인 방법인 회귀분석을 이용한 구조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 모형이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예측뿐만 아니라 경제구조 분석, 경제정책의 효과 분석 그리고 경제개발계획의 수립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음 감안한 것이다.

연령계층별 남성의 추정식	연령계층별 여성의 추정식
$LM_{15-19,t} = f(MH, LM_{15-19,t-1})$ $LM_{20-24,t} = f(MU, GDP_t, LM_{20-24,t-1})$ $LM_{25-29,t} = f(GDP_t, LM_{25-29,t-1})$	$LF_{15-19,t} = f(FH, LF_{15-19,t-1})$ $LF_{20-24,t} = f(FU, GDP_t, LF_{20-24,t-1})$ $LF_{25-29,t} = f(GDP_t, LF_{25-29,t-1})$
$LM_{60,t} = f(GDP_t, LM_{60,t-1})$	$LF_{60,t} = f(GDP_t, LF_{60,t-1})$

단, LM_{it} : i연령계층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LF_{it} : i연령계층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FH : 여성의 고등학교 취학률

FU :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MH : 남성의 고등학교 취학률

MU : 남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GDP: 국내총생산(85년 불변가격)

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정결과

위에서 언급했듯 경제활동참가율 추정에 사용된 독립변수로는 국내총생산(GDP)과 진학률을 사용하였다. 기혼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알려진 6세 미만의 자녀수의 대리변수로 조출산률을 설명변수에 포함해 추정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추정과정에서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진학률변수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significant) 결과를 보이며 적합도(Goodness-of-fit)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변수의 추정치는 여성의 경우 45-4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25-29세 연령층과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V-3> 여성 노동력공급 함수 추정결과

	상수항	LF_{t-1}^i	$\log(GDP_t)$	FH_t	FU_t	R^2	D-W
LF_{t-1}^{15-19}	31.105*** (3.07)	0.711*** (7.90)		-0.295*** (-3.14)		0.97	1.54
LF_{t-1}^{20-24}	-59.173*** (-4.82)	0.438*** (3.26)	8.316*** (4.93)		-0.128*** (-3.16)	0.97	2.25
LF_{t-1}^{25-29}	-26.846*** (-3.66)	0.793*** (8.04)	3.035*** (3.38)			0.96	2.07
LF_{t-1}^{30-34}	-13.608** (-1.82)	0.534*** (3.00)	2.962** (2.43)			0.89	1.98
LF_{t-1}^{35-39}	-20.193*** (-2.80)	0.219 (1.27)	5.399*** (4.01)			0.93	2.11
LF_{t-1}^{40-44}	-10.866 (-1.31)	0.533*** (3.15)	3.314** (2.35)			0.89	1.99
LF_{t-1}^{45-49}	2.011 (0.28)	0.629*** (4.30)	1.730 (1.50)			0.86	2.11
LF_{t-1}^{50-54}	0.135 (0.01)	0.495*** (3.29)	2.402* (2.01)			0.84	1.79
LF_{t-1}^{55-59}	-19.550* (-1.81)	0.374* (1.98)	4.324** (2.70)			0.86	2.07
LF_{t-1}^{60+}	-22.861* (-2.15)	0.628*** (3.90)	2.697** (2.29)			0.90	2.31

주) LF_t^i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FH_t : 여성의 고등학교 취학률

FU_t :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GDP_t : 국내총생산(85년 불변가격)

하첨자 t : 연도, 상첨자 i : 연령계층

* : $p < 0.1$, ** : $P < 0.05$, *** : $p < 0.01$

() 안의 숫자는 t-값

<표 V-4> 남성 노동력공급 함수 추정결과

	상수항	LM_{t-1}^i	$\log(GDP_t)$	MH_t	MU_t	R^2	D-W
$LM_{15-19_t}^{15-19}$	27.150** (2.11)	0.773*** (8.76)		-0.262** (-2.13)		0.97	2.00
$LM_{20-24_t}^{20-24}$	13.952 (0.53)	0.913*** (8.91)	-0.420 (-0.24)		-0.074* (-1.89)	0.97	1.68
$LM_{25-29_t}^{25-29}$	42.501** (2.55)	0.686*** (5.06)	-1.178** (-2.60)			0.81	1.47
$LM_{30-34_t}^{30-34}$	36.226** (2.76)	0.637*** (4.65)	-0.083 (-0.57)			0.49	1.74
$LM_{35-39_t}^{35-39}$	35.152** (2.40)	0.635*** (4.11)	0.016 (0.10)			0.44	1.72
$LM_{40-44_t}^{40-44}$	38.749** (2.46)	0.566*** (3.29)	0.254 (1.22)			0.43	1.76
$LM_{45-49_t}^{45-49}$	25.508* (1.92)	0.693*** (4.63)	0.294 (1.02)			0.56	1.62
$LM_{50-54_t}^{50-54}$	41.563*** (2.82)	0.475** (2.64)	0.499 (1.29)			0.39	1.71
$LM_{55-59_t}^{55-59}$	25.012* (1.99)	0.624*** (3.96)	0.494 (0.68)			0.47	1.67
$LM_{60+_t}^{60+}$	-4.370 (-0.60)	0.673*** (4.35)	1.751* (1.78)			0.79	2.22

주) LM_t^i :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MH_t : 남성의 고등학교 취학률

MU_t : 남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GDP_t : 국내총생산(85년 불변가격)

* : $p < 0.1$, ** : $P < 0.05$, *** : $p < 0.01$

() 안의 숫자는 t-값

제2절 여성 노동력 전망과 구조변화

1. 성별 연령별 노동력 전망

가. 15-24세 연령층의 노동력

15-1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10.2%에서 계속해서 하락하여 2010년 6.5%로 남녀 모두 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연소노동력의 절대규모도 400천명에서 224천명으로 떨어져, 1997년 경제활동인구의 1.8%를 차지하던 비율이 2010년에는 0.9%로 그 비율이 하락될 전망이다. 성별로 남녀의 감소 추세는 차이가 없나 여성이 다소 남성보다 빠른 감소를 보인다.

20-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도 전체적으로 15-19세 연령층과 유사하나 성별 참가율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보인다. 남성의 경우 1980년 76.5%의 참가율을 보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7년 58.0%, 2000년 56.6%, 2005년 45.6% 그리고 2010년에는 39.9%로 낮은 참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민간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였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1997년 66.6% 이던 것이 2010년에는 74.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남성의 경우 많은 수가 학업중이거나 군인신분인 반면 여성은 학업을 마치고 신규 노동시장의 진출이 본격화 되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향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성의 비중이 2010년에는 69.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15-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진학률과 시간제취업의 정도이다. 현재 고등학교 진학률은 남성 99.6% 여성 99.1%(1996)로 거의 100%에 이르고 있으나 대학 진학률은 남성 61.5% 여성 53.1%로 더 상승될 여지가 있다. 이는 향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대학정원을 증가시킨다면 높은 진학률을 보일 것이고 이것은 참가율을 더욱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리라 본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락도 시간제 취업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취업형태가 다양해지고 시간제 근로가 보편화 된다면 예측치보다는 상승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V-5> 연도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단위 :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전 체											
1997	10.2	62.2	70.5	74.0	79.3	81.5	79.3	75.1	68.8	39.5	62.2
2000	8.4	61.5	71.5	74.8	80.1	82.1	80.1	76.1	69.9	40.6	63.1
2005	7.1	60.3	73.1	75.7	81.1	83.2	81.1	77.0	71.2	42.7	65.1
2010	6.5	58.7	74.6	76.5	81.9	84.2	81.8	77.7	72.2	44.6	65.1
여 성											
1997	12.4	66.6	51.9	49.9	60.9	65.8	63.0	58.7	54.8	29.4	49.3
2000	10.3	68.7	54.4	51.6	62.5	67.0	64.5	60.8	56.8	30.6	50.9
2005	8.8	71.8	58.9	53.7	64.6	69.2	66.2	62.4	59.0	32.7	53.7
2010	8.0	74.0	62.8	55.3	66.2	71.0	67.4	63.6	60.7	34.6	54.5
남 성											
1997	8.0	56.6	88.4	97.0	96.8	96.7	95.3	91.4	83.5	54.3	75.8
2000	6.6	52.2	87.9	96.9	96.9	96.7	95.3	91.3	83.4	54.7	76.0
2005	5.6	45.6	86.8	96.8	96.9	96.8	95.6	91.5	83.7	56.1	77.0
2010	5.2	39.9	85.8	96.7	96.9	96.9	95.8	91.7	84.0	57.4	76.1

나. 25-54세 연령층

25-5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참가율이 높고 경제활동인구중 차지하는 구성비 또한 높은 연령층이다. 남성의 경우 25-29세의 참가율은 1997년 88.4%에서 2010년 85.8%로 매년 평균 0.2% 포인트씩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30-40대 연령층은 95%가 넘는 참가율을 보이고 있고 50-54세인 경우도 91%이상을 상회하는 안정된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동 연령층의 이와 같은 높은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이들 남성 대부분이 家長으로서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역할이 계속되는 한 높은 참가율은 계속 되리라 본다.

여성 25-54세 연령층의 참가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우리 나라도 1995년을 기점으로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곡선의 최저점이 1995년까지는 25-29세에서 형성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30-34세 연령층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25-29세 연령층은 참가율의 상승속도도 커져 1997년 51.9%에서 2010년 62.8%로 연평균 0.8%의 증가률을 보일 전망이다. 또한 25-34세 연령층은 출산과 육아문제로 노동시

장에서 퇴출하는 현상은 향후 예측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곡선의 1차 정점인 20-24세 연령층과 저점인 30-34세 연령층의 참가율 차이를 보면, 1997년 16.7% 포인트에서 2010년에는 18.7% 포인트로 변화될 것이다.

<표 V-6> 연도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단위 : 천명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전 체										
1997	400	2,201	3,115	3,088	3,400	2,794	2,021	1,587	1,388	1,799	21,794
2000	315	2,050	3,083	3,176	3,396	3,305	2,350	1,791	1,404	2,109	22,977
2005	220	1,961	2,773	3,252	3,411	3,485	3,213	2,210	1,617	2,631	24,773
2010	224	1,567	2,760	2,887	3,485	3,501	3,378	3,021	2,009	3,210	26,043
	여 성										
1997	240	1,322	1,123	1,017	1,276	1,108	794	619	567	795	8,862
2000	189	1,286	1,150	1,070	1,297	1,325	936	714	580	929	9,476
2005	131	1,309	1,093	1,126	1,329	1,425	1,298	893	679	1,153	10,436
2010	130	1,091	1,135	1,018	1,379	1,451	1,376	1,232	853	1,400	11,065
	남 성										
1997	160	879	1,992	2,072	2,123	1,686	1,228	969	821	1,004	12,933
2000	125	764	1,934	2,106	2,099	1,980	1,414	1,077	823	1,179	13,501
2005	89	653	1,680	2,125	2,082	2,060	1,916	1,316	938	1,478	14,337
2010	93	477	1,625	1,869	2,106	2,050	2,002	1,789	1,156	1,810	14,977

다. 55세이상 연령층

55-5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정년퇴직이 시작되면서 50-54세 연령층에 비해 8% 포인트정도 낮은 참가율을 보이나 느린 속도로 참가율은 증가되리라 예측된다. 다만 향후 기업들의 인력부족을 정년연장으로 보충하고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이 현재의 60세에서 점차 상향조정되어 65세로 변화된다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참가율이 증가할 것이다.

성별로 남성은 83-84%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여성은 조금씩 참가율이 증가하여 2000년에는 56.8%를 그리고 2010년에는 60.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60세이상의 연령에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소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 상승세가 민간인구의 증가에

미치지 못이며 상당한 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으리라 전망된다. 성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을 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25%정도 높은 참가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민간인구가 적음에도 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많게 나오는 원인이며 향후 전망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큰폭으로 상승하지 않는한 이와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2. 노동력의 연령별 구조 변화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조 변화는 청소년층(15-24세)의 감소와 고령층(55세이상)의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이 연령층의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경제활동참가율이 함께 감소한데 기인한다. 이와 같은 감소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낮은 출산률과 높은 진학률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15-19세의 상당한 인구가 상급학교 진학에만 매달리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간제나 일용직과 같은 경제활동에 참가할 여건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육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 변화 없이는 이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어려워 보인다. 이에 반해 55세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점점 늘어나 그 비중이 1997년 14.6%에서 2010년에는 20.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청소년층과는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령인구 두 가지 모두의 증가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주노동력층으로 불리는 25-54세의 경우 1997년 이후로 커다란 변동없이 그 비중이 73-74%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별로 보여지는 특별한 변화는 없으나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15-24세의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높으나 25-54세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으며 고령층은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V-7>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계층별 비율

단위 : %

	전 체			여 성			남 성		
	15-24	25-54	55+	15-24	25-54	55+	15-24	25-54	55+
1997	11.9	73.4	14.6	11.9	73.4	14.6	8.0	77.9	14.1
1998	11.2	73.9	14.9	11.2	73.9	14.9	7.4	78.2	14.4
1999	10.7	74.2	15.1	10.7	74.2	15.1	7.0	78.4	14.6
2000	10.3	74.4	15.3	10.3	74.4	15.3	6.6	78.6	14.8
2001	10.1	74.4	15.5	10.1	74.4	15.5	6.3	78.6	15.1
2002	9.9	74.2	15.9	9.9	74.2	15.9	6.1	78.4	15.5
2003	9.7	74.0	16.3	9.7	74.0	16.3	5.9	78.2	16.0
2004	9.3	74.0	16.7	9.3	74.0	16.7	5.6	78.0	16.4
2005	8.8	74.0	17.1	8.8	74.0	17.1	5.2	78.0	16.9
2006	8.2	74.2	17.6	8.2	74.2	17.6	4.8	78.0	17.3
2007	7.7	74.2	18.0	7.7	74.2	18.0	4.4	77.8	17.7
2008	7.3	74.1	18.6	7.3	74.1	18.6	4.1	77.6	18.3
2009	7.0	73.8	19.2	7.0	73.8	19.2	3.9	77.1	19.0
2010	6.9	73.1	20.0	6.9	73.1	20.0	3.8	76.4	19.8

3. 여성 노동력 비율의 전망

<표 V-8>은 경제활동인구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여기서 보듯 여성은 전체적으로 남성대비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으나 해마다 그 차이는 좁혀지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보다 빨리 상승한데 기인한 것이다.

<표 V-8> 연도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의 여성비율

단위 :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1997	60.1	60.1	36.0	32.9	37.5	39.7	39.3	39.0	40.9	44.2	40.7
1998	59.9	60.9	36.4	33.2	37.8	39.8	39.5	39.4	41.1	44.1	40.8
1999	59.9	61.8	36.9	33.5	38.0	40.0	39.7	39.7	41.3	44.0	41.0
2000	60.1	62.7	37.3	33.7	38.2	40.1	39.8	39.9	41.3	44.1	41.2
2001	59.6	63.6	37.7	33.9	38.4	40.3	40.0	40.0	41.4	44.0	41.5
2002	59.9	64.5	38.1	34.1	38.5	40.4	40.1	40.2	41.5	44.0	41.7
2003	60.0	65.3	38.5	34.3	38.7	40.6	40.2	40.3	41.7	43.9	41.9
2004	59.5	66.0	39.0	34.5	38.8	40.7	40.3	40.3	41.8	43.9	42.0
2005	59.5	66.7	39.4	34.6	39.0	40.9	40.4	40.4	42.0	43.8	42.1
2006	59.5	67.4	39.8	34.7	39.1	41.0	40.4	40.5	42.1	43.8	42.2
2007	58.6	68.0	40.2	34.8	39.2	41.1	40.5	40.6	42.2	43.7	42.2
2008	58.4	68.6	40.5	35.0	39.4	41.2	40.6	40.6	42.3	43.7	42.3
2009	58.1	69.1	40.9	35.1	39.5	41.3	40.6	40.7	42.4	43.6	42.4
2010	58.2	69.6	41.1	35.3	39.6	41.4	40.7	40.8	42.5	43.6	42.5

연령별로는 15-24세와 60세이상의 연령층에서 여성비율이 감소하며 나머지 연령층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4세의 연령층은 여성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도 증가해 1997년 60.1%, 2000년 62.7% 그리고 2010년에는 6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이 연령층에서 남성이 대부분 학업과 군복무기간인 반면 여성은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비율은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으리라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전망은 연령을 15-24세, 25-54세 그리고 55세이상으로 나누어서 보면 뚜렷하게 나타난다. 먼저 15-24세 연령에서 여성비율은 1997년 60.1% 2000년 62.4% 그리고 2010년에 이르러서는 68.2%로 남성에 비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령층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활동인구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집단으로 여성비율의 높은 상승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체 여성비율을 상승시키는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경제활동인구의 73-73%를 차지하는 25-54세 연령층과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55세 이상의 여성비율은 그 상승속도가 매우 느려 1997년 각각 37.1%와 42.7%이던 것이 13년후인 2010년에 이르어서도 39.9%와 43.2%로 각각 2.8%와 0.5%의 상승만을 보이고 있다. 2000년에는 인구의 집중이 25-44세의 연령층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여성의 빠른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은 25-54세와 60세이상의 고령인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더불어 여성 또한 적극적인 의식개혁을 하는 것이다.

어려야 할 것이다.

① 여성노인의 노후생활보장 제도 정비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노인인구중 여성의 비율이 높아 이들의 노령연금수급권이 남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소득발생 중심, 세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상당수의 여성이 독립적인 연금수급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전업주부는 물론 이거니와 가족종사자로서 남편이 운영하는 자영업체에서 일한 여성들이 남편과 같이 생산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어 독립적인 연금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부 맞벌이여성의 29.5%가 무급가족종사자이며, 남편이 자영업자이고 부인이 가족종사자인 부부가 21.2%, 남편이 고용주이고 부인은 무급종사자인 부부가 7.5%로 나타났다. 읍면부는 맞벌이부인의 75.1%가 가족종사자이며, 남편이 자영업자 부인이 가족종사자인 경우가 71.2%나 된다. 이들 취업여성들은 남편과 같이 생산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음에 따라 독립적인 연금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무급가족종사자 뿐 아니라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 또한 시간제 및 임시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연금권을 갖지 못한다.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년 가입시 생애평균소득의 35%를 목표로 하고 있어 소득보장이 어려운 형편이나, 그나마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의 사후 유족연금으로 최고 기본연금의 60%밖에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와 가족종사자 등의 다수 취업여성들은 일상 생활 중에 사고 등에 의해 장애를 입을 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등 남성과 동일하게 직면할 수 있는 노령, 장애 등에 대비한 소득보장의 공백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연금체계에서 여성의 연금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일원화된 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와 소득비례연금제도로 분리하여 1인 1연금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연구의 노동력추계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년에는 50.9%, 2005년에는 53.7%, 그리고 2010년에는 54.5%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인 1연금체로의 이행에 따른 재정부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② 노인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충

우리나라는 가족보호의 전통이 강해 노인여성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현행 정책방향 역시 시설보호 보다는 가족보호의 강화,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노인여성들을 부양 및 보호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이들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되는 한편,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가 맞벌이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동부 맞벌이부부의 11.9%가 부모와 동거하며 (남편외벌이 7.8%, 부인외벌이 8.7%, 부부 비취업형 5.7%) 읍면부의 맞벌이부부는 16.7%가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편외벌이 10.2%, 부인외벌이 7.9%, 부부 비취업형 4.5%). 이처럼 맞벌이가구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부모가 가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부모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부양의 대상이 될 때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아울러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은 노인단독가구가 55세이상 여성인구의 15.4%나 되며 읍면부의 노인여성 단독가구는 21.2%에 이르고 있다.

부양 및 보호자가 없고 건강상의 문제로 시설보호가 불가피한 노인여성들을 위해 적정수준의 노인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다른 한편 가족과 동거하지만 맞벌이부부처럼 부양을 전담할 가족이 없거나 단독가구를 이루고 홀로 사는 노인여성들 중 상당수는 비록 돌봐줄 가족이 없어도 홀로서기가 불가능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를 떠나길 싫어하는 노인들이 많다. 이들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때 특히 읍면부의 노인여성을 위해서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별도의 투자가 요구된다. 그것은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를 통한 노인대책은 이들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과 서비스체계를 연결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동부와 달리 읍면부의 경우 노인들의 주거공간이 크게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읍면부의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이러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 여성 고용구조의 개선

노령화사회를 부양할 생산인구의 최적 활용을 위해서는 성에 기초한 편견이나 관습·관행에서 벗어나 개별 인력의 능력을 최대한 활성화하도록 사회규범과 제도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여성인력의 취업구조가 그간 꾸준히 고도화해온 것 또한 사실이나 여전히 남성은 고위직에 여성은 하위직에 편중된 성별 직종격리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 기반해 할당제와 같은 일정한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여성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논의가 최근들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강제적인 비율유지는 노동시장에 또다른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지만 여성들이 능력

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한시적인 조치로 논의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서 공무원 채용에 채용비율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기업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강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지배한다. 그러나 민간기업도 한시적 혹은 제한적으로 여성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을 뽑게 된다면 자연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조직적 의지를 갖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제약을 기업문화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전의 계기로 발전시킬 수 있다.

남녀차별 해소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시장의 효율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간섭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구를 도전으로 삼아 기업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계기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할당제의 도입이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여성인력 채용비율 또는 채용비율의 증가율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해서 적어도 목표년도까지 이것이 달성되지 않으면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예고제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④ 여성 취업지원 체제의 정비

노동력추계결과에 의하면 25-34세 연령층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퇴장률이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과거와 비슷한 쌍봉형태는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중단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경력중단을 완화하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을 낮추기 위해 이들의 아동보육을 지원할 보육서비스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1996년 현재 보육대상아동은 102만명으로 추계되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36.4만명에 불과해 보육대상아동의 35.7%만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요구된다.

그런데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1995-2000년까지 만4세미만 인구가 -0.16%의 감소율을 나타내며 이러한 감소 세는 그 후 더욱 가속화되어 2000-2005년간에는 -1.2%로 확대된다. 이처럼 보육대상아동의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확충은 신규시설의 확대 보다는 기존시설의 이용율 제고에 보다 주안을 두는 한편 취업도의 직접 보육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병행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시설의 이용율 제고를 위해 학교와 교회, 읍면부의 사찰등도 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학교의 경우 교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뿐 아니라 인근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시설로 개방될 수 있다. 보육시설로의 개방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학교시설을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학교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교회, 사찰 등의 시설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3세미만 아동의 보육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제가 도입되어 아동의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휴직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도록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시의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⑤ 여성 경제활동의 다양화

앞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임금근로자와 같은 특정한 종사상지위나 특정한 직종, 업종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화되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기업주가 1990년의 2.2%에서 1995년의 3.2%로 다소 늘었다. 여성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주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다. 조직규모가 작을수록 성차별적인 관행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정보화 산업의 진행으로 소규모 벤처기업의 확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기업주는 숙박 및 음식점업(44.1%)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29.2%)에 몰려 있으나 앞으로 첨단산업 분야로 다수의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행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등이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규격화됨에 따라 여성기업인의 지원혜택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다양한 업종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업종별 기업규모의 차이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한다.

제2절 지역별 여성인구의 특성과 과제

여성인구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인구의 구조와 특성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인구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전라남북도, 충남, 강원, 경북은 여성인구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여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적용이 제외되고 또한 이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중에서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가구비율이 높은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북에서는 이들 여성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수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③ 지역별 여성의 취업확대정책

지역별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수준과 잠재여성인력의 특성도 다르므로, 여성고용정책도 지역사정에 맞게 수립 실시해야 할 것이다. 먼저 부산, 인천, 대구, 전남과 같이 구직활동 중에 있는 여성인구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들 지역의 여성실업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산, 인천, 대구, 전남은 여성실업자를 위한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서울, 대전, 대구는 고학력 여성인구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유업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고학력여성의 취업촉진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고학력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도 여성인구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가구주는 가구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강원도, 부산 및 대구의 여성 가구주 유업율은 상당히 낮으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여성 가구주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④ 지역별 여성취업자의 지원정책

지역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여성의 취업구조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도 지역별로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여성 농어민비율이 높은 전남, 전북, 충남, 경북에서는 여성을 농어민후계자로 육성 지원, 여성농민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인천, 부산, 서울, 경기도, 경남, 경북 등은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결혼출산으로 인한 퇴직율을 낮추는 각종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광주는 여성 자영업자가 높으므로, 여성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그리고 여성 기업주의 비율이 높은 서울, 대전, 경기도, 강원 등에서는 여성창업지원, 여성 경제인 경영지원과 관련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 문>

구성열(1989), 『우리 나라 인력수급구조의 변화추이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태환·김두섭(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권태환·김태현·최진호(1995),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김수곤(1976), 『노동공급과 실업구조』, 한국개발연구원.

김성이(1995), “인구변천과정에서 본 한국과 스웨덴의 복지상대비교”, 한국인구학회지 제18권 2호.

김영옥(1995), 『여성고용의 불안정 추이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유경(1995), “가구구조의 변동과 시도별 가구수 추계”, 한국인구학회지 제19권1호

김중수(1986),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분기계량모형”,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김지수 외(1985),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장기수급전망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처

김태기외(1995), 『1995년 노동력 수급전망』, 한국노동연구원.

김태현(1995), 『자녀관과 경제사회발전-인구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김태현, 홍문식, 장영식(1993), 『한국의 인구규모와 구조』, 1990 인구주택총조사종합 분석(4-1), 통계청

김태홍(1995), 『고학력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방안』,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1996), 『여성재취업구조와 고용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1996), “노동시장 전망과 잠재인력활용방안”, 경제학연구 제44집 3권, 한국경제학회.

김태홍(1996), “단시간노동의 결정요인분석”, 노동경제논집 제19집 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미혜·김영옥(1993), 『한국여성의 취업경력』, 한국여성개발원.

노미혜외(1993),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대우경제연구소, 「대우 패널데이터」, 1994-1996.

박명수(1990), 『중장기 노동력 수급전망』, 한국노동연구원.

서울여자대학교(1991), 『한국의 인구변동과 사회발전(I)』

송위섭(1995), 『인구변동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회지

제18권 2호.

양승주(199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요인분석", 『여성연구』 제11권 3호.

어수봉(1991),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이주호(1996), "여성고용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 『KDI정책연구』, 봄호.

이주호(1996), 『고용대책과 인적자원개발』, 한국개발연구원.

이효수(1991), 『고학력현상과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은중관 외(1984), 「고급기술인력 장기수요전망:통망, 정보분야」, 체신부

장영식의 4인(1996), 『신인구추계에 의한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과 정책과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직업훈련연구원(1990), 「직업구조 변혁기의 인재개발」

최진호, 최병선(1993), 『지역간 인구 불균형 분포의 원인과 결과』, 1990 인구주택총
조사 종합분석(4-2), 통계청

최인현, 정영일, 변용찬(1986), 『인구이동과 사회경제발전』,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경제
기획원

한국과학기술원(1993), 「이공계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에 관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과학기술처(1980), 「장기인력수급 전망과 대책」

통계청(1993), 『한국의 인구규모와 구조-인구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통계청(1994), 『지난 30년간 고용구조의 변화』.

통계청(1994), 『시도별 추계인구』.

통계청(1995),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통계청(1996), 『사회통계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1984, 19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전국출산력 및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1995, 1996.

한국영유아보육학회편(1995), "한국영유아보육사업의 개혁과제", 한국영유아 보육
학회.

<영문>

- Alfred J. Kahn & S. B. Kamermann(1987),Child Care; Facing the Hard Choices,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 Allat,P., Keil, T., Bryman, A. and Bytheway, B.(eds)(1987)Women and the Life Cycle: Transitions and Turning Points, London: Macmillan.
- Allin,P., and Hunt, A.(1982),"Women in Official statistics", in Whitelegg, M., Arnot,E., Leonard, S.(eds) The Changing Experience of women, Oxford: Martin Robertson.
- Blundell, R. and Walker, I.(1984)," A Household Production Specification of Demographic Variables in Demand", Economic Journal, Vol.94.
- E. Bos, M. T. Levin and R. A. Bulatao(1993), "World Population Projection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utz, H. P. and Ward, W. P.(1979),"The Emergence of Countercyclical U. S. Fert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69.
- Carol, W., Sally L(1994), Women and Careers-Issues and Challenges, SAGE Publications.
- Cremer,H.,Kessler, D., and Pestieau,P.(1992),"Intergenerational Transfers within the Family".
- Cynthia Lloyd(1993),"Family and gender issues for population policy",The Population Council, Working papers, No.41,New York.
- Dixon-Mueller, Ruth(1993),Population Policy & Women's Rights, Praeger: London.
- Ermisch, E.,Ogawa, N.(1994), The Family, the Market and the State in Ageing Societies, Clarendon Press: Oxford
- Hans-Peter Blossfeld(eds),The New Role of Women-Family formation in Modern Societies, San Francisco:Westview Press.
- Hill, M. A.(1989),Female Labor Supply in Japan: Implications of the Informal Sector for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Hours of Work", Journal of Human Resources,24/1.
- Lorraine Harding(1996),Family, State and Social Policy, London: Macmillan Press.
- OECD(1994),Women and Structural Change.

- Ogawa(1989),"Population Ageing and Household Structural Change in Japan",
J.M.Eekelaar and d. Pearl(eds.), An Aging World: Dilemmas and
Challenges for Law and Social Policy, Oxford:Clarendon Press.
- Pepiton-Rockwell(eds.)(1980), Dual Career Couples, Beverly Hills, CA: Sage.
- Prestone, S. H.(1982),"Relations between Individual Life Cycles and Population
Characteristic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Apr.).
- Ribar,D.C.(1991),Child Care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Doctoral
Thesis, Brown University Press.
- Smith, J. P.(1980),Female Labor Supply: Theory and Estim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eresa Rees(1992),Women and the labor Market,London:Routledge.
- Unites Nations(1992),Demographic Yearbook-Special Issue: Population Ageing
and Situation of Elderly Persons, New York.
- Unites Nations(1995),The World's women 1995 Trends and Statistics, New
York.
- Young-shoo Shin, Tae-hong Kim(1997),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Choice of Occupation in Korea, Working Paper, East-West Center.

<일문>

- 總理府編(1995),「女性の現状と 施策」.
- 雇用政策研究會(1992),「勞動力需給の 展望と 課題」.
- 日本勞働省(1988),「勞動力 需給の 長期豫測」.
- 水野朝夫(1995),「勞動力 供給制約 日本經濟」, 大明堂 .
- 清家編(1993),「高齢化社會の勞動市場」, 東洋經濟新聞社 .
- 丸尾直美(1994),「人口高齢化と 福祉政策の 課題」, 人口學研究, 日本人口學會.

부 표

<부표 II-1> 지역별 전출입 여성인구의 연령별 분포

단위 : 천명

	5-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순이동 남성인구											
서울	1583	355	242	439	2023	1483	751	547	610	457	684
부산	314	101	116	395	493	305	141	71	45	40	75
대구	-199	-116	-85	20	62	6	-85	-39	-2	13	38
인천	-287	-104	-245	-348	-362	-256	-79	-66	-51	-71	-126
광주	-204	-146	-50	-13	16	-73	-65	-41	0	2	-15
대전	-310	-209	-156	-172	-187	-240	-134	-52	-33	-16	-50
경기	-1474	-826	-1157	-1630	-1752	-1246	-722	-568	-600	-442	-736
강원	137	125	206	453	51	46	22	39	9	17	16
충북	-93	-11	13	70	-69	-63	-25	-17	-6	-14	13
충남	-34	177	163	202	-64	-56	-1	13	5	3	26
전북	57	82	194	254	14	23	12	10	20	24	35
전남	269	342	462	262	9	60	77	67	19	15	61
경북	186	174	263	219	-39	-32	70	16	6	-17	-4
경남	-159	11	-8	-210	-330	-176	-71	-43	-45	-22	-56
제주	-6	10	24	0	-36	-18	-11	-2	-7	-2	6
순이동 여성인구											
서울	1504	164	-489	1408	1952	941	594	578	496	423	750
부산	321	0	178	697	466	219	56	60	57	58	105
대구	-73	-131	-209	222	40	-66	-70	7	9	7	-22
인천	-262	-123	-293	-408	-317	-150	-93	-68	-59	-85	-198
광주	-185	-170	-64	76	-19	-105	-52	-19	-7	-3	-42
대전	-295	-184	-203	-141	-226	-185	-87	-35	-27	-30	-103
경기	-1459	-677	-1522	-1826	-1624	-998	-703	-674	-548	-473	-1027
강원	111	121	284	59	8	74	65	19	14	18	56
충북	-100	41	126	24	-95	-39	-9	-16	3	8	18
충남	27	198	472	33	-58	3	36	22	21	15	106
전북	45	114	380	189	0	34	27	29	20	20	112
전남	193	374	694	18	8	115	103	51	40	57	166
경북	80	144	493	34	-30	81	80	30	-2	14	64
경남	-105	87	96	-464	-286	-104	-27	-24	-28	-44	-37
제주	-27	11	4	-15	-34	-10	-3	3	-3	-5	1

〈부표 II-2〉 지역별 전출입 여성인구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단위 : 천명

	전출여성인구				전입여성인구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서울	3914	1074	1050	67	-61	330	170	492
부산	1218	240	116	19	274	77	14	158
대구	-75	-4	-7	1	-159	-8	3	37
인천	-1114	-161	-112	-10	-416	-32	-20	-29
광주	-72	-45	0	-1	43	-29	-1	-17
대전	-581	-127	-82	2	-189	-58	-18	-49
경기	-5971	-777	-870	-35	-2577	-253	-136	-296
강원	891	-16	-10	-2	466	-8	-8	-13
충북	60	-71	-45	-3	183	-23	-5	-36
충남	231	-6	-10	-3	530	4	-3	-40
전북	511	6	21	-3	478	22	1	-25
전남	755	36	2	-11	789	19	-1	-35
경북	460	-42	-11	-13	528	12	-5	-52
경남	-718	-142	-92	-10	-60	-60	-9	-108
제주	-44	-5	-25	-2	6	-13	-3	-21

〈부표 II-3〉 맞벌이부부의 취업유형

단위 : %

	남편	주로 일함	주로 일함	일+가사	일+가사	일시휴직	기타	맞벌이
	부인	주로 일함	일+가사	주로 일함	일+가사	주로 일함	유형	전체
서울		75.5	22.4	0.2	0.3	0.4	1.2	100.0
부산		75.0	23.5	0.2	0.3	0.4	0.6	100.0
대구		71.9	26.1	0.2	0.5	0.4	0.9	100.0
인천		73.7	24.6	0.2	0.1	0.3	1.1	100.0
광주		70.9	26.4	0.6	0.4	0.4	1.3	100.0
대전		75.5	22.4	0.1	0.1	0.4	1.5	100.0
경기		71.7	26.3	0.1	0.3	0.3	1.3	100.0
강원		61.5	37.1	0.2	0.4	0.2	0.6	100.0
충북		69.8	28.6	0.3	0.4	0.2	0.7	100.0
충남		47.9	50.4	0.1	0.9	0.2	0.5	100.0
전북		68.0	30.6	0.2	0.7	0.1	0.4	100.0
전남		77.8	21.2	0.1	0.4	0.2	0.3	100.0
경북		57.1	41.7	0.1	0.5	0.2	0.4	100.0
경남		59.8	38.9	0.1	0.3	0.2	0.7	100.0
제주		76.9	21.7	0.1	0.7	0.3	0.3	100.0
전국		68.7	29.6	0.2	0.4	0.3	0.8	100.0

주: 「일+가사」는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센서스 (2% 표본)」.

〈부표 Ⅱ-4〉 맞벌이부부의 종사상지위

단위 : %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기업주	무급 가족종사자	남편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30.3	7.5	1.6	0.8	40.2
자영업자	4.3	4.5	0.4	40.3	49.5
기업주	2.2	0.9	1.1	5.7	9.9
무급가족종사자	0.0	0.2	0.1	0.2	0.4
부인 종사상지위	36.8	13.2	3.1	47.0	100.0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센서스 (2% 표본)」.

〈부표 Ⅱ-5〉 맞벌이부부의 종사상지위별 고용구조

단위 : %

	남편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기업주	기타	맞벌이
	부인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무급가족	유형	전체
서울		44.7	6.6	5.9	5.0	17.8	8.4	11.6	100.0
부산		42.7	10.0	4.6	4.3	22.0	7.8	8.6	100.0
대구		39.2	9.4	5.6	5.5	24.4	8.0	7.9	100.0
인천		46.0	7.7	5.1	4.6	19.9	6.1	10.6	100.0
광주		34.0	11.1	4.8	3.5	28.9	8.5	9.2	100.0
대전		39.7	10.9	3.9	5.3	22.2	8.4	9.6	100.0
경기		41.7	7.7	5.6	4.9	25.1	6.0	9.0	100.0
강원		21.1	8.7	3.0	6.7	49.3	4.8	6.4	100.0
충북		21.0	7.1	4.7	3.2	55.4	0.2	8.4	100.0
충남		11.8	4.7	4.1	5.6	66.5	3.3	4.0	100.0
전북		14.9	6.0	2.2	3.4	65.2	4.2	4.1	100.0
전남		9.1	6.4	1.4	3.4	73.2	3.3	3.2	100.0
경북		14.8	6.1	3.1	4.3	64.9	3.0	3.8	100.0
경남		24.8	9.2	3.2	3.8	48.7	4.8	5.5	100.0
제주		20.0	8.5	2.4	3.9	51.4	7.0	6.8	100.0
전국		30.3	7.5	4.3	4.5	40.3	5.7	7.4	100.0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센서스 (2% 표본)」.

〈부표 Ⅱ-6〉 맞벌이부부의 산업별 고용구조

단위 : %

남편	농어업	제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금융업	금융업	사회 서비스	기타	맞벌이
부인	농어업	제조업	사회 서비스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금융업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	유형	전체
서울	0.4	13.3	3.6	1.2	16.5	7.0	3.4	3.0	8.7	42.9	100.0
부산	3.8	14.4	3.4	1.3	16.1	7.4	1.8	1.1	8.4	42.3	100.0
대구	5.1	19.2	2.6	0.9	16.6	6.5	1.6	2.0	8.0	37.5	100.0
인천	6.6	18.5	3.7	1.5	13.5	4.9	2.0	1.1	6.7	41.5	100.0
광주	10.2	6.3	2.8	1.8	18.1	7.0	1.6	1.6	12.9	37.7	100.0
대전	4.7	6.2	2.6	1.2	17.2	8.0	3.0	3.8	11.1	42.2	100.0
경기	13.6	14.8	3.4	1.2	11.2	5.9	2.1	1.8	6.7	39.3	100.0
강원	38.7	2.5	0.9	0.8	11.3	5.6	1.0	0.7	6.9	31.6	100.0
충북	44.7	6.1	1.7	0.6	9.4	3.8	0.9	0.9	5.4	26.5	100.0
충남	62.0	3.8	0.9	0.4	6.6	3.4	0.6	0.4	4.1	17.8	100.0
전북	56.9	3.4	0.9	0.5	8.2	3.6	0.9	1.0	5.9	18.7	100.0
전남	66.5	2.0	0.7	0.5	6.7	3.4	0.4	0.3	3.2	16.3	100.0
경북	59.2	5.3	1.2	0.3	6.0	3.7	0.4	0.6	3.9	19.4	100.0
경남	39.9	7.1	2.9	0.6	8.9	4.9	0.9	0.6	5.4	28.8	100.0
제주	44.6	1.8	0.5	2.0	10.0	5.0	1.1	0.7	6.0	33.7	100.0
전국	28.6	9.6	2.4	0.9	11.5	5.4	1.6	1.4	6.5	32.1	100.0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센서스 (2% 표본)」.

〈부표 Ⅱ-7〉 맞벌이부부의 직종별 고용구조

단위 : %

남편	전문가	준 전문가	준 전문가	준전문가	서비스 판매직	농 어업직	기능원	기능원	단순 노무직	기타	맞벌이
부인	전문가	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 판매직	서비스 판매직	농 어업직	서비스 판매직	기능원	단순 노무직	유형	전체
서울	3.9	2.4	3.4	2.8	22.5	0.3	3.9	9.0	2.6	49.2	100.0
부산	3.2	1.8	1.1	2.8	22.4	3.6	5.2	8.6	2.9	48.4	100.0
대구	3.9	1.4	0.7	1.1	22.4	5.0	4.0	7.2	2.0	52.3	100.0
인천	1.9	3.3	1.8	2.9	16.9	6.5	4.7	7.6	2.1	52.3	100.0
광주	4.8	2.1	1.1	2.4	21.3	10.0	3.5	3.5	3.2	48.1	100.0
대전	5.5	2.7	2.3	3.1	23.4	4.7	5.1	3.7	2.3	47.2	100.0
경기	2.3	2.8	1.7	2.5	16.3	13.3	3.7	4.8	2.4	50.2	100.0
강원	2.0	1.5	0.7	1.4	16.9	38.2	2.7	1.6	2.4	32.6	100.0
충북	1.5	1.4	0.5	1.5	13.0	44.6	2.1	1.5	1.7	32.2	100.0
충남	1.6	1.0	0.5	0.9	9.7	61.8	1.5	1.4	0.9	20.7	100.0
전북	2.3	0.8	0.7	1.1	11.3	56.7	1.7	1.9	1.2	22.3	100.0
전남	1.1	0.8	0.3	1.1	9.1	66.3	1.5	1.5	1.3	17.0	100.0
경북	1.2	1.0	0.3	1.0	8.9	59.0	1.7	1.5	1.1	24.3	100.0
경남	2.1	1.2	0.8	1.6	12.8	39.4	3.1	2.0	1.4	35.6	100.0
제주	1.6	0.4	0.7	1.6	13.4	44.0	2.3	0.8	3.2	32.0	100.0
전국	2.5	1.9	1.3	2.0	16.0	28.3	3.1	4.4	2.0	38.5	100.0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센서스 (2% 표본)」

<부표 Ⅲ-1>지역별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가구분포

단위 : 명, %

	전체 가구수		유배우 가구		사별 가구주		이혼 가구주		미혼 가구주		미상	
서울특별시	59421	100.0	43061	72.5	4634	7.8	1652	2.8	7457	12.6	2618	4.4
부산광역시	21923	100.0	16298	74.3	2385	10.8	703	3.2	1656	7.6	881	4.0
대구광역시	14484	100.0	10496	72.5	1513	10.5	395	2.7	1465	10.1	615	4.3
인천광역시	13491	100.0	10334	76.6	1056	7.8	314	2.3	1326	9.8	461	3.4
광주광역시	7267	100.0	5156	71.0	703	9.7	142	2.0	871	12.0	395	5.4
대전광역시	7247	100.0	5263	72.6	541	7.5	163	2.3	906	12.5	374	5.2
경기도	44074	100.0	34138	77.5	3432	7.8	923	2.1	4062	9.2	1519	3.5
강원도	9028	100.0	6388	70.8	1171	13.0	166	1.8	816	9.0	487	5.4
충청북도	8260	100.0	6086	73.7	926	11.2	159	1.9	767	9.3	322	3.9
충청남도	10533	100.0	7778	73.8	1540	14.6	129	1.2	684	6.5	402	3.8
전라북도	11374	100.0	8130	71.5	1801	15.8	173	1.5	807	7.1	463	4.1
전라남도	12998	100.0	9167	70.5	2463	19.0	171	1.3	604	4.7	593	4.6
경상북도	16809	100.0	11892	70.7	2731	16.3	255	1.5	1303	7.8	628	3.7
경상남도	23112	100.0	17030	73.7	3040	13.2	457	2.0	1734	7.5	851	3.7
제주도	3196	100.0	2066	64.6	603	18.9	105	3.3	276	8.6	146	4.6

<부표 III-2> 맞벌이 부인의 근로형태별 직업분포

단위 : 명, %

연령	주로 일하였음 (전일제)		틈틈히 일하였음 (시간제)	
계				
15-19	42	0.1	5	0.1
20-29	5052	16.6	1152	11.8
30-39	13288	43.7	4378	45.0
40-49	8745	28.8	2841	29.2
50-59	2849	9.4	1049	10.8
60세이상	418	1.4	313	3.2
학력				
계	30406	100.0	9741	100.0
무학	553	1.8	277	2.8
국졸	4495	14.8	1790	18.4
중졸	6723	22.1	2409	24.7
고졸	12123	39.9	4097	42.1
초급대졸	1509	5.0	351	3.6
대졸	4519	14.9	757	7.8
대학원졸이상	484	1.6	60	0.6
종사상의 지위				
계	30389	100.0	9733	100.0
임금근로자	17212	56.6	3305	34.0
자영업자	4400	14.5	1479	15.2
고용주	1559	5.1	240	2.5
무급가족종사자	7218	23.8	4709	48.4
직업				
계	30406	100.0	9741	100.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27	1.1	49	0.5
전문가	2927	9.6	273	2.8
기술공 및 준전문가	2593	8.5	644	6.6
사무직원	3215	10.6	687	7.1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11709	38.5	4290	44.0
농림어업근로자	981	3.2	909	9.3
기능원	3600	11.8	1283	13.2
장치 기계조작, 조립원	1923	6.3	521	5.3
단순노무직근로자	3131	10.3	1085	11.1

<부표 III-3> 동거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연령

단위 : 명, %

		시어머니의 연령					며느리 연령계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며 느 리 연 령	20세미만	-	3	22	31	768	824
			0.0	0.1	0.1	3.6	3.8
	20-29	-	7	347	2322	4917	7593
			0.0	1.6	11.0	23.3	35.9
	30-39	-	-	10	1384	6158	7552
				0.0	6.5	29.1	35.7
	40-49	-	-	-	21	3304	3325
					0.1	15.6	15.7
	50-59	2	1	-	-	1475	1478
		0.0	0.0			7.0	7.0
	60세이상	3	11	15	5	341	375
		0.0	0.1	0.1	0.0	1.6	1.8
시어머니 연령		5	22	394	3763	16963	21147
		0.0	0.1	1.9	17.8	80.2	100.0

<부표 III-4> 지역별 시모와 며느리의 경제활동상태분포

단위 : 명, %

전체		시어머니		며느리 계	동부	시어머니		며느리 계	읍면부	시어머니		며느리 계		
		유업	무업			유업	무업			유업	무업			
며 느 리	유 업	1536 7.8	7780 39.7	9316 47.5	며 느 리	유 업	334 2.5	4670 35.4	5004 38.0	며 느 리	유 업	1202 18.7	3110 48.5	4312 67.2
	무 업	1203 6.1	9079 46.3	10282 52.5		무 업	719 5.5	7459 56.6	8178 62.0		무 업	484 7.5	1620 25.2	2104 32.8
시어머니		2739 14.0	16859 86.0	19598 100.0	시어머니		1053 8.0	12129 92.0	100.0 (13182)	시어머니		1686 26.3	4730 73.7	6416 100.0

<부표 III-5> 연령별 출산을 및 합계 출산율의 변화

단위 : 명, %

	연령별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 천명당 총출산수)							합계 ¹⁾ 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	
1980	12.9	141.4	244.1	106.6	30.6	8.5	2.0	2.7
1985	10.1	118.5	158.9	41.0	8.8	2.2	0.5	1.7
1990	4.1	83.6	169.5	50.3	9.5	1.5	0.2	1.6
1995	3.4	63.1	178.7	69.4	14.7	2.1	0.2	1.7

주: 1) 합계출산율이란 여자 1명이 가임기간동안 조사시의 연령별 출산율과 동일한 출산을 하게될 때 낳을 수 있는 자녀수.

출처 : 통계청(1996), 「인구동태통계연보」

<부표 IV-1> 연령계층별 인적특성별 남성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전체
혼인상태별											
미혼	6.4	41.2	74.7	83.2	79.2	70.8	64.2	66.4	61.1	41.4	41.6
기혼	57.0	87.9	96.0	96.8	96.5	95.3	93.1	38.8	80.1	49.9	86.6
가구주여부별											
가구주	30.8	66.2	92.3	96.6	96.6	95.4	93.2	89.1	80.9	55.0	87.3
비가구주	5.9	39.9	73.7	83.3	82.4	79.6	78.9	69.7	53.9	16.8	39.8

자료 :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

<부표 IV-2> 남성인력의 유형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

	전체	시부	군부
1995년 경제활동상태별 분류			
경제활동 주로 일하였음	49.1	71.0	28.9
가사와 함께 틈틈이 일하였음	3.9	4.9	7.1
학교 다니며 틈틈이 일하였음	0.2	0.3	0.2
다른 활동하며 틈틈이 일하였음	0.1	0.2	0.1
일하다가 잠시 쉬고 있음	0.3	0.5	0.2
비경제활동 일거리를 구하고 있음	3.8	5.3	2.4
가사만 돌보았음	23.4	1.5	43.7
학교만을 다녔음	12.8	14.2	11.5
기타(연로, 연소, 장기질병 등)	6.3	6.8	5.9
전체 15세 이상 인구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1992),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경제활동편.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

<부표 IV-3> 학력별 남성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단위 :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기업주	1.4	3.6	6.8	9.7	10.1	14.7
자영업자	75.1	56.5	35.9	21.0	12.8	7.8
무급가족종사자	4.0	1.9	2.2	2.3	1.9	0.6
임금근로자	19.5	38.0	55.1	67.0	75.3	76.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

<부표 IV-4> 학력별 남성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단위 : %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전체
기업주	0.0	0.6	5.2	16.5	24.2	20.0	13.7	9.5	5.9	4.2	9.4
자영업자	0.1	0.8	4.3	10.5	15.3	14.3	12.8	11.4	11.3	19.2	25.3
무급가족종사자	5.6	23.9	24.0	17.0	9.6	5.0	3.0	1.8	1.9	8.3	1.9
임금근로자	1.4	7.9	19.1	20.5	17.4	11.5	8.5	6.3	4.6	2.9	63.3
기업주	0.2	1.1	3.5	8.9	13.2	14.7	13.0	11.5	8.8	5.5	9.5
자영업자	1.3	3.7	7.7	15.2	22.3	28.2	32.6	37.0	45.1	67.0	25.3
무급가족종사자	10.2	7.9	3.2	1.8	1.0	0.7	0.6	0.4	0.6	2.2	1.9
임금근로자	88.3	87.3	85.6	74.1	63.5	56.4	53.8	51.1	45.4	25.2	63.3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부표 IV-5> 종사상지위별 남성취업자의 업종별 분포

단위 : %

	기업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2.8	42.7	67.9	1.6
제조업	26.1	6.4	4.8	33.8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1	0.0	0.0	1.0
건설업	13.4	6.6	1.7	14.4
도매·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점	28.2	24.2	13.4	11.3
숙박 및 음식점업	11.5	4.7	7.2	2.0
운수, 창고 및 통신업	2.9	6.9	0.4	8.5
금융 및 보험업	0.5	0.2	0.1	4.1
가사서비스업	0.0	0.1	0.0	0.0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14.5	8.0	4.5	23.2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부표 IV-6> 종사상지위별 남성취업자의 직종별 분포

단위 : %

	기업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자, 관리자	1.3	34.1	59.3	1.1
전문가	6.1	4.4	6.2	30.0
기술공 및 준 전문가	0.0	0.0	0.0	0.2
사무직원	0.8	0.5	0.8	3.3
서비스근로자, 상점과 시장판매자	17.4	29.5	18.8	13.6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44.1	15.8	9.9	8.6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0.5	0.2	0.2	2.6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0.4	0.7	0.0	9.1
단순 노무직 근로자	0.1	0.7	0.0	1.4
	29.2	14.1	4.6	30.0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부표 IV-7> 교육정도별 남성취업자의 업종별 분포

단위 :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75.1	47.0	18.2	6.3	3.4	1.5
제조업	5.7	13.5	25.5	31.2	28.2	22.7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0	0.2	0.3	0.6	1.2	1.0
건설업	7.5	14.3	16.6	12.3	10.5	8.7
도매·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점	4.4	8.6	14.1	19.5	18.6	16.0
숙박 및 음식점업	1.3	2.8	4.6	4.7	3.8	2.0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2	4.7	10.0	9.2	6.8	4.6
금융 및 보험업	0.1	0.2	0.6	2.0	3.4	6.9
가사서비스업	0.0	0.0	0.0	0.0	0.3	0.0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4.6	8.6	10.0	14.1	23.8	36.5
전업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부표 IV-8> 연령계층별 남성취업자의 업종분포

단위 :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9.0	6.9	3.7	4.7	6.7	9.4	13.5	19.9	31.0	59.8
제조업	46.7	36.7	34.0	32.3	27.6	23.6	20.5	17.6	12.4	7.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5	0.6	0.7	0.7	0.7	0.8	0.7	0.6	0.4	0.1
건설업	8.0	9.9	11.1	11.9	13.8	14.4	14.5	12.9	11.4	5.2
도매·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점	16.9	20.7	19.2	17.6	16.7	16.5	16.2	14.1	12.4	7.8
숙박 및 음식점업	7.9	5.7	3.8	3.6	3.7	4.0	4.1	3.6	2.9	1.6
운수, 창고 및 통신업	2.0	4.2	6.0	7.1	9.2	9.8	9.3	8.5	6.8	2.4
금융 및 보험업	0.7	2.2	3.9	3.8	2.9	2.7	2.4	1.8	1.3	0.8
가사서비스업	0.3	0.2	0.1	0.0	0.0	0.1	0.0	0.0	0.0	0.0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8.0	12.8	17.5	18.5	18.6	18.9	18.9	21.0	21.4	15.3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부표 IV-9> 업종별 직종별 남성취업구조

단위 : %

	입법		전문가		기술공		사무		서비스		농어업		기능		기계		단순		소계	
	공무원,		및		직원		및		종사		근로자		조작원		노무자					
	관리자				준전문가				판매직				숙련직				조립공			
농업, 임업, 어업, 광업	0.1	0.0	0.1	0.1	0.0	12.7	0.1	0.2	0.1	13.4										
제조업	2.2	0.7	3.2	3.3	0.6	0.0	8.0	6.7	0.9	25.6										
전기, 가스·수도사업	0.0	0.0	0.1	0.1	0.0	0.0	0.2	0.1	0.1	0.6										
건설업	1.2	0.3	0.9	0.9	0.0	0.0	5.8	0.9	2.0	12.1										
도매·소매, 소비자용품수리점	1.1	0.2	1.6	0.9	9.4	0.0	1.7	0.6	0.8	16.2										
숙박 및 음식점업	0.2	0.0	0.1	0.1	3.1	0.0	0.1	0.0	0.1	3.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0.3	0.1	0.5	0.9	0.1	0.0	0.5	4.6	0.4	7.4										
금융 및 보험업	0.3	0.0	0.9	1.2	0.1	0.0	0.0	0.1	0.2	2.7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0.9	4.3	4.9	2.1	2.0	0.0	0.7	0.8	1.9	18.2										
가사서비스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소계	6.3	5.6	12.3	9.7	15.3	12.8	16.9	14.1	6.4	100.0										

주: 직종의 합이 100.00이 되지 않는 것은, 직업군인비율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부표 IV-10〉 연령계층별 남성취업자의 직종분포

단위 : %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자, 관리자	0.0	0.4	1.9	4.9	7.9	9.2	9.7	9.3	7.8	5.0
전문가	0.2	1.7	6.1	7.4	6.6	5.5	4.9	5.2	5.5	3.7
기술공 및 준 전문가	5.5	11.3	16.5	16.2	14.3	12.1	10.2	8.3	7.0	3.9
사무직원	5.8	10.9	15.5	13.7	10.4	7.7	6.9	6.3	4.6	2.2
서비스근로자, 상점·시장판매자	15.5	17.0	15.3	15.3	15.9	17.3	17.4	15.7	13.2	8.1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8.9	6.5	3.3	4.2	6.0	8.7	12.7	19.1	30.2	59.1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29.6	25.0	19.8	18.7	18.4	17.7	16.0	13.6	10.3	4.3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5.4	20.2	16.6	15.2	15.4	15.3	13.8	11.3	7.8	3.1
단순 노무직 근로자	9.0	6.3	4.2	3.6	4.5	5.7	7.9	10.8	13.6	10.6

주: 직종의 합이 100.00이 되지 않는 것은, 직업군인비율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부표 IV-11〉 학력별 남성취업자의 직종별 분포

단위 :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자, 관리자	0.3	0.9	1.9	5.4	7.5	1.1
전문가	0.2	0.1	0.1	0.4	4.4	14.0
기술공 및 준 전문가	0.6	1.4	3.4	10.6	24.0	23.3
사무직원	0.5	1.3	3.6	10.2	16.4	25.1
서비스근로자, 상점과 시장판매자	4.8	10.0	15.7	19.4	17.6	16.3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74.4	46.0	17.3	5.8	3.0	10.6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6.1	16.2	25.8	21.8	12.7	1.2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3.1	9.7	20.7	20.2	10.0	4.5
단순 노무직 근로자	10.5	14.3	11.4	5.5	3.3	2.7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부표 IV-12〉 지역별 연령계층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서울	5.7	39.7	81.0	94.0	95.7	95.0	95.7	87.8	77.2	35.5
부산	5.6	36.8	78.9	91.4	94.1	92.1	82.1	85.3	73.0	32.0
대구	4.9	37.6	79.6	93.8	95.3	94.8	90.8	86.7	75.2	35.5
인천	8.3	54.6	87.4	95.9	95.8	95.7	95.7	87.2	76.1	37.2
광주	5.6	30.9	75.1	92.4	93.3	91.5	91.1	87.1	74.1	36.3
대전	5.2	33.0	78.4	92.8	95.0	95.3	92.2	86.6	70.8	33.8
경기도	0.1	56.0	87.2	95.8	96.1	95.3	95.7	87.4	77.1	42.8
강원도	3.5	38.5	77.1	91.6	93.9	94.0	94.2	89.4	80.5	52.2
충북	6.3	40.1	79.1	94.6	95.2	95.1	95.5	92.2	84.4	57.3
충남	9.6	47.7	86.9	93.7	95.1	95.3	92.6	91.7	89.7	66.5
전북	5.0	34.5	76.6	91.4	93.7	95.2	93.6	90.9	86.1	61.7
전남	6.2	47.8	85.3	94.6	95.8	95.3	95.2	92.3	90.8	69.4
경북	6.4	48.7	83.7	94.9	95.1	94.6	92.4	92.1	85.4	64.3
경남	7.1	48.8	86.7	95.5	96.0	94.1	94.3	89.6	82.3	59.4
제주	3.2	55.1	84.6	91.3	94.2	94.7	91.9	92.3	82.5	60.3
전체	6.6	43.8	82.6	94.2	93.4	94.6	92.7	88.6	80.0	49.8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부표 IV-13〉 지역별 종사상지위별 남성 취업자 분포

단위 : %

	기업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서울	10.2	15.2	4.6	70.0
부산	8.1	16.6	5.5	69.7
대구	8.7	18.9	6.1	66.3
인천	7.9	15.3	5.1	71.7
광주	7.7	18.8	7.3	66.2
대전	8.1	17.6	5.9	68.4
경기도	7.6	17.6	6.7	68.1
강원도	5.8	28.4	15.1	50.7
충북	5.0	27.9	17.1	50.0
충남	3.9	35.3	23.7	37.1
전북	5.1	32.6	21.3	41.1
전남	3.6	38.1	26.3	32.0
경북	4.1	33.5	21.0	41.4
경남	5.2	24.8	13.2	56.7
제주	6.8	28.9	16.9	47.5
전체	7.2	22.0	10.7	60.0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부표 IV-14〉 지역별 업종별 남성 취업자 분포

단위 : %

	농어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가사·서비스	개인·사회서비스
서울	0.4	23.8	0.4	9.8	22.1	7.2	6.0	5.1	24.3	0.7
부산	3.0	28.4	0.5	9.2	20.3	7.7	8.6	3.4	18.5	0.5
대구	3.2	29.8	0.3	10.1	20.9	6.7	5.0	3.9	19.7	0.3
인천	4.1	35.6	0.3	9.9	16.7	5.7	6.0	3.2	18.2	0.2
광주	5.8	16.0	0.5	11.6	22.4	6.8	7.0	4.5	25.0	0.2
대전	3.2	15.1	0.3	12.4	21.2	8.2	6.7	4.5	28.0	0.4
경기도	8.6	31.1	0.4	9.3	16.0	6.1	5.0	3.5	19.8	0.3
강원도	28.7	8.7	0.6	8.3	15.4	8.4	5.0	3.2	21.6	0.2
충북	30.7	19.4	0.3	7.7	12.6	5.6	4.3	2.7	16.6	0.3
충남	47.2	14.1	0.5	5.5	9.9	4.9	3.3	2.0	12.5	0.1
전북	40.4	11.7	0.3	6.6	12.2	5.0	4.6	2.9	16.3	0.2
전남	53.2	8.2	0.4	5.6	10.3	4.6	3.7	2.3	11.6	0.1
경북	42.5	17.3	0.5	5.6	10.3	5.0	3.7	2.0	12.9	0.1
경남	24.6	28.0	0.9	6.9	12.5	5.6	4.2	2.7	14.6	0.2
제주	35.3	4.0	0.6	8.8	15.5	9.0	6.3	3.6	16.8	0.1
전체	16.5	23.2	0.5	8.5	16.7	6.3	5.3	3.6	19.1	0.3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부표 IV-15〉 지역별 직종별 남성 취업자 분포

단위 : %

	입법·공무원·관리자	전문가·준전문가	기술공·및·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및·판매직	농어업·종사·숙련직	기능·근로자	기계·조작원·조립공	단순·노무자
서울	6.5	8.0	15.8	15.5	24.1	0.3	15.5	7.2	6.9
부산	5.1	5.3	11.1	12.2	23.6	2.2	19.2	12.1	9.1
대구	5.0	6.3	8.9	13.0	23.8	2.9	17.4	15.3	7.1
인천	3.8	4.4	14.5	11.7	19.1	3.9	19.7	16.1	6.5
광주	5.2	8.8	12.1	12.8	24.3	5.4	12.7	11.5	6.9
대전	3.5	10.1	11.8	12.6	25.1	3.0	15.3	10.0	7.9
경기도	4.7	5.5	13.0	12.5	19.0	8.2	14.7	14.0	7.8
강원도	3.3	4.8	7.8	8.5	22.1	26.1	9.6	7.6	8.1
충북	2.4	4.3	8.2	7.9	17.3	29.9	10.3	11.6	7.5
충남	1.1	3.6	5.9	6.6	13.8	46.6	7.9	9.3	4.7
전북	1.8	5.0	6.6	8.2	16.3	39.8	8.8	8.1	5.4
전남	1.5	3.1	5.2	5.9	13.9	52.4	7.3	5.8	4.6
경북	4.0	3.5	6.2	6.5	14.2	41.7	8.7	10.1	4.7
경남	3.1	4.6	8.8	10.6	16.4	24.0	12.7	13.5	5.9
제주	1.8	4.1	5.0	10.3	21.7	33.4	7.7	7.6	8.3
전체	4.3	5.7	11.0	11.5	19.9	15.9	13.7	10.8	6.8

자료: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부표 IV-16> 혼인상태별 취업자의 통근시간 분포

단위 : %

	남 자						여 자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유업자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유업자	
15분미만	24.2	29.6	38.9	29.4	28.7		21.9	46.6	43.3	35.1	38.1	
15-30분미만	24.4	22.7	29.6	24.5	23.1		25.8	26.7	27.4	29.0	26.5	
30-45분미만	18.5	16.8	11.5	20.1	17.1		17.6	11.4	12.6	14.2	13.6	
45-60분미만	14.7	14.0	9.0	11.2	14.1		15.5	7.9	8.7	12.3	10.5	
60-90분미만	12.4	11.7	7.5	10.7	11.8		14.0	5.5	5.7	6.8	8.3	
90-120분미만	3.7	2.9	2.8	2.1	3.0		3.4	1.3	1.9	1.9	2.1	
120분이상	2.1	2.3	0.6	2.1	2.2		1.9	0.6	0.4	0.5	1.0	

<부표 IV-17> 가구주여부별 취업자의 통근시간 분포

단위 : %

	남 자			여 자		
	가구주	비가구주	유업자	가구주	비가구주	유업자
15분미만	29.7	24.1	28.7	39.6	37.8	38.1
15-30분미만	23.2	22.5	23.1	26.9	26.4	26.5
30-45분미만	17.0	17.9	17.1	14.0	13.5	13.6
45-60분미만	13.9	15.0	14.1	9.8	10.6	10.5
60-90분미만	11.3	14.0	11.8	6.9	8.6	8.3
90-120분미만	2.8	4.1	3.0	1.9	2.1	2.1
120분이상	2.2	2.4	2.2	0.8	1.0	1.0

<부표 IV-17> 직종별 성별 취업자의 통근시간 분포

단위 : %

	남 자								
	고위 임직원	전문가 준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 판매	농어업	기능원	조직원 조립원	단순 노무자
15분미만	21.6	22.0	17.5	19.1	37.1	68.3	25.6	28.9	28.4
15-30분미만	17.7	17.4	20.4	20.4	19.7	25.7	24.1	30.1	28.1
30-45분미만	18.8	16.8	17.9	18.1	15.3	4.0	19.1	20.5	17.1
45-60분미만	18.6	18.4	18.8	18.9	12.4	0.9	14.5	10.2	13.2
60-90분미만	15.6	18.3	18.1	17.3	10.8	0.4	10.7	6.9	8.4
90-120분미만	4.2	4.9	4.7	4.1	2.7	0.1	2.9	1.7	2.3
120분이상	3.6	2.1	2.5	2.1	2.0	0.6	3.0	1.6	2.4

	여 자								
	고위 임직원	전문가 준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 판매	농어업	기능원	조직원 조립원	단순 노무자
15분미만	31.5	26.5	25.7	21.8	47.7	70.1	39.3	39.4	33.6
15-30분미만	19.4	20.9	25.7	24.8	23.1	26.2	29.0	34.5	34.2
30-45분미만	15.3	16.1	15.7	17.2	11.6	2.7	14.1	15.8	14.9
45-60분미만	17.7	16.2	14.8	16.2	8.6	0.7	9.6	6.3	9.2
60-90분미만	13.7	14.3	12.2	14.8	6.6	0.2	5.5	3.3	6.6
90-120분미만	1.6	4.2	4.1	3.3	1.6	0.1	1.7	0.5	1.0
20분이상	0.8	1.9	1.8	1.8	0.8	0.0	0.8	0.1	0.4

<부표 IV-1> 연도별 연령별 민간인구 전망

단위 : 천명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1997	3,932	3,538	4,418	4,173	4,289	3,427	2,548	2,114	2,019	4,553	35,012
1998	3,951	3,419	4,445	4,157	4,319	3,647	2,619	2,182	2,037	4,766	35,542
1999	3,885	3,345	4,409	4,185	4,297	3,859	2,739	2,271	2,026	4,981	35,997
2000	3,736	3,335	4,313	4,247	4,241	4,025	2,935	2,353	2,009	5,193	36,387
2001	3,539	3,374	4,175	4,324	4,179	4,148	3,158	2,422	2,006	5,411	36,737
2002	3,339	3,426	4,022	4,395	4,131	4,231	3,369	2,486	2,036	5,631	37,065
2003	3,182	3,442	3,886	4,423	4,115	4,262	3,588	2,558	2,103	5,829	37,388
2004	3,095	3,385	3,802	4,388	4,207	4,241	3,798	2,677	2,191	5,999	37,721
2005	3,073	3,253	3,791	4,293	4,207	4,187	3,964	2,870	2,272	6,161	38,072
2006	3,109	3,081	3,836	4,156	4,284	4,128	4,087	3,091	2,340	6,341	38,451
2007	3,220	2,904	3,895	4,003	4,355	4,080	4,170	3,300	2,404	6,553	38,886
2008	3,275	2,766	3,915	3,868	4,384	4,067	4,202	3,516	2,475	6,780	39,247
2009	3,359	2,689	3,850	3,784	4,350	4,097	4,183	3,724	2,592	6,998	39,626
2010	3,425	2,669	3,701	3,774	4,256	4,159	4,131	3,888	2,782	7,200	39,985

〈부표 IV-2〉 연도별 민간인구의 연령계층별 비율

단위 :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1997	11.2	10.1	12.6	11.9	12.3	9.8	7.3	6.0	5.8	13.0	100.0
1998	11.1	9.6	12.5	11.7	12.2	10.3	7.4	6.1	5.7	13.4	100.0
1999	10.8	9.3	12.2	11.6	11.9	10.7	7.6	6.3	5.6	13.8	100.0
2000	10.3	9.2	11.9	11.7	11.7	11.1	8.1	6.5	5.5	14.3	100.0
2001	9.6	9.2	11.4	11.8	11.4	11.3	8.6	6.6	5.5	14.7	100.0
2002	9.0	9.2	10.9	11.9	11.1	11.4	9.1	6.7	5.5	15.2	100.0
2003	8.5	9.2	10.4	11.8	11.0	11.4	9.6	6.8	5.6	15.6	100.0
2004	8.2	9.0	10.1	11.6	11.0	11.2	10.1	7.1	5.8	15.9	100.0
2005	8.1	8.5	10.0	11.3	11.0	11.0	10.4	7.5	6.0	16.2	100.0
2006	8.1	8.0	10.0	10.8	11.1	10.7	10.6	8.0	6.1	16.5	100.0
2007	8.3	7.5	10.0	10.3	11.2	10.5	10.7	8.5	6.2	16.9	100.0
2008	8.3	7.0	10.0	9.9	11.2	10.4	10.7	9.0	6.3	17.3	100.0
2009	8.5	6.8	9.7	9.6	11.0	10.3	10.6	9.4	6.5	17.7	100.0
2010	8.6	6.7	9.3	9.4	10.6	10.4	10.3	9.7	7.0	18.0	100.0

〈부표 IV-3〉 연도별 연령별 여성 민간인구 전망

단위 : 천명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1997	1,938	1,986	2,164	2,037	2,096	1,684	1,260	1,054	1,035	2,705	17,958
1998	1,947	1,918	2,178	2,029	2,111	1,793	1,295	1,088	1,041	2,816	18,216
1999	1,913	1,876	2,161	2,043	2,101	1,897	1,354	1,132	1,033	2,927	18,438
2000	1,836	1,872	2,113	2,073	2,075	1,978	1,451	1,174	1,021	3,037	18,632
2001	1,736	1,894	2,045	2,111	2,046	2,038	1,562	1,209	1,017	3,149	18,808
2002	1,634	1,923	1,969	2,147	2,022	2,079	1,667	1,242	1,031	3,261	18,974
2003	1,552	1,932	1,901	2,162	2,014	2,094	1,775	1,277	1,065	3,360	19,133
2004	1,503	1,899	1,860	2,145	2,028	2,085	1,879	1,336	1,109	3,446	19,289
2005	1,487	1,822	1,856	2,097	2,058	2,059	1,960	1,432	1,151	3,526	19,448
2006	1,497	1,723	1,878	2,029	2,096	2,030	2,020	1,542	1,185	3,616	19,616
2007	1,526	1,621	1,908	1,954	2,132	2,007	2,060	1,646	1,218	3,722	19,792
2008	1,562	1,539	1,917	1,886	2,147	1,999	2,076	1,754	1,253	3,836	19,969
2009	1,598	1,491	1,883	1,846	2,130	2,013	2,067	1,857	1,311	3,945	20,140
2010	1,628	1,474	1,807	1,841	2,083	2,043	2,042	1,937	1,406	4,046	20,307

<부표 IV-4> 연도별 여성민간인구의 연령계층별 비율

단위 :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1997	10.8	11.1	12.1	11.4	11.7	9.4	7.0	5.9	5.8	15.1	100.0
1998	10.7	10.5	12.0	11.1	11.6	9.8	7.1	6.0	5.7	15.5	100.0
1999	10.4	10.2	11.7	11.1	11.4	10.3	7.4	6.1	5.6	15.9	100.0
2000	09.6	10.1	11.3	11.1	11.1	10.6	7.8	6.3	5.5	16.3	100.0
2001	09.2	10.1	10.9	11.2	10.9	10.8	8.3	6.4	5.4	16.7	100.0
2002	08.6	10.1	10.4	11.3	10.7	11.0	8.8	6.5	5.4	17.1	100.0
2003	08.1	10.1	9.9	11.3	10.5	11.0	9.3	6.7	5.6	17.6	100.0
2004	07.8	9.8	9.6	11.1	10.5	10.8	9.7	6.9	5.8	17.9	100.0
2005	07.6	9.4	9.5	10.8	10.6	16.0	10.1	7.4	5.9	18.1	100.0
2006	07.6	8.8	9.6	10.3	10.7	10.4	10.3	7.9	6.0	18.4	100.0
2007	07.7	8.2	9.6	9.9	10.8	10.1	10.4	8.3	6.2	18.8	100.0
2008	07.8	7.7	9.6	9.5	10.8	10.0	10.4	8.8	6.3	19.2	100.0
2009	07.9	7.4	9.4	9.2	10.6	10.0	10.3	9.2	6.5	19.6	100.0
2010	08.0	7.3	8.9	9.1	10.3	10.1	10.1	9.5	6.9	19.9	100.0

<부표 IV-5> 연도별 연령별 남자 민간인구 전망

단위 : 천명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1997	2,254	1,994	1,553	2,136	2,196	1,743	1,288	1,060	983	1,849	17,054
1998	2,267	2,004	1,501	2,128	2,208	1,855	1,324	1,094	995	1,951	17,326
1999	2,248	1,973	1,469	2,142	2,196	1,962	1,385	1,138	993	2,054	17,559
2000	2,200	1,900	1,464	2,174	2,166	2,047	1,484	1,179	987	2,156	17,756
2001	2,131	1,803	1,480	2,213	2,134	2,110	1,596	1,213	988	2,262	17,929
2002	2,053	1,705	1,502	2,248	2,109	2,152	1,702	1,245	1,004	2,370	18,091
2003	1,985	1,630	1,510	2,262	2,102	2,168	1,813	1,281	1,038	2,468	18,255
2004	1,942	1,591	1,486	2,243	2,117	2,156	1,919	1,341	1,081	2,553	18,431
2005	1,936	1,587	1,431	2,196	2,149	2,128	2,004	1,438	1,121	2,635	18,624
2006	1,958	1,612	1,358	2,126	2,188	2,098	2,067	1,549	1,154	2,725	18,835
2007	1,988	1,694	1,284	2,049	2,223	2,074	2,110	1,654	1,186	2,832	19,093
2008	1,998	1,712	1,227	1,981	2,238	2,068	2,126	1,762	1,222	2,945	19,279
2009	1,967	1,760	1,198	1,939	2,220	2,084	2,116	1,867	1,281	3,053	19,486
2010	1,894	1,797	1,195	1,933	2,173	2,116	2,089	1,951	1,376	3,154	19,678

<부표 IV-6> 남성민간인구의 연령계층별 비율

단위 :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1997	11.7	9.1	13.2	12.5	12.9	10.2	7.6	6.2	5.8	10.8	100.0
1998	11.6	8.7	13.1	12.3	12.7	10.7	7.6	6.3	5.7	11.3	100.0
1999	11.2	8.4	12.8	12.2	12.5	11.2	7.9	6.5	5.7	11.7	100.0
2000	10.7	8.2	12.4	12.2	12.2	11.5	8.4	6.6	5.6	12.1	100.0
2001	10.1	8.3	11.9	12.3	11.9	11.8	8.9	6.8	5.5	12.6	100.0
2002	09.4	8.3	11.3	12.4	11.7	11.9	9.4	6.9	5.6	13.1	100.0
2003	08.9	8.3	10.9	12.4	11.5	11.9	9.9	7.0	5.7	13.5	100.0
2004	08.6	8.1	10.5	12.2	11.5	11.7	10.4	7.3	5.9	13.9	100.0
2005	08.5	7.7	10.4	11.8	11.5	11.4	10.8	7.7	6.0	14.1	100.0
2006	08.6	7.2	10.4	11.3	11.6	11.1	11.0	8.2	6.1	14.5	100.0
2007	08.9	6.7	10.4	10.7	11.6	10.9	11.0	8.7	6.2	14.8	100.0
2008	08.9	6.4	10.4	10.3	11.6	10.7	11.0	9.1	6.3	15.3	100.0
2009	09.0	6.1	10.1	10.0	11.4	10.7	10.9	9.6	6.6	15.7	100.0
2010	09.1	6.1	9.6	9.8	11.0	10.8	10.6	9.9	7.0	16.0	100.0

<부표 IV-7> 연도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단위 : 천명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1997	400	2,201	3,115	3,088	3,400	2,794	2,021	1,587	1,388	1,799	21,794
1998	370	2,116	3,150	3,091	3,438	2,978	2,086	1,648	1,410	1,895	22,182
1999	345	2,063	3,137	3,120	3,430	3,159	2,188	1,721	1,410	2,000	22,572
2000	315	2,050	3,083	3,176	3,396	3,305	2,350	1,791	1,404	2,109	22,977
2001	286	2,067	2,997	3,244	3,354	3,416	2,536	1,846	1,407	2,218	23,371
2002	259	2,090	2,901	3,303	3,325	3,493	2,710	1,902	1,435	2,335	23,754
2003	240	2,092	2,816	3,333	3,321	3,529	2,896	1,960	1,487	2,442	24,116
2004	228	2,051	2,768	3,315	3,353	3,522	3,071	2,057	1,554	2,538	24,456
2005	220	1,961	2,773	3,252	3,411	3,485	3,213	2,210	1,617	2,631	24,773
2006	219	1,848	2,817	3,154	3,480	3,443	3,317	2,384	1,669	2,734	25,066
2007	221	1,736	2,872	3,045	3,545	3,412	3,393	2,550	1,721	2,852	25,346
2008	222	1,643	2,898	2,950	3,576	3,409	3,424	2,722	1,777	2,976	25,597
2009	223	1,589	2,861	2,890	3,555	3,440	3,414	2,887	1,865	3,096	25,820
2010	224	1,567	2,760	2,887	3,485	3,501	3,378	3,021	2,009	3,210	26,043

<부표 IV-8>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계층별 비율

단위 :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1997	10.2	62.2	70.5	74.0	79.3	81.5	79.3	75.1	68.8	39.5	62.2
1998	9.4	61.9	70.9	74.3	79.6	81.7	79.6	75.5	69.2	39.8	62.4
1999	8.9	61.7	71.1	74.5	79.8	81.9	79.9	75.8	69.6	40.2	62.7
2000	8.4	61.5	71.5	74.8	80.1	82.1	80.1	76.1	69.9	40.6	63.1
2001	8.1	61.2	71.8	75.0	80.3	82.4	80.3	76.2	70.2	41.0	63.6
2002	7.8	61.0	72.1	75.2	80.5	82.6	80.5	76.5	70.5	41.5	64.1
2003	7.6	60.8	72.5	75.3	80.7	82.8	80.7	76.6	70.7	41.9	64.5
2004	7.4	60.6	72.8	75.5	80.9	83.0	80.9	76.8	70.9	42.3	64.8
2005	7.1	60.3	73.1	75.7	81.1	83.2	81.1	77.0	71.2	42.7	65.1
2006	7.0	60.0	73.4	75.9	81.2	83.4	81.2	77.1	71.3	43.1	65.2
2007	6.9	59.8	73.7	76.1	81.4	83.6	81.4	77.3	71.6	43.5	65.2
2008	6.8	59.4	74.0	76.3	81.6	83.8	81.5	77.4	71.8	43.9	65.2
2009	6.6	59.1	74.3	76.4	81.7	84.0	81.6	77.5	72.0	44.2	65.2
2010	6.5	58.7	74.6	76.5	81.9	84.2	81.8	77.7	72.2	44.6	65.1

<부표 IV-9> 연도별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인구 전망

단위 : 천명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1997	240	1,322	1,123	1,017	1,276	1,108	794	619	567	795	8,862
1998	222	1,289	1,148	1,027	1,298	1,187	824	649	580	836	9,060
1999	207	1,276	1,156	1,044	1,303	1,263	868	689	582	881	9,262
2000	189	1,286	1,150	1,070	1,297	1,325	936	714	580	929	9,476
2001	170	1,315	1,131	1,100	1,287	1,376	1,014	739	583	976	9,690
2002	155	1,348	1,107	1,127	1,282	1,411	1,087	764	596	1,027	9,904
2003	144	1,366	1,086	1,144	1,289	1,432	1,165	789	620	1,072	10,103
2004	135	1,354	1,079	1,143	1,302	1,434	1,238	830	650	1,113	10,278
2005	131	1,309	1,093	1,126	1,329	1,425	1,298	893	679	1,153	10,436
2006	130	1,245	1,121	1,096	1,361	1,413	1,341	965	703	1,197	10,572
2007	130	1,180	1,154	1,061	1,390	1,403	1,374	1,035	727	1,247	10,700
2008	130	1,127	1,175	1,032	1,408	1,405	1,389	1,106	752	1,300	10,824
2009	129	1,097	1,169	1,015	1,404	1,421	1,387	1,175	791	1,349	10,938
2010	130	1,091	1,135	1,018	1,379	1,451	1,376	1,232	853	1,400	11,065

<부표 IV-10> 연도별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연령계층별 비율

단위 :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1997	2.7	14.9	12.7	11.5	14.4	12.5	9.0	7.0	6.4	9.0	100.0
1998	2.4	14.2	12.7	11.3	14.3	13.1	9.1	7.2	6.4	9.2	100.0
1999	2.2	13.8	12.5	11.3	14.1	13.6	9.4	7.4	6.3	9.5	100.0
2000	2.0	13.6	12.1	11.3	13.7	14.0	9.9	7.5	6.1	9.8	100.0
2001	1.8	13.6	11.7	11.4	13.3	14.2	10.5	7.6	6.0	10.1	100.0
2002	1.6	13.6	11.2	11.4	12.9	14.3	11.0	7.7	6.0	10.4	100.0
2003	1.4	13.5	10.7	11.3	12.7	14.2	11.5	7.8	6.1	10.6	100.0
2004	1.4	14.0	11.2	11.9	12.7	14.9	12.9	8.6	6.7	11.6	100.0
2005	1.3	12.5	10.5	10.8	12.7	13.7	12.4	8.6	6.5	11.0	100.0
2006	1.2	11.8	10.6	10.4	12.9	13.4	12.7	9.1	6.6	11.3	100.0
2007	1.2	11.0	10.8	9.9	13.0	13.1	12.8	9.7	6.8	11.7	100.0
2008	1.2	10.4	10.9	9.5	13.0	13.0	12.8	10.2	6.9	12.0	100.0
2009	1.2	10.0	10.7	9.3	12.8	13.0	12.7	10.7	7.2	12.3	100.0
2010	1.2	9.9	10.3	9.2	12.5	13.1	12.4	11.1	7.7	12.7	100.0

<부표 IV-11> 연도별 연령별 남성 경제활동인구 전망

단위 : 천명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1997	160	879	1,992	2,072	2,123	1,686	1,228	969	821	1,004	12,933
1998	148	827	2,002	2,064	2,140	1,792	1,262	999	830	1,059	13,122
1999	138	787	1,981	2,076	2,128	1,896	1,320	1,038	828	1,119	13,310
2000	125	764	1,934	2,106	2,099	1,980	1,414	1,077	823	1,179	13,501
2001	115	752	1,866	2,144	2,068	2,040	1,523	1,107	824	1,242	13,682
2002	104	742	1,795	2,176	2,044	2,081	1,624	1,138	839	1,308	13,850
2003	96	726	1,731	2,189	2,036	2,096	1,731	1,171	867	1,370	14,135
2004	92	697	1,690	2,172	2,051	2,087	1,833	1,227	904	1,425	14,178
2005	89	653	1,680	2,125	2,082	2,060	1,916	1,316	938	1,478	14,337
2006	89	603	1,696	2,058	2,120	2,030	1,976	1,419	966	1,537	14,494
2007	91	556	1,718	1,984	2,155	2,010	2,019	1,515	994	1,606	14,646
2008	92	516	1,723	1,918	2,168	2,003	2,035	1,616	1,025	1,676	14,772
2009	93	491	1,692	1,875	2,151	2,019	2,027	1,712	1,075	1,747	14,882
2010	93	477	1,625	1,869	2,106	2,050	2,002	1,789	1,156	1,810	14,977

<부표 IV-12> 연도별 남성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계층별 비율

단위 :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1997	1.2	6.8	15.4	16.0	16.4	13.0	9.5	7.5	6.3	7.8	100.0
1998	1.1	6.3	15.3	15.7	16.3	13.7	9.6	7.6	6.3	8.1	100.0
1999	1.0	5.9	14.9	15.6	16.0	14.2	9.9	7.8	6.2	8.4	100.0
2000	0.9	5.7	14.3	15.6	15.5	14.7	10.5	8.0	6.1	8.7	100.0
2001	0.8	5.5	13.6	15.7	15.1	14.9	11.1	8.1	6.0	9.1	100.0
2002	0.8	5.4	13.0	15.7	14.8	15.0	11.7	8.2	6.1	9.4	100.0
2003	0.7	5.2	12.3	15.6	14.5	15.0	12.4	8.4	6.2	9.8	100.0
2004	0.7	4.9	11.9	15.3	14.5	14.7	12.9	8.7	6.4	10.0	100.0
2005	0.6	4.6	11.7	14.8	14.5	14.4	13.4	9.2	6.5	10.3	100.0
2006	0.6	4.2	11.7	14.2	14.6	14.0	13.6	9.8	6.7	10.6	100.0
2007	0.6	3.8	11.7	13.5	14.7	13.7	13.8	10.3	6.8	11.0	100.0
2008	0.6	3.5	11.7	13.0	14.7	13.6	13.8	10.9	6.9	11.3	100.0
2009	0.6	3.3	11.4	12.6	14.5	13.6	13.6	11.5	7.2	11.7	100.0
2010	0.6	3.2	10.9	12.5	14.1	13.7	13.4	11.9	7.7	12.1	100.0

<부표 IV-13> 연도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단위 : 천명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1997	10.2	62.2	70.5	74.0	79.3	81.5	79.3	75.1	68.8	39.5	62.2
1998	9.4	61.9	70.9	74.3	79.6	81.7	79.6	75.5	69.2	39.8	62.4
1999	8.9	61.7	71.1	74.5	79.8	81.9	79.9	75.8	69.6	40.2	62.7
2000	8.4	61.5	71.5	74.8	80.1	82.1	80.1	76.1	69.9	40.6	63.1
2001	8.1	61.2	71.8	75.0	80.3	82.4	80.3	76.2	70.2	41.0	63.6
2002	7.8	61.0	72.1	75.2	80.5	82.6	80.5	76.5	70.5	41.5	64.1
2003	7.6	60.8	72.5	75.3	80.7	82.8	80.7	76.6	70.7	41.9	64.5
2004	7.4	60.6	72.8	75.5	80.9	83.0	80.9	76.8	70.9	42.3	64.8
2005	7.1	60.3	73.1	75.7	81.1	83.2	81.1	77.0	71.2	42.7	65.1
2006	7.0	60.0	73.4	75.9	81.2	83.4	81.2	77.1	71.3	43.1	65.2
2007	6.9	59.8	73.7	76.1	81.4	83.6	81.4	77.3	71.6	43.5	65.2
2008	6.8	59.4	74.0	76.3	81.6	83.8	81.5	77.4	71.8	43.9	65.2
2009	6.6	59.1	74.3	76.4	81.7	84.0	81.6	77.5	72.0	44.2	65.2
2010	6.5	58.7	74.6	76.5	81.9	84.2	81.8	77.7	72.2	44.6	65.1

<부표 IV-14> 연도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단위 :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1997	12.4	66.6	51.9	49.9	60.9	65.8	63.0	58.7	54.8	29.4	49.3
1998	11.4	67.2	52.7	50.6	61.5	66.2	63.6	59.7	55.7	29.7	49.7
1999	10.8	68.0	53.5	51.1	62.0	66.6	64.1	60.3	56.3	30.1	50.2
2000	10.3	68.7	54.4	51.6	62.5	67.0	64.5	60.8	56.8	30.6	50.9
2001	9.8	69.4	55.3	52.1	62.9	67.5	64.9	61.1	57.3	31.0	51.5
2002	9.5	70.1	56.2	52.5	63.4	67.9	65.2	61.5	57.8	31.5	52.2
2003	9.3	70.7	57.1	52.9	63.8	68.4	65.6	61.8	58.2	31.9	52.8
2004	9.0	71.3	58.0	53.3	64.2	68.8	65.9	62.1	58.6	32.3	53.3
2005	8.8	71.8	58.9	53.7	64.6	69.2	66.2	62.4	59.0	32.7	53.7
2006	8.7	72.3	59.7	54.0	64.9	69.6	66.4	62.6	59.3	33.1	53.9
2007	8.5	72.8	60.5	54.3	65.2	69.9	66.7	62.9	59.7	33.5	54.1
2008	8.3	73.2	61.3	54.7	65.6	70.3	66.9	63.1	60.0	33.9	54.2
2009	8.1	73.6	62.1	55.0	65.9	70.6	67.1	63.3	60.3	34.2	54.3
2010	8.0	74.0	62.8	55.3	66.2	71.0	67.4	63.6	60.7	34.6	54.5

<부표 IV-15> 연도별 연령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단위 :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1997	8.0	56.6	88.4	97.0	96.8	96.7	95.3	91.4	83.5	54.3	75.8
1998	7.4	55.1	88.3	97.0	96.9	96.6	95.3	91.3	83.4	54.3	75.7
1999	7.0	53.6	88.1	96.9	96.9	96.6	95.3	91.2	83.4	54.5	75.8
2000	6.6	52.2	87.9	96.9	96.9	96.7	95.3	91.3	83.4	54.7	76.0
2001	6.4	50.8	87.6	96.9	96.9	96.7	95.4	91.3	83.4	54.9	76.3
2002	6.1	49.4	87.4	96.8	96.9	96.7	95.4	91.4	83.5	55.2	76.6
2003	5.9	48.1	87.2	96.8	96.9	96.7	95.5	91.4	83.5	55.5	76.8
2004	5.8	46.9	87.0	96.8	96.9	96.8	95.5	91.5	83.6	55.8	76.9
2005	5.6	45.6	86.8	96.8	96.9	96.8	95.6	91.5	83.7	56.1	77.0
2006	5.5	44.4	86.6	96.8	96.9	96.8	95.6	91.6	83.7	56.4	77.0
2007	5.4	43.3	86.4	96.8	96.9	96.9	95.7	91.6	83.8	56.7	76.7
2008	5.4	42.1	86.2	96.8	96.9	96.9	95.7	91.7	83.9	56.9	76.6
2009	5.3	41.0	86.0	96.7	96.9	96.9	95.8	91.7	83.9	57.2	76.4
2010	5.2	39.9	85.8	96.7	96.9	96.9	95.8	91.7	84.0	57.4	76.1

<부표 IV-16> 나라별 연령계층별 비율(2000년)

단위 : %

	남 자				여 자			
	0-14	15-64	65이상	전체	0-14	15-64	65이상	전체
일 본	16.4	69.1	14.5	49.2	15.2	66.0	18.8	50.8
홍 콩	23.0	70.5	6.5	50.4	22.4	69.5	8.1	49.6
싱가포르	17.1	72.1	10.8	52.2	17.8	69.3	12.8	47.8
말레이시아	36.4	60.0	3.6	50.3	35.3	60.3	4.5	49.7
필 리 핀	34.2	62.4	3.4	50.4	33.5	62.4	4.1	49.6
미 국	22.2	67.5	10.3	49.1	20.4	64.8	14.7	50.9
영 국	20.6	65.8	13.6	49.3	19.1	62.9	18.0	50.7
독 일	17.7	69.0	13.2	49.0	64.4	15.3	20.3	51.0
프 랑 스	20.1	67.2	12.7	48.9	18.3	63.4	18.3	51.1
카 나 다	21.1	68.1	10.8	49.3	19.4	66.0	14.7	50.7
스 웨 덴	20.4	64.9	14.7	49.7	19.1	61.7	19.2	50.3